

[2016 PRIME사업 인문학진흥]

DEU-English Clinic

- 학습 교재 -

박지영 곽응경 권성진 김경미 김은지 안은주 이미향 이해진 제선미



동 의 지 천 교 양 대 학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DEU English Clinic

Guide

박지영 곽응경 권성진

김경미 김은지 안은주

이미향 이혜진 제선미

목 차

| | |
|-------------------------------------|-----|
| PART 1 영어 성공담 | 3 |
| PART 2 e-bravo Grammar Guide | 35 |
| 1. 형용사 | 36 |
| 2. 능동태와 수동태 | 58 |
| 3. 전치사 | 76 |
| 4. 접속사 | 87 |
| 5. 분사 | 97 |
| 6. 문장구조와 5형식 | 114 |
| 7. 부정사 | 129 |
| 8. 동명사 | 147 |
| 9. 동사의 시제 | 157 |
| 10. 명사 | 177 |
| 11. 관계대명사 | 200 |
| PART 3 FAQ | 214 |

PART 1

영어 성공담

영어와 베프되기

- 김은지 교수

영어 잘하는 방법은 정말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는 것 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영어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나뉘어지겠죠. 저도 옛날엔 영어가 정말 싫었었죠.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 영어를 못하면 여행 시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더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잡아 영어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일단 내가 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표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주요했던 거 같아요. 영어 잘하는 노하우랑 팁은 정말 반복뿐입니다.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라는 속담도 있듯이. 계속 공부 하다 보면 영어에 대한 흥미가 붙어서 표현 하나하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공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Steady wins the race.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경우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굳이 비법을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어휘력을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은 단어를 알아야 들리고 무슨 말인지도 알게 되지요. 귀에 익숙하다면 잘 들릴 것이고 눈에도 익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영어를 눈으로 공부하지 않고 소리와 함께 익혔습니다. 웬말이를 거쳐 처음 말문이 트일 때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몇 번 들었을까요? 아마 헤아리지 못 할 겁니다. 그만큼 수없이 많이 듣고, 그것을 따라 말해야만 말 문이 트이는 겁니다. 귀로 듣고, 발음을 따라 하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영어 환경에 저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의도적인 영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mp3 파일을 친구 삼아서. 매 번 새로운 단어를 하는 것보다는 반복 듣기 기능을 활용해서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무한 반복을 했어요. 영어는 공부한다 라고 하기 보다는 training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듣기는 출퇴근길에 짬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들으면서 큰소리로 따라 하고요.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목표를 향해 꾸준히 한 걸음씩 노력했답니다. 소리가 익숙하니 조금씩 말 늘이기가 되고 영어와 좀 더 가까워 지기 시작했죠. .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몇 번해서 안 들린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모국어와의 차이점을 인식한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다르니 한국어를 그대로 영어 단어와 일대일 대응하면 안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모국어와의 차이점을 파악해서 영어문장을 단순히 암기하지 않고 어순에 맞게 단어를 맞추어 말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어요. 단순 암기로 공부하지 말고 원리와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했었죠. 물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되는 것들은 암기해야겠죠.

네 번째, 즐기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이므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사용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SNS 를 통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생한 표현과 패턴에 익숙해 지도록 노력했답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 내용을 영어 사이트에서 검색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으로 영어와 놀려고 노력했답니다. 영어를 배우는 최종 목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실수를 할 까봐 두려워 말고 조금 어색하고 부끄럽더라도 완벽하게 하려다 머뭇거리는 것보단 틀리더라도 어떤 상황을 상상 해보고 연습하며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영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게도 힘든 거였지만 마지막으로 영어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므로 우리말 식으로 짜 맞추다 보면 어색한 부분이 꽤 있어요. 영어를 말할 때도 우리말로 만들어서 영어로 바꾸는 것보다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이 바로 생각나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걸 녹음해서 들어보고 원어민과 비교하며 수정했던 점은 저의 영어를 한층 성장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영어를 배우려던 그 때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훨씬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선택해서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어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 안은주 교수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1970~80년대는 아직 우리나라에 영어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학교 영어 수업도 지금과는 달리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시작되었죠. 중학교 입학과 함께 부모님께서 사주신 영어 참고서는 제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참고서에 딸린 카세트 테이프를 매일 끼고 살았죠. 그 카세트 테이프에 나오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 아이 목소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똑같이 말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당시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외국에서 살다 돌아온 아이들, 즉 리터니(returnee)들을 위한 특별반이 운영되는 시범 학교였고,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영어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 테이프를 틀어주시는 대신 그런 아이들에게 읽히곤 하셨죠. 테이프로 열심히 해 온 덕에 저도 그런 아이들 틈에 끼어서 단골로 책의 대화를 읽곤 했고, 그런 경험이 제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 경험을 예로 들어서 저는 학생들에게 조언하곤 해요. 발음이 좋아지려면 CD든 DVD든 자신과 같은 성별이면서 목소리 톤이 비슷한 원어민 목소리를 택해서 그 목소리와 톤, 속도 등 모든 것을 똑같이 말해보는 연습을 하라고 말이에요. 이걸 동시통역 대학원 준비생이나 학생들도 자주 하는 공부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그때부터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는 같은 학교의 친한 친구와 영어로 편지를 주고 받기도 하고, 대학 어학당 외국인 선생님들에게 하숙을 치던 그 친구의

집을 드나들며 외국인들과 대화도 하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지요.

대학에 진학해서는 불교 학생회, 연극반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경험을 하며 제 자신과 세계, 그리고 저의 미래에 대해 조금씩 가치관을 형성해 나갔고, 그러는 동안 사실 영어는 제게 최우선 과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영문학이 좋아서 영문과 대학원에 진학한 저는 한국아메리카학회의 조교 일을 하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문화 및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기에 대사관 사람들은 물론 많은 해외 발표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했으니, 해외 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저는 영어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지요.

서울에서는 미군 방송인 AFKN이 나오는데, 이 방송을 영어 자막과 함께 볼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전자상가에서 자막 생성기를 사서 집에 있던 TV에 연결했어요. 비디오와 함께 있는 작은 TV였는데, 화면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반복, 또 반복해서 보다가 TV가 다 고장 나 버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요즘은 DVD나 Youtube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수고가 필요 없게 되었지만요. 드라마나 뉴스가 아직 너무 어렵다면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보세요. 자막 없이 여러 번 들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쓰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을 띄워놓고 모르는 단어나 표현은 사전을 찾아서 자신만의 단어장에 기록해 두고 수시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게 영어, 나아가 외국어 전반에 대한 도약을 가능하게

해준 계기는 박사과정 때 하게 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과정” 조교 일이었어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북유럽부터 미대륙, 아프리카까지 전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날아온 학생들과 함께 한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아직 한국어를 배우기 전인 새 학생들에게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무실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거의 하루 종일 영어로 대화하고 전화하고 이메일 하는 날들을 보내면서 제 영어는 일취월장했죠. 또한 영어를 힘들어하는 일본, 중국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일본어와 중국어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런 다국어 환경이 더더욱 제 시야를 넓혀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전세계 친구들을 폭넓게 사귀게 된 것이 큰 수확이었어요. 그 중에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어, 중국어는 교내 언어교육원 수업을 듣는 동시에 1 대 1 언어교환학습(language exchange)을 통해 공부했는데요. 나중에는 미국인 친구와 같이 하기도 했어요. 친구도 사귀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교환학습을 학생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어요. 요즘은 학교에 교환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은 학교 근처 헬스 클럽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과 친해져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더군요. 외국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 친구들의 한국 생활도 도와주며 우정을 나눈다면,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문화도 배울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 후 진출하게 될 글로벌한 직업 세계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거예요. 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다 보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우리말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되고, 언어들 사이의 상관 관계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영어 공부뿐 아니라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을 토대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는 여러분이 괴롭게 준비해야 하는 시험 과목이 아니라 즐겁게 체험하며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자신과 목소리 톤이 비슷한 외국인 배우나 성우를 찾아서 똑같이 따라서 말해보기. Youtube등을 활용해서 미국 어린이 프로그램을 자막 없이 여러 번 반복해 본 후에 영어 자막으로 표현, 단어 찾고 정리하기. 그리고 외국인 친구와 언어교환학습(language exchange) 해보기.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즐기며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쑥 자라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국제적인 열린 마음과 태도도 함께요. 모두들 화이팅!

영어 비법 전수를 받으시오~

- 박지영 교수

제가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을 것 같나요? 전혀요~ 저는 오히려 수학을 더 잘했습니다. 누가 '영어 잘하는 비법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저는 한마디로 '관심'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팝송을 좋아했어요. 아니 집에 팝송이 마구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듣고 다녔다고 할까? 아버지, 오빠가 영어를 다 잘하는 걸 보면 어쩌면 외국어도 가족력 또는 유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릴 때 중학생인 오빠가 레코드판을 백장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가끔은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좋아하는 팝송을 꺼내 들었었어요. 팝송의 P도 몰랐을 때였지요. 중학교 즈음엔 레코드판 안에 들어있는 가사를 보면서 마구 따라 불렀지요. 그때 아마 발음공부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해요. 그래서 저는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는 법을 강추해요. 그 이외에 제가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는 저만의 비법들을 소개할까 해요.

비법 1. 목표를 세워라!

지금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그것부터 시작하기! 이런 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즉, 영어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취업을 위한 TOEIC인지 아니면 해외여행에 필요한 관광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인지, 해외무역을 할 거라면 무역영어를 공부해야겠지요. 즉, 영어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특정 분야를 집중공략하자는 거지요.

비법 2.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라!

혹시나 '내가 말하는 영어발음이나 문장을 상대방이 못 알아 들으면 어떡하나?'라고 고민되죠? 한마디로 자신감과 용기부족 현상이랍니다. 외국인이 서투른 한국말을 한두 마디 하는 거 보면 와~ 놀랍고 대견하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영어의 진정한 목적은 의사소통이잖아요. 어떤 언어든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는 없답니다.

혹, 발음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시중에 수많은 영어회화 교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거기에 mp3까지 지원되는데 뭐가 문제죠? 자신이 수많은 교재들 중에서 정말로 한눈에 딱 들어오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걸 구입해서 원어민 발음 따라하기 즉, 흉내내기(mimic)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팝송가사를 보면서 그 가수의 발음을 똑같이 따라해보기도 했답니다.

비법 3. 기본패턴을 익혀라!

영어에서 한 개의 덩어리를 'chunk'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What's this?'를 한 단어씩 분리시키지 말고 한 덩어리로 '이것은 뭐니?'로 한 단어처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와있는 영어회화 교재 1권 정도는 마스터를 해야 합니다. 쉬운 내용부터 하루 두세 문장만 완벽히 익힌다고 생각하고 반복해 보세요. 단어만을 외우거나 서로 연관 없는 문장만 하나씩 외우기 보다는 실제 회화 Dialogue를 통해 전체를 외우는 방법이 좋겠지요?

비법 4. 영어를 즐겨라!

자기자신에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맙시다. 요즘 토익책 명이 뽀개기, 격파 등 과격한 단어까지 등장하는데요. 영어가 적도 아닌데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를 잘 해야 하는데 어찌지 어찌지?' 그렇게 하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마구마구 쌓이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를 주는 이와 친해지고 싶지 않듯이 여러분이 영어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영어도 여러분을 싫어하게 마련이죠. 영어를 즐기기 위해서는 팝을 좋아하는 분들은 팝송을, 영화 매니아라면 영화로, 요즘엔 미국 드라마도 쉽게 볼 수 있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재미있게 공부하자고요. 한가지 더, 문법에 너무 연연하면서 신경 쓰고 매달리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즐기면서 어느 순간 저거는 뭘까? 궁금해지면 영문법 책을 뒤져본다면 눈에 쓱쓱 들어오겠지요?

비법 5. 조급해하지 말자!

한 연구보고 자료에 따르면 영어로 간신히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200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0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해도 5-6년, 하루에 2시간 공부한다면 2-3년이 걸린다는 거죠. 영어공부는 마치 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어느새 죽어버리는 거죠. 영어는 매일매일 내가 돌봐줘야 하는 살아 숨쉬는 일종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지요. 영어의 길은 먼 것 같지만,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성이란 말을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영어의 그 벽을 넘기 위해 오늘도 Let's go for it!

영어 비법은 없다!

- 곽응경 교수

직업상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더불어 듣게 되는 말이 자신은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나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막상 외국인을 만나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입니다. 영어공부의 비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먼저 상대가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들의 답을 듣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손 안대고 코 푸는 방법을 찾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 마다 나는 항상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서 입지적 인물로 평가 받는 성철스님의 일화로 영어공부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철스님이 생전에 공부가 안돼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한 수좌에게 "공부가 안된다는 것은 공부를 안한다는 말인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될 턱이 있나?" 고 따끔하게 꼬집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 중에 영어실력이 늘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영어공부에 투자하는지를 냉정히 판단해 보세요. 자신은 나름 영어 공부를 한다는 말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영어공부의 비법이나 지름길을 묻는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There is no royal learning to learning) 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남들보다 영어실력이 아주 조금 나아서 한국인치고는 영어를 그럭저럭 한다라는 칭찬을 가끔 듣지만, 실은 나는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6 학년 겨울방학 때 겨우 알파벳을 다 외우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본 첫 중간고사 에서 40 점 만점에 29 점 받고, 기말고사에서는 겨우 절반을 넘긴 21 점을 받았답니다. 중 1 때 담임이 영어선생님 이었는데 영어점수가 형편없는 나에게 무척 친절히 대해 줬어요. 계속 영어 성적은 떨어지는데도 늘 나를 챙겨주시고 관심을 주는 선생님의 얼굴을 대하기가 어린 마음에도 부끄럽고 미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보답하고자 영어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기초가 없으니 어떻게 시험준비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 무작정 영어 교과서를 다 외우고 시험을 쳤는데, 결과는 40 점 만점에 31 점이 나왔습니다. 그 때의 어린 마음에 얻었던 큰 깨달음이 '아, 영어는 그냥 무조건 외우면 되는구나' 였고, 영어를 거의 포기할 뻔 했다가 31 점이라는 점수에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지요. 그 자신감이 결국에는 내가 영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게끔 이끌어 주는 불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하는데 있어 자신만의 확실한 동기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기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에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나의 최초의 동기는 단순히 선생님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타인을 위한 동기가 나를 위해 공부하는 동기로 바뀌게 되면서, 성적은 쑥쑥 오르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영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으며, 지금은 영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자가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나요? 중 1 때의 경험으로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라는 것을 직접 터득하고 난 후, 매일 매일 영어단어를 외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단어를 외울 때는 철자뿐만 아니라 정확한 강세와 발음에도 중점을 두고 소리 내어 암기 했어요. 그리고 문법의 경우는 단순 이해나 암기로 끝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책 없이도 설명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애매한 것 없이 확실히 알고 넘어갔습니다. 이전에 수학경시대회에서 1 등한 학생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수학을 잘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기자에게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학생의 경우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그것을 이해해서 머리 속에 넣어 두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가상의 학생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학습한 것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문법같이 이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타인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쌓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변함없는 꾸준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 중에서 듣기실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필수입니다. 나의 경우 대학 1 학년때 진짜 주말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소' 1 시간은 학교 어학실에서 다양한 듣기 자료를 가지고 공부했었어요. 정확히 1 년후에 귀가 열리더군요.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지 않아도 영어가 술술 귀에 들어올 때의 그 희열과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경우 영어 말하기는 회화책을 무조건 암기하는 걸로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 한 챗터씩 외워서 역할극 (role play) 형식으로 친구는 A 가 되고 나는 B 가 되고, 두 번째는 역할을 바꾸어 친구가 B 가 되고 내가 A 가 되어 암기한 내용을 주고 받으며 말하기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친구의 사정으로 말하기 연습을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나 혼자서 A 가 되었다가 B 가 되었다가 혼자 복치고 장구치는 '일인회화'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외워서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말을 조합하고 응용해서 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길을 걷다가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지 상상하며 말하기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이런 방법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더군요. 이전에 태국 오지를 여행할 때 함께한 현지 가이드가 영어를 곧잘 하길래 어디서 영어를 배웠냐고 물어봤어요. 그 가이드는 자신은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가 되어 돈을 많이 벌며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답니다. 자구책으로 영어 회화 서적을 하나 구해서 책의 내용을 통째로 외운 후,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타인이라 여기고 혼자서 말을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독학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영어공부의 동기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강한 동기와 꾸준한 노력이 만나 큰 결실을 이루어 낸 것이지요.

태국의 그 가이드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영어를 잘하길 원한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와 같은 이유로 영어 공부를 미루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세요. 공부만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영어공부를 하며 직접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이제 도전하자

- 김경미 교수

요즘 영어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영어 때문에 고민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 경험에 비추어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거의 매일같이 새벽 5 시에서 7 시까지 영어를 두 시간 가량 공부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어 교과서를 거의 다 암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영어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영어 시간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깐요. 중학교 시절부터 영어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결국 대학에서도 영어를 전공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가지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었는데, 대학교 때 원어민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데 식은땀이 날 정도로 표현이 입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았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영어 공부는 말하기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쪽 짜리 영어 공부를 해왔다는 것ですよ. 그리고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맞추기 위한 문법, 어휘, 독해 공부, 흔히들 말하는 죽은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논리적으로 의사 전달하지 못하는 건 죽은 영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구실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다면 제 기능을 잃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원어민 회화반에 등록도 하고,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하면서, 조금씩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표현하는 능력으로 초점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 어학연수를 10 개월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세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영어 말하기 실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영국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낯설고,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느새 영어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고, 영어로 의사 소통 하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 한국음식, 한국명절, 한국예절, 자랑스러운 한국인 등에 대해서 영어로 발표하면서, 때론 애국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영어를 잘하면 전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게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가게 되더라도, 영어권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연습에 더 소홀해지기 쉽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영어권 나라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영어 말하기 실력을 탄탄하게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든, 영어권 나라에 있든 본인 스스로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매일 영어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영화/드라마를 즐겨 봤었는데, 그때 방법을 잘못 썼다는 걸 몇 년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보는 것에서 만족할 뿐, 그 표현들을 따라서 연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들을 어떻게 적용해볼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영어 전문가 과정을 밟기 위해 영국 테슬 석사 과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 경험을 토대로 다시 영국으로 가서 영국 남부 지역의 엑시터 대학(University of Exeter)에 한국인으로서 오퍼를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이 졸업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영국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아이엘츠 (IELTS)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 시험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말하기 영역은 감독관이 녹음을 해서, 그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보내져서 채점이 매겨집니다. 그 시험의 특징은 스토리텔링 이며, 지금 영어 말하기 오픽 시험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말하기에 대한 실력을 좀 더 튼튼하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모든 수업이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제는 에세이 입니다. 글을 논리적으로 쓸 줄 알아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교수로부터 냉혹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전세계 학생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퀄리티는 매우 높았습니다. 매일 같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정신 없이 이루어집니다. 부담감이 엄청 컸지만, 밤잠을 설쳐 가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던 노력 덕분에 마지막까지 논문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 아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칠 것인가 늘 고민하며, 배우는 자세로 연구와 노력을 아낌없이 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잘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어 공부할 때는 뻔뻔해지자!

- 이혜진 교수

오래 전 한국인인 내가 어떻게 영어를 접하고 좋아하게 되고 공부했는지를 더듬어 생각해봅니다.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외부 세계를 습관적으로 바라보던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두리번 두리번'이었답니다.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나 작은 글씨도 자주 놓치지 않는 성격이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영어보다는 국어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화책, 위인전 등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지요. 책 속의 세계에 흠뻑 빠지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걸 깜빡 할 때가 많았지요. 그게 최초의 기본적 저의 영어 공부의 비결이 아니었나 합니다. 사실 언어는 통하기 마련이라서 많이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어 공부가 막상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영어의 4가지 영역 중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중에서 "쓰고 읽기"가 많이 강조되고 "듣기와 말하기"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어요. 뒤돌아보니, 읽기를 위해서는 기본 영문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수업을 통해 또 학원이나 과외 수업으로 영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렸던 만큼 백 퍼센트 문법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이 갖춰진 기반 위에 다른 공부들이 그만큼 쌓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해야만 문장의 구조가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처럼 여러분도 제일 먼저 영문법의 뼈대는 이해하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방법은요? 먼저 서점에 가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문법책을 하나 사기를 권해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 권의 책을 사서 공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그 책을 자세히, 여러 번 공부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공부라는 생각이 먼저 스트레스를 불러오니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이제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훌쩍 자라 그 때는 어렵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어려운 문법이 이제는 슬슬 이해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영문법의 기초 공부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본인의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여 적절한 수준의 영 단어, 표현 공부도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이 선행된 이후,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이해하거나 듣기 공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될 영어로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듣기 공부해요? 저의 경우에도 중, 고등학교 시절 외국을 많이 만나 볼 기회가 없었고 발음, 인토네이션 등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선생님들에게 말 그대로 “글로” 영어로 배운 셈이라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원어민이 발음하는 경우 제대로 매칭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정말 난코스였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단어도 다시 발음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작업은 지금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지요. 제대로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게 단어를 인지하고 그렇게 따라 읽는 훈련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자주 반복적으로 수준에 맞는 원어민 목소리로 된 듣기 자료를 귀로 들으며 연습해야겠지요. 듣고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발음을 최대한 흉내 내려고 노력하면서 따라 읽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예요. 요즘은 어디서나 영미권 네이티브도 만날 수 있는 여건이니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되네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말을 건네볼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지요.

말하기 향상을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은 영어 라디오를 많이 듣고 따라 하기였어요. 저도 아직 시도를 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나의 역할 모델, 배우든 가수이든, 한 명을 정해서 무식하게 따라 하는 법, 강추합니다.

쓰기 공부를 위해서는 영어문장의 패턴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좋아요. 꾸준히 써보면서 이 문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 원어민의 도움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법이 있어요. 검색 사이트 가운데 "구글"(google) 다 아시죠? 혹시 거의 검색 결과가 없다면 아쉽게도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외국인과의 무료 채팅 서비스가 제공되지요. 이런 걸 제대로 활용하면 말하기와 읽기 실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겠지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고 거의 모든 외국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지금부터 다시 제대로 소통이 가능한 영어를 공부하기를 시작해봅시다. 어렵고 지루하도록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을 성공하려면 먼저 "좋아하기"부터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영어가 무지무지 싫은 분들은 가식적으로라도 "I love English"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보세요. 너무 어려울 때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보면서요. 첫째로는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 둘째는 힘든 영어공부를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준다면 서서히 조금씩 여러분의 영어실력은 성장할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한국인이기에 네이티브가 될 수도 없으며 영어는 하나의 소통의 수단이지요. 외국어를 하나 더 최대한 국어에 근접하게 익혀보겠다 그런 생각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초보 영어 탈출기

- 이미향 교수

학기 초가 되면 어김없이 학생들은 저에게 와서 물어보지요.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기간에 영어 공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기적의 영어 공부법을 찾아서 이런 저런 영어교재를 사 모으고, 여러 학원 강좌를 신청하기도 하며,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지요. 그러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부쩍 부쩍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갈수록 초반의 의욕은 점점 사그라들고 이게 내 영어의 한계인가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 학창시절 나 또한 기적의 영어 학습법이 있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자로서 학생들의 답답한 심정을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나의 경험을 통해 그런 기적의 학습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공부를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외국어 공부의 성공 여부는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바로 그 불청객,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어느 누구도 항상 즐겁고 수월하게 저절로 영어를 익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영어 때문에 더 많이 좌절하고 고민하며 새까맣게 속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영어의 진정한 실력파가 된 경우가 더 많지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다 맞닥뜨린 여러 가지 난관들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캠퍼스 어딘가에서 한때 나처럼 영어 때문에 방황하고 좌충우돌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 나의 지난 영어 공부법을 간략히 들려주고자 합니다.

중,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아, 나는 영어공부를 제법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읽는 문자 중심의 공부와 시험 점수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는 것은

곧 내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대학 새내기 시절 첫 원어민 수업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원어민 선생님의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난 마치 교실 바닥에 주워야 할 동전이 있는 것처럼 시선을 들지 못했지요. 그때까지 듣고 말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소심한 나는 한 학기 내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어민 수업 시간에 멋지게 써 먹을 수 있는 표현들을 열심히 외워갔지만 정작 내 생각을 말해야 할 때는 머리 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때 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지, 이게 나의 영어실력의 한계인지를 탓하며 끝없이 슬럼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 여름방학부터 본격 난 전국 대학생 영어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거기서 주관하는 외국인과의 모임에 어색했지만 자주 참여해 영어 올링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시절 내가 한 영어 공부법으로서 영어 집중듣기와 따라 말하기 훈련을 하였던 것이 영어 청취력과 발음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듣기 매체가 다양하지 않았지만 동아리에서 마련한 여러 청취자료로 그룹 스터디를 통해 다소 혹독하게 연습을 하였어요. 이렇게 배운 표현은 각자 정리하고 외워와서 일 주일 후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역시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컸습니다. 그룹 스터디를 통해 늘 강조하였던 것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어로 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문장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 연습해서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영어 문장을 말함으로써 빠르게 실력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영어 읽기에 대한 나의 경험을 돌아보면 대학 새내기부터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타임지, 뉴스위크 등을 정기 구독하면서 읽기를 시도했지만 해석은커녕 돈만 낭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다면 이제는 내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글들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게 쉬운 동화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영문학과 문학서도 어려운데 겉멋만 잔뜩 들었던 듯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걸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므로 이런 침체기가 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차라리 잠시 돌아가세요. 이때는 좋아하는 영어 팝송을 들을 수도 있고, 재미있는 미국 시트콤에 빠져볼 수도 있으며, 외국인들과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SNS 를 주고 받을 수도 있지요. 이런 희망과 좌절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영어 실력이 서서히 쌓여갈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굳이 영어의 필요성을 말 할 필요도 없이 외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보다 풍요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나만의 영어 비법

- 권성진 교수

어른이나 아이 모두가 영어를 잘 해야만 하는 시대, 학생들에게 영문법, 영작문, 리스닝, 독해 등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외국어학습이라는 과목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재미있고, 동시에 어렵다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지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대학과정까지 줄곧 영어를 공부했지만 막상 영어를 실생활에 활용할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업과 대학, 대학원 진학, 유학을 위해, 혹은 사회인으로서 영어학습이라는 미명하게 영어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 문서를 읽어낼 수 있는 독해 능력과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활용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외국어 사용의 가치와 효용성, 더 나아가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외국어를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열의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방법이죠.

저는 영어나 영문학과 관련해 영어 선생을 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중학교 때부터 영어에 대한 흥미가 있었고 카세트 녹음기를 들고 다니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이나 백화점, 버스정류장, 주한미군 부대 등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다가가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다. 문법책만 읽다가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 영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나름대로 영어를 잘 한다고 생각했으나 하루에 몇 십 페이지의 영어 원문을 공부해야 할 때 몇 십 페이지는 고사하고 하루

에 한 두 페이지도 못하다가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깨닫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기도 하였답니다. 가장 난감한 것은 영어를 적절하게 말하거나 한국어를 현장에서 영어로 작문해야 할 상황에서 마음 먹은 대로 영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법은 문법 포인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품사 위주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좋은 문장은 체계적으로 머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암기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당시 영어의 대가라 불리는 분들이 내놓은 다양한 문법책을 정독하였고요. 문법을 문법으로만 이해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운 문법으로 작문을 할 수 있도록 시도했어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 다시 말해 말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외국어 학습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문법과 작문을 통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내용을 글로 쓰고 말로 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영어를 배우고자 했지만 만들기 어려운 문장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작문도 취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문장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죠. 문장구조를 잘 이해하려면 문장의 다양한 필수 요소와 수식 요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입니다. 문장구조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 영어의 5문형을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하였구요. 예나 지금이나 영어의 5문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영어문장의 이해와 더불어 리스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영어 선생님께서 문장구조 분석과 5문형의 중요성에 대한 문장구성법의 기초를 철저하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어 문장구조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

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문장구조를 이해하고 난 후에는 이와 관련이 있는 동사/준동사 개념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능동/수동태 그리고 시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독해의 경우 다양한 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법부터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영어와 관련된 독해를 잘 하는 방법은 다양한 글을 많이 읽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9세기, 20세기 영미소설 읽기를 비롯해 가급적 많은 글을 읽었어요. 독해는 학습량이나 다양한 독서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훑어오면서 번역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순서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첫째, 무조건 암기하는 방법과 어원 분석을 통한 암기방법을 병행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단어학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접두어, 접미어, 공통 어근 등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를 활용하기령 money의 경우 mo+ne+y로 구성된 이 단어에서 mo는 most, more의 이니셜이고, ne는 need의 이니셜이며 y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명사어미입니다. 따라서 money는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화폐',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이라는 의미를 유출할 수 있어요(영어학습에 있어 영어 단어 암기는 10년 이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학습의 기본은 단어암기라고 확신합니다).

군 전역 후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나 영어실력은 좀처럼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유학에 필요한 문법과 어휘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지만 영어성

적과 실력은 쉽사리 향상되지 않았답니다. 토익시험을 응시했는데 예상 밖에 점수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리스닝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방학에 다시 영어에 몰입하였다. 방학기간에 하루 12시간 영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작문을 제외하고 문법 4시간, 어휘 4시간, 리스닝 4시간 이렇게 공부하기로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결심은 쉬웠으나 실행은 어려웠습니다. 2주 정도 실행하다 잠시 중단하기도 했구요. 리스닝의 경우 4시간 연속 듣기를 했을 때 두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영역을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듯이, 영어는 주 4회 이상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학 전문가들은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라고 합니다. 단어학습은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하며 문법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단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법을 몰라도 단어를 알면 의사소통도 가능하죠.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땐 과감하게 외국인들 만나서 주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이후 일상의 습관이 되도록 듣기와 영작실력 향상에 도전해야 합니다. 외국어 학습은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듣기, 단어암기, 문법, 독해를 철저히 공부하고 복습하면 작문실력까지 숙달할 수 있습니다. 반복학습 없는 영어학습은 결국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꾸준히 반복학습을 하면 눈부실 정도로 영어실력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어! 꾸준함이 답이다

- 제선미 교수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라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옵니다. 영어 실력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어학 연수는 도움이 될까요?' '외국에 유학 가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위해 '학원은 다녀야 하는지 여부'와 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의 영어 학습의 발자취를 돌아 보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 습득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이에 반해 예술적으로 또는 수리적으로 발달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언어 습득, 이해 그리고 단어 및 표현 암기에 있어서 더딘 속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한국어 이외에 영어, 불어, 일본어를 공부해본 경험을 통해 저 스스로 깨달은 것은 '나는 언어적 감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사람이구나' 입니다. 하지만 제가 '난 언어적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자책하면서 그냥 포기 해 버렸다면, 현재 이 글을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럼 지금부터 언어적 감각이 없는 저의 영어 학습 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영어실력 향상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에 감각이 있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팝송 또는 미드에 관심이 많아서 이를 듣고 보고 즐기다가 영어 발음, 듣기, 회화까지 실력을 향상 시키는 학생들도 있고, 매우 사교성이 좋아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또는

SNS를 하면서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저는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타인 의존 학습형 학생, 즉 다시 말해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 실력 또한 향상 시킬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 같은 학습형 학생이 영어 시험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회화를 잘하고 싶다면, 스스로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으며, 학원 또는 교육방송, 더 나아가 어학연수의 도움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이 많이 하는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학생들의 질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합니까?' 에 대한 답변에 저는 yes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특히 영어를 공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는 필요에 의해 영어를 공부는 해야 하지만, 혼자 스스로 공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학생들에게 각자의 목적에 맞는 영역의 수업을 택하여, 그 분야의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면 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만약 공인시험점수가 필요하면 시험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면 되고, 만약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 이 영역 수업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원 몇 달 다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급작스럽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은 금물입니다. 학원을 다니며 어느 정도 기초를 쌓고 흥미가 생기면, 이를 바탕으로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 의도적으로라도 교육방송 또는 미국드라마 등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 등을 듣고, 따라 하고, 익히는 노력도 하고, 여력이 된다면 외국 여행이나 해외 인턴 같은 경험을 통해 회화 실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인 시험 성적이 필요하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단어도 외우고, 학원에서 배운 것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시험 문제 유형도 최대한 많이 풀어봄으로 실력이 향상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은 어학연수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냥 어학연수를 무작정 떠나는 것은 전 반대입니다. 영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떠나면, 그쪽 연수기관에서 학생들은 낮은 단계 수준의 반에 배정을 받고, 기본적인 영어, 즉 쉬운 영어만 배우다가, 특히 영어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인하여 한국인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그쪽 생활을 통해 듣기 실력은 약간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수에 들인 돈에 비례하여 큰 수확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어학 연수를 시작할 경우 그쪽 기관에서 높은 단계의 반으로 배정 받으면서,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는 방법 또는 비즈니스 관련 영어도 배우고, 더 나아가 다른 국가의 학생들과 만날 기회도 더 많으므로, 책의 영어가 아닌 실지적인 영어를 직접 구사하면서 체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입니다. '난 어학연수를 했으니, 이제 영어는 어느 정도 됐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의 늪에 빠져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드등을 보면서 듣기 연습을 하고, 또는 회화 동아리나 영어 프리젠테이션 모임등에서 계속 영어를 말할 기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TOEIC, TOEFL)이 필요할 경우 어학 연수를 통해 분명 듣기는 향상되어있겠지만, 문법, 독해 영역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큰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수에서 돌아온 직후 문법, 독해 영역을 집중 공부하여 단시간 내에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험(TOEIC Speaking 이나 OPIC) 도 연수를 다녀온 직후 말하기의 감을 잃기 전에 시험 유형과 그 유형에 해당되는 답의 유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대학 1학년생이라면, 대학교에는 교환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영어실

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학점이 좋을 경우, 외국학교에서 1년간 또는 6개월 간 공부를 하고, 학점은 여러분이 다니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학연수와는 다른 개념으로 그쪽 학교에서 영어 수업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 정규 수업을 수강을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쪽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학과수업을 따라가기엔 상당히 힘겹기도 하지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옆 친구들과 토의도 하고, 과제를 하다 보면, 6개월 또는 1년 후 여러분의 영어 실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은 일취월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 1학년때부터 꾸준히 영어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하며,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공고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교환 학생을 다녀온 학생들은 영어구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학에 필요한 영어 시험에도 높은 점수를 보여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유학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영어 실력을 요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위치한 학교는 TOEFL (듣기·문법·독해·쓰기(논술)·말하기(구술))이라는 시험을, 영국이나 호주는 IELTS(영어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시험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를 먼저 선정하시고, 그 다음엔 그 학교의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점수를 확인하신 후, 공부에 매진 하셔야 합니다. 이 시험을 위해선 원래 영어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아닌 경우, 학원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하셔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영어 공부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기로에 서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ART 2

e-bravo

Grammar

Guide

I. 형용사

1. 개념

형용사란 무엇일까 궁금했죠? 형용사는 명사에 날개를 달아 준다고 보면 돼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명사라고 한다면 형용사는 명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에서 만난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형용사를 사용하여 '멋진 사람', 혹은 '그 사람 재미있어'라고 하면 훨씬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설명 할 수 있겠죠? 명사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란 말을 들어 보셨죠? 여기서 '형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묘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형용'이라는 말을 이해했다면 형용사가 무엇인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형용사는 명사나 동사처럼 하나의 품사면서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 또는 존재를 나타내고 명사의 형태와 용모를 말해주는 품사입니다. 형용사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 볼까요?

2. 형태

형용사에는 기본적인 형용사 tall, pretty, big 뿐만 아니라 단어의 어미를 보고 형용사임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래 표를 살펴볼까요?

| 형용사를 만드는 어미 | 형용사 | |
|--------------|-----------------|-------------------|
| ~ble (~ible) | comfortable 편안한 | reliable 믿을만한 |
| ~ful | beautiful 아름다운 | careful 조심스러운 |
| ~ic / ~al | terrific 훌륭한 | dramatic 극적인 |
| ~al | actual 실제의 | traditional 전통적인 |
| ~ive | attractive 매력적인 | impressive 인상적인 |
| ~ous | dangerous 위험한 | various 다양한 |
| ~less | careless 부주의한 | meaningless 의미 없는 |

위의 표에서 정리된 대표적인 형용사의 어미를 숙지하면 형용사를 빨리 알아볼 수 있어요.

3. 용법

형용사에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과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적 용법이 있어요.

1) 한정적 용법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a red pen'에서 형용사 red는 pen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시켜 줍니다. **한정한다**는 말은 범위를 '제한한다, 꾸며준다, 수식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명사를 한정한다(꾸며준다, 수식한다)란 말은 그 명사의 범위를 좁혀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girl이란 명사를 보면 세상의 수많은 girls들이 있기 때문에 girl에 대해 얘기하면 범위가 넓어 구체성이 없어서 형용사로 범위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tall, beautiful, blonde, kind 등의 다양한 형용사로 <명사 girl>을 꾸며 주는데 보통 이런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요.

- She is a beautiful girl.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야.)
- He is a tall boy. (그는 키가 큰 소년이야.)
- They are smart students. (그들은 똑똑한 학생들이야.)

그리고 형용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불가능하지만 <형용사1+형용사2+명사> 형태는 가능합니다. 앞의 <형용사1>이 <형용사2+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이죠.

- It is a big pretty house. (그건 크고 예쁜 집이야.)

2) 서술적 용법

서술적 용법은 제한적 용법과 접근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통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는 관련 명사(주어, 목적어)의 뒤쪽에 위치합니다. 즉, 이미 구체성을 확보한 명사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She is beautiful.'(그녀는 아름답다.)에서 She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beautiful은 주격보어). 2형식 동사(be, become, remain, seem) 뒤 주격보어나 5형식 동사(keep, find, consider, leave, make, call) 뒤 목적격 보어의 위치에 들어가서 **보어 역할을 하는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 He became famous. (그는 유명해졌다.) [주격보어]
- I made him comfortable. (나는 그를 편안하게 했다.) [목적격 보어]
- We thought him careful. (우리는 그를 세심하다고 생각했다.) [목적격 보어]

이때 형용사 famous는 주어 he, comfortable과 careful은 목적어 him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며 보어 역할을 합니다.

3)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만으로 쓰이는 형용사

먼저 **한정적 용법**에만 사용되는 형용사를 살펴보면 강한 한정, 극단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형용사 [total (전부의)/ utter (완전한)/ extreme (극도의)/ some

(약간의)/ main (주요한)]등이 있으며, 비교급 형용사 [elder (손위의)/ inner (안의)/ upper (상위의)]와 지정 형용사 [the only (유일한)/ the same (같은)/ the following (다음의)/ the very (바로 그)]와 golden (황금의)/ wooden (목재의)/ drunken (술 취한)/ mere (단순한)/ living(살아있는)/ former (앞의)/ major (주된)/ lone (고독한)/ spare (여분의) 등이 있어요. 이러한 단어로 표현들을 정리해 봅시다.

| | |
|-----------------------|----------------------------|
| a golden saying 금언 | the outer world 외부세계 |
| a drunken man 술 취한 남자 | a wooden box 나무 상자 |
| an inner pocket 안 주머니 | the only child 외동 |
| the upper lip 윗 입술 | at the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 |

- It is difficult to get a job at the very moment.

(지금 당장에는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이번에는 **서술적 용법**에만 사용되는 형용사를 알아보시다. 먼저 a~로 시작되는 형용사인데요.

| | |
|--------------|--------------|
| afraid 두려운 | ashamed 부끄러운 |
| alive 살아 있는 | asleep 잠든 |
| alike 같은, 닮은 | alone 혼자인 |
| aware 알고 있는 | awake 잠이 깬 |

- The fish is still **alive**. (물고기는 여전히 **살아있어**.)
- The father and the son are very much **alike**. (아버지와 아들은 많이 **닮았어**.)

※ 명사 앞에서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으로는 쓰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①**한정적 용법**과 ②**서술적 용법**에 모두 사용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를 알아 보도록 해요.

present

- ① The **present** CEO is attending the meeting. (현재 CEO는 회의에 참석 중이다.)
- ② All students were **present**. (모든 학생들은 출석했다.)

certain

- ① A **certain** school has a strict policy. (어떤 학교는 엄격한 정책이 있다.)
- ② It is **certain** that she is pretty. (그녀가 예쁘다는 것은 확실해.)

late

- ① The **late** Mr. President did a lot of work. (작고한 대통령은 많은 일을 했다.)
- ② He was **late** for school. (그는 학교에 지각했다.)

ill

- ① **Ill** news spreads fast. (나쁜 소식은 빨리 퍼진다.)
- ② He has been **ill** for a week. (그는 일주일 동안 아프다.)

4. 기타 어법

1) <of+명사=형용사>적 표현이 되지요.

- She is beautiful. = She is **of beauty**. (그녀는 아름답다.)

2) <the+형용사=복수 보통명사>가 됩니다.

-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부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3) 감각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들

| | | |
|---------------|-----------------|----------------|
| look ~해 보인다 | smell ~한 냄새가 난다 | taste ~한 맛이 난다 |
| sound ~하게 들린다 | feel ~한 느낌이 난다 | |

위의 감각 동사 뒤에 부사는 절대 쓸 수 없고, 형용사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like라는 전치사와 함께라면 명사도 쓸 수 있답니다. 감각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① <감각 동사+형용사>

이때 형용사는 보어로서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 됩니다. 'He looks happily.'(그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해석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happily가 부사이므로 보충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고, 'He looks happy.' 라고 써야 하지요. 'He looks lovely.'(그는 사랑스러워 보인다.)에서 lovely는 생긴 모양이 ~ly로 끝나서 부사처럼 보이지만 lovely는 <명사+ly> 형용사이니까 맞는 문장이 됩니다.

- It smells **good**. (좋은 냄새가 난다.)
- He looks **young**. (그는 젊어 보인다.)
- A good medicine tastes **bitter**. (몸에 좋은 약은 쓰다.)

② <감각동사+like+명사>

예문을 들어보면, 'He looks like a **gentleman**.'(그는 신사처럼 보인다.)에서 like는 전치사로서 '~처럼'이란 뜻이고, 뒤에 'a gentleman'이라는 명사와 함께 감각동사 뒤에 쓰일 수 있어요.

5. 순서

대부분의 단독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만 여러 개의 형용사가 나열될 경우에는 명사처럼 and를 사용하지 않고 나열되는 순서가 있어요. 형용사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 1) <관사+형용사+명사>: a cute baby
- 2) <명사의 소유격+형용사+명사>: Stella's new house
- 3) <대명사의 소유격+형용사+명사>: my favorite cake
- 4) <지시 형용사+서수+기수+형용사+명사>: these first two big red pens

※ 관사, 소유격, 지시 형용사는 동시에 올 수 없어요. 따라서 **이중 소유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a my friend(X) → a friend of mine (O)
- Her those books are old. (X) → Those books of hers are old. (O)

또한 여러 형용사를 함께 나열할 경우 관사나 소유격, 지시 형용사가 앞자리에 위치, 그 뒤를 이어 수량→ 크기(크고 작음, 길고 짧음)→ 성질→ 신구(new, old)→ 재료 등의 순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영어권에서 이러한 순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순서 외우기가 힘들다면 'the nice new green wooden table'을 외워 둡시다.

※ 여러 가지 형용사의 나열 순서로 지수대성신재 (지시, 수량, 대소, 성질, 신구, 재료)로 암기해 두면 편리합니다.

- three big blue bird (세 마리의 크고 파란 새)
- a great big hairy white cockroach 대단히 (크고 털이 있는 흰색 바퀴벌레)

6. 후치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형용사도 있습니다.

- 1) -one, -thing, -body 같은 명사 뒤

- We need something **special**.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해.)
- There is nothing **new**. (새로운 건 없어.)
- Is anyone **strong** to carry this bottle? (물병을 들 수 있는 힘센 사람 있어?)

2)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올 때

- There is still a plant **alive** in the desert. [= a plant (which is) alive]
(사막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식물이 있다.)
- The members **absent** today can't join the project. [= members (who are) absent]
(오늘 결석한 회원들은 그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없다.)

3) 형용사구 혹은 형용사절인 경우: 형용사가 다른 요소를 동반하여 길어질 때

- She bought a house **full of trees**. (그녀는 나무로 가득 찬 집을 샀다.)
- There was no money **left in his pocket**. (그의 주머니에는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

4) 형용사가 다른 어구를 동반하여 형용사구가 되는 경우

- This is a book **useful for students**. (이것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 The apartments **available in Seoul** are very expensive.

(서울에 입주 할만한 아파트는 아주 비싸.)

5) 명사 앞에 위치한 every, all 등을 한정하는 형용사인 경우

- I tried **every** means **available**. (나는 유용한 모든 수단을 시도했다.)
- She used **all** means **imaginable**. (그녀는 상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6) 최상급이 수식하는 명사를 다시 수식하는 경우

- This is **the best** method **practicable**. (이것은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다)
- She is **the best** actress **alive**.

(그녀는 살아 있는 배우 중 가장 훌륭한 여배우이다.)

7) 관용적 표현: 아래 표현은 관용적 표현이므로 잘 익혀 둡니다.

| | |
|--------------------------------|----------------------|
| brand new 새 것 | a court martial 군법회의 |
| the authorities concerned 관계당국 | things Korean 한국 품물 |
| a poet laureate 계관시인 | China proper 중국 본토 |
| Asia Minor 소 아시아 | God almighty 전능의 신 |
| the blood royal 왕족 | the sum total 합계 |
| from time immemorial 태고 적부터 | |

• It's a **brand new** computer. (이건 최신 컴퓨터야.)

위의 예문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new brand'가 아닌 'brand new'로 후치 수식의 관용표현을 보여 주고 있어요.

8) 그 외의 경우

① 형용사가 겹쳐서 명사를 꾸며줄 때

• She has many dolls **lovely, pretty and cute**.

(그녀는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운 많은 인형을 갖고 있다.)

② 분사형용사(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수식어를 수반할 때

• I found my car **towed by the police**.

(나는 경찰이 내 차를 견인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 Can you see the boy **doing magic tricks on the stage**?

(무대에서 마술을 하는 소년을 너는 볼 수 있니?)

③ 분사구문으로 being이 생략되고 형용사만 오는 경우

• The plan has been revised **effective** immediately.

(그 계획은 수정되었고, 즉각 효력이 있었다.)

위 예문의 원래의 문장은 'The plan has been revised and it was effective immediately.'입니다. 이처럼 접속사 뒤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취할 경우 **and it was**가 **being**으로 바뀔 수 있고 **being**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언어의 특성상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그냥 영어 표현들을 자주 접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7. 고유 형용사의 사용

나라 이름은 주로 명사로 사용되며 국명을 나타낼 때는 <무관사+나라 이름>, 개인 한 사람을 나타낼 경우는 <a(an)+고유 형용사>, 개인 복수를 나타낼 경우에는 <고유 형용사의 복수형>을,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는 <the+고유 형용사>를 씁니다. 즉, 대한민국은 Korea로 쓰고 파생된 고유 형용사 Korean은 (한국의, 한국어의, 한국인), 한국인 한 사람은 **a Korean**, 한국인 2명 이상일 때는 **Koreans**, 한국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는 **the Koreans**로 사용합니다. 어미가 ~sh, ~ch, ~ese 끝나는 고유 형용사가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는 복수형 어미 -s를 붙이지 않고 The Chinese (중국 국민), The French (프랑스 국민)로 씁니다. 또 고유 형용사는 자체로서 그 국가의 언어를 나타내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단, 뒤에 language가 오면 반드시 정관사가 있어야 합니다.

- Korean =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
- French = **the** French language (프랑스어)

<나라 이름에서 온 고유 형용사>

| 나라이름 | 고유형용사 | 국민 | |
|---------|----------|---------------|---------------|
| | 언어, 국적 | 전체 | 개인 |
| Korea | Korean | the Koreans | a Korean |
| America | American | the Americans | an American |
| China | Chinese | the Chinese | a Chinese |
| Japan | Japanese | the Japanese | a Japanese |
| England | English | the English | an Englishman |
| Germany | German | the Germans | a German |
| France | French | the French | a Frenchman |
| Greece | Greek | the Greek | a Greek |
| Holland | Dutch | the Dutch | a Dutchman |

위의 표에서 나라 이름에서 온 고유 형용사를 살펴 보았어요. 잘 활용하여 언어나 국적을 나타낼 때 편리하게 사용해 보아요.

8. 혼동 하기 쉬운 형용사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형용사들 입니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죠. 정확한 뜻과 쓰임을 알고 있어야 혼동하지 않아요. 특히 어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아래 나온 형용사들은 반드시 구별해서 외워 두도록 합니다.

| | |
|-----------------------|------------------------|
| considerable 상당한 | considerate 사려 깊은 |
| beneficial 유익한 | beneficent 선행을 행하는 |
| economic 경제의 | economical 경제적인 |
| confidential 기밀의, 비밀의 | confident 자신감 있는 |
| desirous 바라는, 원하는 | desirable 바람직한 |
| successful 성공적인 | successive 연속하는 |
| reliant 의존하는 | reliable 믿을 수 있는 |
| healthy 건강한, 건전한 | healthful 건강에 좋은 |
| respectful 경의를 표하는 | respective 각각의 |
| favorable 호의적인 |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
| managerial 경영의 | manageable 관리할 수 있는 |
| informative 유익한 | informed 알고 있는 |
| impressive 인상적인 | impressed 감명 받은 |
| probable 유망한 | probabilistic 가능성에 근거한 |
| prospective 미래의 | prosperous 번영하는 |
| responsible 책임 있는 | responsive 반응하는 |
| successful 성공적인 | successive 연속의 |
| understanding 이해심 있는 | understandable 이해 할 만한 |
| childlike 순진한, 순수한 | childish 유치한 |
| sensible 분별 있는 | sensitive 민감한 |
|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

다음 예문을 통해 차이를 확인해 봅니다.

confidential (기밀의) vs confident (자신감 있는)

- All personnel information sheet is **confidential**. (모든 인사정보는 기밀이다.)
- The marketing manager was very **confident**.

(마케팅 매니저는 매우 **자신감이** 넘쳤다.)

considerable (상당한) vs considerate (사려 깊은)

- They will receive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그들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을 것이다.)
- It's **considerate** of you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당신 **배려심이** 있군요.)

various (다양한) vs variable (온도, 체온이 변하는)

- There are **various** kinds of people in the U.S.A.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 The body temperature is **variable**. (체온은 **가변적**이다.)

childlike (순진한, 순수한) vs childish (유치한)

- Don't be so **childish**.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굴지마.)
- He is **childlike**.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다.)

favorable (호의적인) vs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 It's my **favorite** music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야.)
- They showed a **favorable** reaction to his opinion.

(그들은 그의 의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beneficial (유익한) vs beneficent (선행을 행하는)

- His work experience is **beneficial** to others.

(그의 업무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 He is a real **beneficent** contributor. (그는 진정한 **자애로운** 기부자이다.)

healthy (건강한, 건전한) vs healthful (건강에 좋은)

- He's fairly **healthy**. (그는 꽤 **건강하다**.)
- The **healthful** herbs smell fresh. (**건강에 좋은** 약초는 냄새도 신선하다.)

conscious (의식하는) vs conscientious (양심적인)

- She is **conscious** that she is getting old. (그녀는 점점 나이가 들을 **의식한다**.)
- They made a **conscientious** decision. (그들은 **양심적인** 결정을 했다.)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vs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 He is an **imaginative** painter. (그는 **상상력이 풍부한** 화가이다.)
- It was the best movie **imaginable**. (그것은 **상상 할 수 있는** 최고의 영화야.)

9. 꼭 외워야 할 형용사 표현

다음의 표현은 매우 유용하며 형용사뿐만 아니라 뒤 따라오는 형태 전치사 및 to 부정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 | |
|------------------------------|----------------------------|
| be afraid of ~을 두려워하다 | be aware of ~을 인식하고 있다 |
| be eligible for/to ~할 자격이 있다 | be able to ~할 수 있다 |
| be capable of ~할 수 있다 | be likely to ~할 것 같다 |
| be responsible for ~책임지다 | be ready to ~할 준비가 되다 |
| be about to ~할 참이다 | be used to ~에 익숙하다 |
|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하다 | be compatible with ~와 호환되다 |

위의 표현을 활용한 예문을 살펴 볼까요?

- It is **likely to** rain. (비가 올 것 같다.)
- He **was ready to** do it. (그는 그것을 할 준비가 되었어.)

- Every employee should be aware of safety regulations.

(모든 직원은 안전 규칙을 알아야만 한다.)

- We are about to leave for the trip. (우린 여행을 위해 막 떠나려던 참이야.)
- I am responsible for the customer complaints. (나는 고객 불만사항을 책임진다.)
- She is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그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10. ~ly 형용사

일반적으로 단어 뒤에 ~ly가 있으면 부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ly 형용사도 있습니다. ~ly 형용사와 ~ly 부사의 구별법은 <명사+ly=형용사>, <형용사+ly=부사>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명사+ly=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lovely (사랑스러운)/friendly (친절한)/ timely (적시의)/ costly (비용이 드는)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friendly smile (친절한 미소)/ timely decision (시기 적절한 결정)/ lonely people (외로운 사람들) 등의 표현이 있어요.

※ <형용사+ly=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에는 happily (행복하게)/ sadly (슬프게)/ quickly (빨리)/ clearly (또렷하게)/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easily (쉽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에 ~ly를 붙여 부사를 만든답니다. 보통 ~ly로 끝나는 단어를 부사라고 하는 이유는 형용사에 ~ly를 붙여 부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1. 수량 형용사

적다, 많다, 작다, 크다 등 사물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량 형용사라고 합니다.

- 1) 셀 수 있는 명사의 수를 셀 때

many (많은)/ a few (약간 있는)/ few (거의 없는)/ plenty of (많은)/ a lot of (많은)/ a number of (많은)과 같은 어구를 명사 앞에 사용합니다.

- I have **few** books to read. (나는 읽을 책이 거의 없다.)
- Only **a few** students could understand the meaning.

(몇 명의 학생만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2) 셀 수 없는 명사의 수를 셀 때

much (많은)/ a great deal of (많은)/ a little (조금 있는)/ little(거의 없는)을 주로 명사 앞에 사용해요.

- We had **little** rain last night. (지난 밤 비가 거의 오지 않았어.)
- I put **a little** sugar in the coffee. (커피에 설탕을 조금 넣었어.)

3) 수와 양 모두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a lot of (많은)/ lots of (많은)/ plenty of (많은)등을 사용합니다.

- Trees need **lots of** water to grow well. (식물이 잘 자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다.)

12. 형용사의 비교급

비교급은 둘 사이 비교를 할 때 사용하며 비교급에는 등위 비교급과 우위/열위 비교급이 있어요.

1) 등위 비교급

등위 비교급은 대등한 두 사람이나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하며 양쪽이 대등함을 나타냅니다.

① 형태: <as+원급+as>

- She is **as beautiful as** her sister. (그녀는 언니만큼 예쁘다.)

② 부정형: <not as/so+원급+as>

• It is **not as expensive as** that one. (그것은 저것만큼 비싸지 않다.)

③ 배수 표현: twice (2배)/ three times (3배) 등을 등위 비교급 앞에 사용합니다.

즉 'as twice strong as'가 아니라 **twice as strong as**로 사용해야 합니다.

• This is **twice as strong as** that. (이것은 저것보다 2배 더 강하다.)

• This table is **three times as long as** that one. (이 테이블은 저것보다 3배 길다.)

④ 등위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just=exactly (정확히)/ nearly=almost (거의)

• He is **just** as tall as his father. (그는 정확히 아버지만큼 키가 크다.)

• It's **almost** as hot as yesterday. (거의 어제만큼 덥다.)

2) 우위/열위 비교급

우위/열위 비교급 뒤에는 than이 있어야 하며 두 사람, 사물, 집단 등을 비교합니다.

① 1음절 단어는 원급 끝에 ~er을 붙입니다.

- tall-taller 큰/ 더 큰, strong-stronger 강한/ 더 강한

• He is taller **than** me. (그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② 2음절 이상 단어의 우등비교를 나타낼 때는 원급 앞에 more을 열등비교를 표현할 때는 원급 앞에 less를 붙여주면 되어요.

- beautiful (아름다운) – more/less beautiful (더/덜 아름다운)

- expensive (비싼) – more/less expensive (더/덜 비싼)

• She is **more beautiful** than her sister. (그녀는 언니보다 더 예쁘다.)

• It is **less expensive** than that one. (그것은 저것보다 덜 비싸다.)

③ 불규칙 형: 형용사 비교급의 불규칙 형을 알아보아요.

<형용사의 비교급 - 불규칙 형>

| 원급 | 비교급 |
|--------------|-------------------------------|
| good 좋은 | better 더 좋은 |
| well 잘 | better 더 잘 |
| bad 나쁜 | worse 더 나쁜 |
| old 나이 든 | elder 손위의 |
| little 적은 | less 더 적은 |
| many/much 많은 | more 더 많은 |
| far 먼 | farther 더 먼 (거리) |
| far 멀리 | further 더 멀리/추가적인 (정도) |

위의 도표는 불규칙 변화이므로 반드시 외워 두도록 합시다.

④ than 대신 to 를 쓰는 경우: 라틴어 비교급 형용사 (superior(우수한)/ inferior(열등한)/ senior(상위의)/ junior(하급의)의 경우는 **to** 를 사용합니다.

• This is superior **than** that. (X) → This is superior **to** that. (O)

(이것이 저것보다 더 낫다.)

⑤ 비교급 뒤의 명사를 생략하는 경우

• Susy is the **taller** of the two girls. (두 소녀 중에 수지가 더 크다.)

비교급 뒤에 올 명사가 이미 앞에 언급되었거나 뒤에 언급 될 경우 비교급 뒤에 그 명사를 언급하는 것은 틀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비교급의 반복: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급 형용사를 반복할 수 있어요.

• He is getting **taller and taller**. (그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다.)

그가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지는 상황을 비교급 taller를 반복해서 표현하지요.

⑦ <the+비교급~> + <the+비교급~>

두 변화가 비례함을 나타낼 때 이 구문을 사용하며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앞 쪽의 관사(the)는 특별한 뜻은 없지만 뒤 쪽 **the**는 **그 만큼** 이라는 부사입니다.

- The sooner the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 The more the better.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 The better I know him, the more I admire him.

(나는 그를 더 잘 알게 될수록 더욱 더 존경하게 된다.)

⑧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우위/열위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far/ still/ a lot/ much/ even**을 쓰며 <훨씬 더>로 해석합니다.

- This is **much** bigger than expected.

(이것은 기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 It is **even** worse than the other one. (이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중에 much는 복수(chances)앞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much 대신 many를 쓰는데요, 원래 복수 앞에 much를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many는 '많은'이 아니라 **훨씬**이라고 해석합니다.

- There are **many** more chances in the U.S.A.

(미국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어.)

⑨ than 뒤의 명사절 접속사 what을 생략 할 수 있다.

- The development is proceeding more slowly than I expected.

(발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 중이다.)

예문에서 than 뒤의 'I expected'은 'what I expected'를 줄인 것이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라고 해석합니다.

⑩ 명사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more of a+명사>로 씁니다.

• It was **more of a party** than a seminar. (그것은 세미나보다 파티에 가까웠다.)

예문은 'a party'와 'a seminar'를 비교하는데 결국<more of a party>는 파티에 더 가까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⑪ 한 인물에 대한 두 가지 평가를 비교할 때는 항상 <more+원급>을 씁니다.

• She is **more cute** than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기 보다는 귀여운 쪽에 더 가깝다.)

13.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급이 둘 사이 비교를 할 때 사용한다면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 할 때 사용합니다.

1) 형태

① 규칙

최상급을 만들 때는 비교급을 만들 때 적용하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1음절 단어는 뒤에 <~est>를 붙이고, 2음절 이상 단어 앞에는 <most/least>를 붙입니다.

• the **fastest** runner (가장 빠른 선수)

• **the most** beautiful girl (가장 아름다운 소녀)

단, ~y로 끝나는 2음절 단어는 ~y를 빼고 ~**iest**를 붙여 최상급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happy의 최상급은 'the happiest'입니다.

- the happiest girl (가장 행복한 소녀)
- the easiest problem (가장 쉬운 문제)

② 불규칙 형태: 비교급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아래의 단어들은 불규칙 형태이므로 암기하면 좋겠죠.

<형용사의 최상급>

| 원급 | 비교급 | 최상급 |
|--------------|-------------------|-------------------------------|
| good 좋은 | better 더 좋은 | best 가장 좋은 |
| well 잘 | better 더 잘 | best 가장 잘 |
| bad 나쁜 | worse 더 나쁜 | worst 가장 나쁜 |
| many/much 많은 | more 더 많은 | most 가장 나쁜 |
| old 나이 든 | elder 손위의 | eldest 가장 손위의 |
| little 적은 | less 더 적은 | least 가장 적게 |
| far 먼 | farther 더 먼 | farthest 가장 먼(거리) |
| far멀리 | further 더 멀리/추가적인 | furthest 심오한/가장 멀리(정도) |

2) 최상급 환경

① <in+단수명사> / <of+복수명사>

- She is the tallest girl **in my school**.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크다.)
- She is the tallest **of the three girls**. (그녀는 세 명의 소녀 중에서 가장 크다.)

② to 부정사: 최상급 뒤에서 동사를 가지고 최상급 환경을 만들 때 to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이때 최상급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 She is the youngest girl **to join the program**.
(그녀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장 어린 소녀이다.)

③ 관계절: 최상급 뒤에서 문장을 가지고 최상급 환경을 만들 때는 관계절을 사용합니다.

- This is the best experience that I have ever had.

(이것은 내가 겪어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경험이다.)

예문에서 'that I have ever had'는 선행사 'the best experience'를 꾸며주고 최상급 뒤의 관계절에는 보통 ever가 쓰입니다.

④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by far (단연코/압도적으로)입니다.

- This item is by far the best in my country.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최고다.)

<한 눈에 보는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 형용사 | 형태 | 원급 | 비교급 | 최상급 |
|---------------------|--------------------|-----------------|---------------------|-----------------------|
| 단 음절어 | 원급 +er/est | tall/short | taller/shorter | tallest/shortest |
| 자음+모음+자음 으로 된 단어 | 뒷 자음을 한번 더 씀 | big/ thin | bigger /thinner | biggest/ thinnest |
| ~y로끝나는 2음절어 | ~y → ~ier/~iest | lucky/ happy | luckier /happier | luckiest/ happiest |
| 2음절 이상 | more/most +원급 | expensive | more expensive | most expensive |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불규칙 변화를 꼭 암기해서 유용하게 쓰시다.

II. 능동태와 수동태

1. 개념

우선 능동태와 수동태의 기본적인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가 보통 능동적으로 살자고 하잖아요. 수동적으로 남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만 말고 말이에요. 능동적이란 건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인 반면, 수동적이란 건 남의 의견에 따르거나 남한테 어떤 일을 당한다는 뜻이죠. 능동태와 수동태도 같은 원리입니다. 능동태는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수동태는 주어가 어떻게 되다, 또는 어떤 일을 당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남자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이웃집 창문을 깨뜨렸다고 합시다. 이 때 아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소년이 유리창을 깨다.' 유리창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리창이 소년에 의해 깨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장면을 보고 우리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수동태의 기본 형태를 알아야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영어에서 수동태의 형태는 be 동사에 과거분사(p.p.)를 붙인 거예요. 주어의 수와 시제에 따라 be 동사의 형태를 바꿔 줍니다. 'He breaks the window.'(그가 유리창을 깬다.) 문장을 수동태로 한다면, 목적어인 'the window'가 주어로 가고, 동사 부분을 보자면 breaks가 <be 동사 + 과거분사(p.p.)>가 되어야 하는데, be 동사로 is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능동태 문장에서 breaks가 현재 시제이고, 수동태 문장의 주어인 'the window'가 3인칭 단수니까요. 그리고 동사 break의 과거분사가 broken이므로 'is broken'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능동태에 있던 주어 he는 이제 문장의 맨 끝으로 옮겨가서 'by

him,' 즉 <by+목적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The window is broken by him.'이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 수동태는 행위를 당한 대상이 행위를 가한 주체보다 더 중요할 때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작의 주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동작의 주체를 별로 밝히고 싶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뻘하거나 모호하거나 할 때 주로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by+목적격> 부분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니면 by 외에 다른 전치사가 문장의 내용에 필요한 대로 쓰이기도 해요. <by+목적격>, 즉 원래 행위를 한 동작의 주체 부분, 즉 능동태의 주어 부분은 자주 생략됩니다. 특히 구어체에서는 이 부분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시 할게요. 어감 상으로 볼 때, 주어에 초점을 맞춘 능동태 문장은 비격식체(informal)인 반면, 행위나 대상이 강조되는 수동태는 격식체(formal)인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앉다'라는 뜻의 sit을 활용한 능동태 'Sit down.'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명령조로 할 수 있는 말인 반면, '~을 앉히다'라는 뜻의 seat을 활용한 수동태 'Be seated.'는 공연장이나 강연장에서 '신사 숙녀 여러분 착석해 주십시오.' 또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라며 정중하고 격식을 차려 말할 때 쓰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권위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할 때 수동태가 쓰이는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나 안내문에 'be required to 부정사', 'be requested to 부정사', 'be asked to 부정사', 'be advised to 부정사'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 All the employees are required to wear their employee ID badge at all times.

(전 직원들은 직원 신분증을 항상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직원 신분증을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주체는 회사 경영진이겠죠. 구태여 능동태를 써서 그 주체를 드러내기 보다는 그런 요구를 받는 대상인 전 직원들을 주어로 한 수동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2. 동사의 3단 변화

앞에서 우리가 breaks, broken, 이렇게 동사 형태를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혹시 학생 여러분들 중에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 더 기초로 돌아가서 동사 3단 변화를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 규칙변화 (원형 - ~ed - ~ed)

- employ-employed-employed
- study-studied-studied
- stop-stopped-stopped

2) 불규칙변화

| | |
|--------|---|
| A-A-A형 | fit-fit-fit, cut-cut-cut, quit-quit-quit |
| A-B-B형 | hold-held-held, leave-left-left, keep-kept-kept |
| A-B-C형 | go-went-gone, break-broke-broken, begin-began-begun |
| A-B-A형 | come-came-come, run-ran-run, become-became-become |

동사의 3단 변화란 무엇일까요? 3단 중 첫 번째는 동사의 원형이고, 두 번째는 '~했다'라는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음영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우리가 수동태에서 be 동사와 함께 쓰는 과거분사형이에요. 특히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규칙 변화의 경우는 동사원형에 ~ed가 붙은 형태로 과거형도 과거분사형도 똑같이 쓰여요. '고용하다'는 employ이죠. 그런데

'고용했다'고 하고 싶어요. 그럼, employed.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용이 되어서 직장이 있는 상태인 것을 표현하려면, 'He is employed.'가 되는 겁니다. 이때 employed는 과거분사에 해당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study를 볼까요? 이걸 형태가 좀 다르지요? 자음 하나와 y가 이어진 동사는 y를 i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ed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stop처럼 모음 하나와 자음 하나로 끝나는 동사는 맨 끝에 나온 자음, 즉 여기서는 p를 하나 더 쓰고 ~ed를 붙여서 stopped가 되요. 이때 ~ed의 발음은 /t/이고요.

이렇게 규칙 변화만 있으면 쉽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규칙 변화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영어의 불규칙 동사 변화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선 A-A-A형이 있어요. 주로 짧은 단어들에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동사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모두 똑같은 경우입니다. <fit-fit-fit>(맞다), <cut-cut-cut>(자르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 때 많이 쓰는 <quit-quit-quit>(그만두다)이 그 예예요. 그 다음 A-B-B형이 있는데요. 이건 <hold-held-held>(잡다, 개최하다)처럼 동사변화 중에서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은 경우입니다. leave와 keep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세 번째 A-B-C형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동사 break가 여기에 속합니다.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달라서 <break-broke-broken>, <begin-began-begun>처럼 변화하지요. 대체로 이 A-B-C형의 과거분사는 n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B-A형이 있는데요. 동사원형 다음에 과거형은 형태가 바뀌는데, 과거분사는 다시 동사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사원형과 똑같은 과거분사형. 그게 바로 A-B-A형입니다. <come-came-come>, <become-became-become>, <run-ran-run>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하죠.

3. 수동태의 결합형태

자, 그럼 이런 기초를 다진 다음, 수동태의 결합 형태를 보도록 하죠.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수동태는 뒤의 과거분사는 바뀌지 않으면서 앞의 be 동사가 조금씩 바뀌어서 시제도 나타내고 다른 많은 것들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be 동사가 바뀔 게 수동태인데요. 우선, 현재형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제 수동태도 물론 be 동사에 과거분사를 써주면 되는데, 사실 be 동사야말로 제일 많이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예요. 현재형 be 동사는 세 가지가 있죠. 1인칭 I와 쓰이는 am, 2인칭 you나 복수 주어와 쓰이는 are, 3인칭 단수 대명사(she, he, it), 그리고 단수 명사 주어와 쓰이는 is 이렇게요. 그래서 am, are, is 다음에 과거분사가 쓰이는 것이 현재시제 수동태예요. 즉, 현재시제 수동태의 형태는 <am/are/is+과거분사(p.p.)>라는 말이지요.

- The magazine is published every week. (그 잡지는 매주 발행된다.) [수동]
 - They publish the magazine every week. (그들은 그 잡지를 매주 발행한다.) [능동]
- publish는 '발행하다' 또는 '출판하다'라는 뜻인데요. 'The magazine is published every week.'라고 하면 '그 잡지는 매주 발행된다.'는 뜻이 됩니다. 주간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 본다면 'They(잡지사 직원들) publish the magazine every week.'이 됩니다. 주어 they 다음에 동사 원형 publish,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the magazine'을 쓰고, 시간을 나타내는 'every week'을 쓰면 되지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 they는 누가 봐도 그 잡지사 직원들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중요한 정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수동태에서 문장의 끝에 'by them'은 구태여 써주지 않은 겁니다.

이제 과거 시제 수동태에 대해 알아 봅시다. 우선 be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 알아야겠죠? be 동사의 과거형은 was와 wer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I나

3인칭 단수(he, she, it, 단수명사) 주어는 was와 같이 쓰이고, you나 복수 주어는 were와 함께 써요. 그래서 주어의 수에 일치시켜서 was나 were를 쓰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를 쓰면 되죠.

- The conference was held last Friday.

(회의가 지난 금요일에 개최되었다.) [수동]

- They held the conference last Friday.

(그들이 지난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했다.) [능동]

주어인 'the conference'는 단수니까 be 동사 was를 썼고, 그에 이어서 '개최하다'라는 뜻의 동사 hold의 과거분사인 held를 써서 'The conference was held.'가 된 거예요. 동사 hold는 <hold-held-held>로 변화하는 A-B-B형이었죠. '회의가 지난 금요일에 개최되었다.'라고 해서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능동태 문장인데요.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They held the conference last Friday.' (그들이 지난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했다)에서 held는 과거분사가 아니라 과거 시제의 held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the conference'가 동사 held의 목적어에 해당하지요.

여기까지는 수동태의 결합형태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결합형태들에 도전해 볼까요? 우선, 조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수동태를 만들어 봅시다. 조동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래나 의지를 나타내는 will, 할 수 있다는 뜻의 can, 해야 한다는 당위를 나타내는 should나 must 등등 많이 있지요. 이런 조동사들 다음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옵니다.

- We will install a security system next week. [능동]

(우리는 다음 주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봅시다.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인 'a security system' 이 주어로 나오겠지요. 그리고 나서 동사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조동사 will 다음에 수동태 <be+과거분사(p.p.)>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조동사 will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겠지요? be 동사의 원형은 be이니까, 'will be installed'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we나 they와 같은 일반인 주어 또는 모호한 동작의 주체, 즉 능동태의 주어는 생략하므로, 수동태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되죠.

- A new security system will be installed next week. [수동]

(새 보안 시스템이 다음주에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조동사 구문의 수동태는 조동사에 <be+과거분사(p.p.)>를 붙여 주면 됩니다.

그 외의 수동태 동사결합 형태들을 봅시다. 현재진행 시제 <be 동사+현재분사(~ing)>와 수동태 <be 동사+과거분사(p.p.)>가 합해진 현재진행 수동태는 주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중임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The door is being painted.'는 '문이 페인트칠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지요. 또한 현재완료시제 역시 수동태가 가능한데, <have/has+과거분사(p.p.)>와 <be 동사+과거분사(p.p.)>가 합해진 현재완료 수동태는 주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당해 왔거나 이미 어떤 일을 당하여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음을 뜻하지요.

- Rice has been grown in Asia for over 2,000 years. [수동]

(쌀은 아시아에서 2000년 이상 재배되어져 왔다.)

동사 grow는 성장한다는 뜻도 있고 다른 것을 '성장시키다', 즉 '키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위 문장에서 grow는 두 번째 뜻으로 쓰인 거예요. 쌀의 입장에서 보자면,

2000년 이상 전부터 지금까지 쭉 키워져 온, 즉 재배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완료시제와 수동태를 합쳐서 'has been grown'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수동태 결합형태들을 표로 정리해 봅시다.

| | |
|------------|--|
| 현재 수동태 | am/are/is+과거분사(p.p.): ~되다 |
| 과거 수동태 | was/were+과거분사(p.p.): ~되었다 |
| 조동사 + 동사원형 | 조동사+be+과거분사(p.p.):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
| 현재진행 수동태 | is/are being+과거분사(p.p.): ~되는 중이다 |
| 현재완료 수동태 | have/has been+과거분사(p.p.): ~되어 왔다/된 상태다 |

4. 자동사와 타동사

수동태를 공부할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이 스스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동사예요. 반면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타동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 자동사 | 타동사 |
|-------------------------------|--|
|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사라지다) | buy (사다) need (필요로 하다), |
| come/ go (오다/가다) | enjoy (즐기다), raise (올리다) |
| depart/ arrive (출발하다/도착하다) | expect (기대하다) take (가지다, 걸리다), |
| exist (존재하다) | find (발견하다), use (이용하다) |
| rise (오르다) | hit (때리다) want (원하다) |
| take place (열리다, 개최되다) | |

자동사는 동사 뒤에 명사가 없거나, <전치사+명사>(전명구), 또는 부사가 와요.

자동사는 주어와 의미 관계를 갖는 동사거든요. 뒤에 명사를 받으려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즉,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지만 의미상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치사를 앞세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아래 예문들을 비교해 봅시다.

- The train reached Busan Station. (그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다.)
- The train arrived at Busan Station. (그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다.)

동사 reach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Busan Station'을 바로 취할 수 있지만, 동사 arrive는 자동사이므로 전치사 at의 도움을 받아야 명사 'Busan Station'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를 만들 수 없지요. 한편, 타동사는 동사 뒤에 바로 명사가 와요. 이게 목적어지요. 타동사는 목적어와 긴밀한 의미 관계를 갖는 동사예요. 자동사가 타동사에 비해 소수이므로,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들을 외워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또한 목적어가 있고 없음은 동사 뒤에 명사가 바로 이어져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이므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착각하기 쉽거나 어려운 자동사와 타동사를 모아봤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로 공부해 보세요.

|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 |
|----------------------|------------------|
| reach (~에 도달하다) | enter (~에 들어가다) |
| marry (~와 결혼하다) | answer (~에 응답하다) |
| discuss (~에 대해 논의하다) | face (~에 직면하다) |
| attend (~에 출석하다) | leave (~을 떠나다) |

이러한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요. 전치사는 오지 않아요.

|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 |
|--------------------------|--------------------------|
|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 listen to (~을 듣다) |
| graduate from (~에서 졸업하다) | deal with (~을 처리하다) |
| retire from (~에서 은퇴하다) | talk about (~에 대해 이야기하다) |
| reply to (~에 응답하다) | depart from (~에서 출발하다) |

이러한 자동사 바로 뒤에 전치사가 와요.

그런데, 자동사는 전치사와 함께 타동사구를 이루므로 <자동사+전치사>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laugh at'(~을 비웃다)을 볼까요?

- He was laughed at by his classmates. (그는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이 경우 'laugh at'을 하나의 동사로 보고 'be laughed at'으로 고치면 수동태가 돼요. 'deal with'(다루다, 처리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 I hope this scandal will be dealt with in an appropriate manner.

(이 추문이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will be dealt with' 부분은 'deal with'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수동태를 만든 것입니다. 이외에도 'take care of'(돌보다), 'throw away'(버리다), 'account for'(설명하다)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자동사+전치사>에 해당합니다.

5. 3형식,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

1) 3형식의 수동태

가장 흔한 3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뒤에 아무 것도 안 붙거나 부사, 전치사구 같은 수식어만 붙어요.

- We accepted new members. [능동] (우리는 새회원들을 받아들였다.)

- We were accepted as new members. [수동] (우리는 새회원으로 받아들이졌다.)
- We were accepted right away. [수동] (우리는 곧 바로 받아들여졌다.)

맨 앞 문장은 능동태로서 동사 뒤에 목적어인 'new members'가 나왔죠. 하지만 수동태인 다음 두 문장은 동사 뒤에 전치사구(as new members)나 부사(right away)만 왔습니다. 이렇게 3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수식어구를 빼고 문장의 뼈대로만 놓고 보면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 되지요.

2) 4형식의 수동태

목적어가 두 개(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인 4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두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목적어가 모두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give(주다), teach(가르쳐 주다), promise(약속하다), tell(~에게 ~하라고 말하다), allow(허락하다), offer(제안/제공하다), show(보여 주다), lend(빌려 주다) 등이 있어요.

- My homeroom teacher teaches us English.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신다.)

→ We are taught English by my homeroom teacher.

(우리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영어를 가르침 받는다.)

→ English is taught [to] us by my homeroom teacher.

(영어가 우리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진다.)

그러나 모든 4형식 동사가 이렇게 두 가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어 중 하나만 주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 목적어, 즉 사물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로는 make(만들다), write(쓰다), buy(사다), sell(팔다), bring(가져오다), send(보내다), sing(노래하다),

read(읽다)가 있고, 반대로 간접 목적어, 즉 사람 목적어만 수동태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동사로는 envy(부러워하다), save(아껴주다), answer(대답하다) 등이 있어요.

• She wrote me a letter. [능동] (그녀는 내게 편지 한 통을 썼다.)

→ A letter was written (to) me by her. [수동]

(편지 한 통이 그녀에 의해 나에게 쓰여졌다.) (O)

→ I was written a letter by her. (나는 그녀에 의해 편지가 쓰여졌다.) (X)

편지가 쓰여진 것이지 사람인 내가 쓰여진 것은 아니므로 세 번째 문장은 성립할 수 없어요.

3) 5형식의 수동태

한편, <주어+동사+목적어+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의 수동태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이런 문장은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놓고 목적격 보어는 동사 부분인 <be 동사+과거분사(p.p.)> 다음에 놓으면 됩니다. 이때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가 아니므로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 They elected Trump president. [능동] (그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면, 목적어인 Trump를 주어로 해서 'Trump was elected'로 바꾼 다음, 목적격 보어인 president를 그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 Trump was elected president. [수동]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They painted the door red. [능동] (그들은 그 문을 빨간색으로 칠했다.)

• The door was painted red. [수동] (그 문은 빨간색으로 칠해졌다.)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인 'the door'를 주어로 하고 동사 부분을 'was painted'로

바꾼 다음 목적격 보어 red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던 부분이 수동태에서는 주격 보어로 바뀌는 셈이지요. 따라서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주어+동사+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2형식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5형식 동사들 중에는 let(~하게 하다), make(~하도록 만들다), have(시키다/당하다) 같은 '시키다'와 관련된 뜻을 가진 사역동사들, 그리고 hear(듣다), see(보다), watch(살펴보다), feel(느끼다) 같은 지각동사들이 있어요. 이 동사들이 동작을 목적격 보어로 취할 경우 to 부정사에서 **to가 빠진 원형부정사**를 쓴답니다.

- He made me feel terrible. [능동] (그는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 I saw him study in the library. [능동]

(나는 그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았다.)

이 두 문장에서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feel terrible'과 'study in the library'가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에 해당해요. 그런데 feel, study처럼 동사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쓰였지요. 이런 문장들을 수동태로 바꾸면 원형 부정사가 to 부정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 I was made to feel terrible by him. [수동] (나는 그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

- He was seen to study in the library by me. [수동]

(그는 나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단, 동사 let이 들어간 문장의 수동태를 만들려면 'be let to 부정사'가 아니라 'be allowed to 부정사'(~하도록 허락되다)가 자연스럽다는 것도 기억해 둬시다.

- They let us go. [능동] (그들은 우리를 가게 해 주었다.)

- We were allowed to go by them. [수동] (우리는 그들에 의해 가도록 허락받았다.)

6. 감정동사의 수동태 및 by 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할 때, 우리 말 식으로 생각하면 수동이 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영어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인 satisfy(만족시키다), please(기쁘게 하다), confuse(혼란시키다), concern(걱정시키다), surprise(놀라게 하다), disappoint(실망시키다), embarrass(당황하게 하다), distract(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등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게 만들다',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의 타동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감정을 유발하는 일을 사람이 당해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수동태가 되죠.

- I was surprised at the news. [수동] (나는 그 뉴스에 대해 놀랐다.)

동사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수동태를 써서 'was surprised'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처럼 감정동사의 수동태에서는 동작의 주체 앞에 by 대신 이유나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 in, with, about 등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놀라거나 무서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at, 기쁘거나 실망하는 경우 with, 걱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about을 쓰지요. 감정동사를 포함하여 by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들은 다음과 같아요.

| | |
|-------------------------------------|--|
| be surprised at (~에 놀라다) | be known for (~로 유명하다) |
| be shocked at (~로 충격 받다) | be equipped with (~이 설비되어 있다) |
|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 있다) |
|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을 갖다) | be pleased with (~로 기뻐하다) |
| be covered with (~로 가득 차 있다) | be concern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

7. <get+p.p.> 수동태

구어체에서는 be 동사 대신 get을 써서 <get+과거분사(p.p.)>로 수동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 <be 동사+과거분사(p.p.)>: 상태 및 동작
- <get+과거분사(p.p.)>: 동작의 강조 (구어체)

- I'm getting married this March. (난 이번 3월에 결혼해요.)
- I'm married. (저는 기혼이에요.)

get은 become과 비슷해서, 어떻게 변한다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본 수동태인 <be 동사+과거분사(p.p.)>는 어떤 일을 당해서 지금 어떤 상태라는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어감이 강하다면, <get+과거분사(p.p.)>는 아니었다가 어떻게 되었진다는 역동적인 변화와 동작을 강조하는 어감이 됩니다. <get+과거분사(p.p.)>를 쓰면, 좀 더 실감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동작이 일어나는 느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되죠. 위의 예문들 중 첫 번째 문장에서 아직 3월이 안 온 지금 상태에서는 '나'도 내 배필감도 모두 아직 미혼이겠죠. 그런데 3월의 어느 날 결혼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미혼 상태에서 기혼 상태로 확 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는 'I'm being married.'보다는 'I'm getting married.'라고 하면 그런 변화의

생동감과 역동성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현재진행은 가까운 미래를 뜻하고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 'I'm married.'처럼 그냥 be 동사를 쓰면, '저는 기혼이에요.'라는 뜻으로, 이미 결혼해서 지금 결혼한 상태라는 뜻이죠. 동사 marry가 '~와 결혼하다', 또는 '~을 결혼시키다'라는 뜻의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결혼시키다'의 수동태로 나타냅니다.

아래 두 문장도 같은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 I'm getting dressed. (난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
- I'm dressed. (난 옷을 다 입은 상태다.)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옷을 입는 중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이미 옷을 다 입은 상태라는 뜻이죠. 동작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get+과거분사(p.p.)>를, 상태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be 동사+과거분사(p.p.)>를 쓴 것이죠. 이때 동사 dress가 어떤 사람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뜻의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은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8. 회화에 자주 쓰이는 수동태 표현

Let's get started. (시작합니다.)

I'm lost. (길을 잃었어요.)

I'm stuck in traffic. (차가 막혀 꼼짝 못하고 있어요.)

I got[was] ripped off. (바가지 썼어요.)

I'm tired. (피곤해요.)

be supposed to 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

I'm fed up with ~: ~에 질렸다

위 표현들은 특히 회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동태 표현들입니다. 차근차근

살펴 봅시다. 동사 start는 시작한다는 뜻의 자동사도 되고, '시작하게 하다'라는 타동사도 되요. 그래서 'Let's start.'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안 될 것은 없지만, 실제 미국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Let's get started.'를 주로 써요. 이 문장은 타동사 start(시작시키다)의 수동태를 사용한 것인데, 일상 회화에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니 말뭉치로 묶어서 외워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lose의 수동태를 쓴 'I'm lost.'는 길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해외 배낭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미지의 세계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생기겠지요? 그럴 때 사용하면 딱 좋은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구글맵도 있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행할 때는 의외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여행의 묘미잖아요. 그럴 땐 현지인들에게 길을 물어봐야겠죠. 이럴 때 'Excuse me. I'm lost.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ubway station?' (실례합니다. 저는 길을 잃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 바로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표현이 'I'm lost.'이고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 'I'm stuck in traffic.' 여기서 stuck은 동사 stick의 과거분사형인데, stick은 무언가를 붙이거나 들러붙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는 스티커(sticker)도 이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죠. 이 동사는 또 비유적으로 쓰여서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 빠져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끈적끈적한 수렁에 빠져서 움짱달짝할 수 없게 만든다는 어감이지요. 그래서 수동태로 'be stuck'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지요. 'I'm stuck in traffic.'이란 교통 체증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한편, 'get ripped off'에서 ripped는 rip(~을 찢다, 빼앗다)의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get ripped off'는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바가지를 쓴다는 뜻으로 아주 많이 쓰여요. 빼앗기거나 찢김을 당했다는 뜻이니깐요. 'be supposed to 부정사'도 참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동사 suppose는 가정한다는 뜻이죠. 'be supposed to 부정사'는 그 동사의 수동태이므로, '~하도록 가정된다'는 뜻이 되겠죠. 즉, 약속에 의해서나 도의적인 의무 차원에서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이라고 가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보고서를 기한 안에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I'm supposed to finish my report by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까지 보고서를 끝내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한편, 'be fed up with'에서 fed는 먹이를 준다는 뜻의 동사 'feed'의 과거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be fed'는 '먹이를 먹여지다', 즉 '뭔가를 먹는다'는 말입니다. 'up'을 쓰면 꼭 찬 느낌이 들고요. 따라서 무언가를 꼭 차게 먹었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배부르게 질릴 정도로 먹어서 더 이상은 먹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I'm fed up with this work.'라고 하면 이 일에 질렸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표현들도 말뭉치 단위로 외워서 실제로 딱 맞는 순간을 만났을 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Ⅲ. 전치사

우선 전치사는 무엇을 하는 품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전치사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답니다. 전치사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와 결합해서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를 만들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I go to school.'(나는 학교에 간다.)이라는 문장을 봅시다. 여기서 'to school'(학교에)을 살펴보면, 전치사 to 뒤에 명사 school이 와서 to가 **~에**라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전치사는 단독으로 못 쓰나요? 네, 맞습니다. 전치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라 혼자서는 절대 못쓰고 명사, 대명사, 동명사의 앞에 있어야 하는 품사랍니다.

혹시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전치사 뒤에는 인칭 대명사가 올 경우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for her' 또는 'by me' 등과 같이 쓰면 됩니다. 한가지 더, 전치사와 수반되는 관용어구를 미리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관용어구인 <자동사+전치사>와 <be 동사+형용사+전치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는 예로는 'look at'(보다), 'laugh at'(웃다), 'care for'(좋아하다) 등이 있어요. 'be 동사' 뒤에 <형용사 + 전치사>가 오는 경우로는 'be anxious for'(갈망하다), 'be tired of'(싫증나다) 등이 있겠네요.

지금까지 전치사에 대해 맛보기로 살펴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전치사는 용법을 예문과 함께 익히는 게 최고의 학습법이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전치사에 대해 파고들어 볼까요?

1. 전치사란?

1) 위치: 전치사는 **명사, 동명사** 또는 대명사 앞에 놓여요.

2) 의미: **시간, 장소, 이유, 위치, 방향**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진답니다.

3)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구)**가 옵니다. 이 명사(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지요. 아래 예시에서 'the supermarket'인 명사구가 전치사 뒤에 오니 'the supermarket'이 전치사 by의 목적어가 되겠죠?

• **at**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 **by** the supermarket (슈퍼마켓 옆에)

4) 형태: 명사, 대명사, 동명사와 같이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전치사 뒤에 와서 목적어로 쓰여요.

① 명사: about the story (그 이야기에 대해)

② 대명사: with me (나와 함께)

③ 동명사: of walking (걷기의)

※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나 동사원형은 쓸 수 없어요!

• instead of ~~to~~ eat → instead of eating (먹는 거 대신에)

• in ~~play~~ soccer → in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에)

2. 전명구 역할: <전치사+명사=전명구>는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답니다.

1) 형용사 역할

① 명사 수식: 전명구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요.

• Here is my present **for your birthday**. (네 생일을 위한 선물이 여기 있어.)

② 주격 보어: 전명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요.

• This is **of no use**. (이것은 쓸모가 없어.)

2) 부사 역할

① 동사 수식

- I cleaned my room by myself. (나는 내 방을 혼자 청소했다.)

② 형용사 수식

- The restaurant was successful for one month.

(그 레스토랑은 한달 동안은 성공적이었다.)

③ 문장 수식

- In his opinion, we should give up the idea.

(그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포기해야 해.)

3. 시간 전치사

1) in / on / at (~에)

- ① <in+긴 시간>: 연도, 계절, 월, 세기 앞에 옵니다.

- in 2017(2017년에)/ in spring(봄에)/ in May(5월에)/ in the evening(저녁에)/ in the 21st century(21세기에)

- ② <on + 특정 시간>: 날짜, 요일에 옵니다.

- on March 2(3월 2일에)/ on Saturday(토요일에)/ on Sunday morning(일요일 아침에)

- ③ <at+짧은 시간>: 구체적인 시간 앞에 옵니다.

- at 3 o'clock(3시에)/ at noon(정오에)/ at midnight(자정에)/ at night(밤에)

2) for/ during (~동안): for는 얼마나 지속되었는가를 나타낼 때 쓰는 반면, during은 언제 발생했는지를 나타낼 때 쓰이지요.

- ① <for+(숫자) 기간>: for ten years(10년 동안)

- ② <during+명사>: during the summer vacation(여름방학 동안)

3) from / since (~부터)

① from: '언제부터'라는 시작하는 시점을 나타내므로 현재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 I started to take a yoga class from last month.

(나는 지난 달부터 요가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 from ~ to ~ (~부터 ~까지): 이 표현은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을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어, 'from Monday to Friday'(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출발지와 도착지도 이 표현을 적용해서 'from New York to London'(뉴욕에서 런던까지)라고 쓰면 됩니다. 하나 더, 'from ~ to ~'의 표현에서 to 대신에 **till**이나 **up to**를 써도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② since: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므로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 I have been taking a yoga class since last month.

(나는 지난 달부터 요가 수업을 받아 오고 있다.)

※ for vs since: for 뒤에는 주로 **숫자**와 함께 나오지만, since 뒤에는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 해요.

• for ten months(7개월 동안) / since 2017(2017년 이후로)

4) by / until (~까지)

① by: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 시점이 그 이전이나 그 시한까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요. 따라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complete(마치다), finish(끝내다), submit(제출하다) 등의 동사와 자주 어울려요.

• I will finish the project by Friday.

(나는 그 프로젝트를 금요일까지 완성할 것이다.)

② until: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다가 그 시점에서 끝난다는 의미로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지요. 따라서 **계속**의 의미로 상태를 나타내는 last (지속되다), open(열린), valid(유효한) 등과 같은 동사 및 형용사와 자주 어울려요.

• The national library is open until 5 o'clock. (국립 도서관은 5시까지 개장한다.)

5) within (~이내에) ↔ in (~후에): 이 둘은 반대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로서 within과 in 뒤에 **시간**이 오게 되면 각각 **~이내에**, **~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① <within+시간> (~이내에)

• I'll be in touch with you within the next two weeks.

(제가 2주 이내로 당신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② <in+시간> (~후에)

• I'll be in touch with you in the next two weeks.

(제가 2주 후에 당신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in vs after: 시간 전치사 in도 after도 ~후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보면, 'after two weeks'라고 하면 막연한 의미로 '2주 후' 언제가 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게 되지요. 하지만 'in the next two week'는 '2주쯤에'라는 조금 더 명확한 의미로 구어체에 많이 쓰입니다.

6) on = upon (~하자마자)

• On her arrival in New York, Jane called on my office.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제인은 나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7) over (~동안, ~에 걸쳐)

• Over the last year, my income has doubled.

(작년 동안 내 수입은 두 배가 되었다.)

8) through = throughout (~동안, ~내내)

• I will keep studying the subject through next month.

(나는 다음 달 내내 그 과목을 공부할 것이다.)

4. 장소 전치사

| | |
|------------------------------------|---------------------------|
| across ~을 가로질러 | against ~에 기대어 |
| along ~따라 | around ~주위에 |
| at / in ~에 | by / beside / next to ~옆에 |
| for / toward ~을 향해 | in / inside ~안에 |
| in front of ~앞에 ↔ behind ~뒤에 | into ~안으로 ↔ out of ~밖으로 |
| through ~을 통과해 | on ~위에, 표면에 |
| over ~위에 걸쳐서 ↔ under ~아래 | |
| above ~보다 높은 곳에 ↔ below ~보다 낮은 곳에 | |
| between ~(둘)사이에 / among ~(셋 이상)중에서 | |

※ **at vs in**: at은 지점으로서의 **위치**를 나타내고, in은 넓은 장소의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 I am **at** the restaurant. vs I live **in** Busan.

※ **in vs into**: in은 **상태동사**와 같이 쓰이지만, into는 **동작동사**와 같이 쓰입니다.

• I live **in** my house. vs I run **into** the house.

5. 수단/ 목적 전치사

by ~에 의해

by doing ~함으로써

with ~와 함께 ↔ without ~없이

through ~을 통해

for ~을 위해

- I have reserved the seat **by** phone. (나는 전화로 그 좌석을 예약했어.)

6. 원인 전치사

for ~로

from ~로 인해

at ~해서

- I was surprised **at** his words. (나는 그의 말에 놀랐다.)

7. 주제 전치사 (~에 대해서)

about

on

over

of

- The movie was **about** a true love. (그 영화는 진실한 사랑에 관한 거였어.)

8. 자격 전치사: as (~로서)

- I respect him **as** a teacher. (나는 그를 선생님으로서 존경한다.)

9. 구전치사: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쓰이기 때문에 한 단어라도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ccording to ~에 따라서

instead of ~에 대신에

because of = due to = owing to ~때문에

next to ~옆에

by means of ~을 사용해서

on behalf of ~을 대신해서

contrast to ~와는 반대로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far from 전혀 ~가 아닌

thanks to ~덕분에

in addition to = besides ~외에도

in case of ~의 경우에

in spite of = despite ~에도 불구하고

- His failure was **due to** his bad luck. (그의 실패는 운이 없었기 때문이었어.)

10. ~ing 전치사: 동사에 ~ing가 붙어서 만들어진 전치사들이지요.

| | |
|-----------------------|------------------------------|
| barring ~이 없으면 | excluding ~을 제외하고 |
| considering ~을 고려해볼 때 | regarding = concerning ~에 관해 |
| following ~에 따라 | |
| including ~을 포함해서 | |

- My father is physically strong **considering** his age.

(우리 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11. <every / last / this / next + 시간명사> (~마다 /지난~/이번~/다음~): 'every / last / this / next' 앞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on~~ every Friday (X) → every Friday (O) (금요일마다)

※ for/ during(~동안), by/ until (~까지) 전치사 뒤에 <every / last / this / next + 시간명사>가 오는 경우 앞에 전치사를 써주어야 합니다.

- He will guide you around the city **for** the next week.

(그가 당신에게 다음주 동안 도시를 안내할겁니다.)

12. 혼동할 수 있는 전치사

1) but = except (~을 제외하고): but이 **그러나**의 뜻으로 접속사로 쓰이지만, 전치사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2) concerning = about (~에 관해): **~ing**의 형태로만 보고 현재분사나 동명사가 아닌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 like ↔ unlike (~와 같이 ↔ ~와 다르게): 서술어로만 쓰는 형용사인 alike(비슷한)과 스펠링이 비슷하니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13. 전치사의 주의사항

1) 타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오면 틀린 문장이 된다!

예를 들어, 'We need to discuss ~~about~~ the problem.'(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에서 discuss는 타동사이므로 뒤에 전치사 about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동사 뒤에 전치사를 쓸 수 없지만 타동사의 목적어 뒤에 특정 전치사가 올 때가 있으니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꼭 알아둡시다.

| | |
|---|-------------------------------|
| apply A to B A를 B에 적용하다 | compare A to B A를 B에 비유하다 |
|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 define A as B A를 B로 정의하다 |
| lead A to B A를 B로 인도하다 | pay A for B A에게 B에 대해 지불하다 |
|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 substitute A for B A를 B로 대신하다 |
| consider A as B =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 |
| keep A from B = prevent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 |
|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 |

2) 장소나 방향의 전치사 뒤에 부사를 쓰지 말자!

예를 들면, 'I arrived ~~at~~ there.'(나는 그곳에 도착했어.)의 문장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there 앞에 전치사 at을 빼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3) <동사+전치사>: 다음과 같은 동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를 수시로 보면서 암기하도록 합시다.

| | |
|--------------------------|------------------|
| apologize for ~에 대해 사과하다 | believe in ~를 믿다 |
|--------------------------|------------------|

| | |
|--|-------------------------|
| belong to ~에 속하다 | benefit from ~에서 이익을 얻다 |
| consist of ~로 구성되어 있다 |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
| interfere to ~에 기여하다 | listen to ~의 말을 듣다 |
| pay for ~를 지불하다 | result in ~라는 결과가 되다 |
| succeed in ~에 성공하다 | suffer from ~로 고통 받다 |
| think of ~에 대해 생각하다 | |
| depend on = rely on = count on ~에 의지하다 | |

4) <형용사/분사+전치사>: 다음과 같은 형용사 혹은 분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를 알아둡시다!

| | |
|--------------------------------|--------------------------|
| accustomed to = used to ~에 익숙한 | afraid of ~을 두려워하는 |
| anxious about ~을 걱정하는 | anxious for ~을 갈망하는 |
| capable of ~을 할 수 있는 | disappointed with ~에 실망한 |
| famous for ~로 유명한 | free from ~가 없는/~에서 벗어난 |
| interested in ~에 관심 있는 | necessary for ~에 필요한 |
| pleased with ~에 기뻐하는 | related to ~와 관련된 |
| responsible for ~에 책임 있는 |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는 |
| tired of ~에 질린 | wrong with ~에 잘못된 |

5) <명사+전치사>: 다음과 같은 명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를 알아둡시다!

| | |
|------------------|-------------------|
| advance in ~의 발전 | approval of ~의 찬성 |
|------------------|-------------------|

capability of ~할 수 있는 능력

contribution to ~에 대한 기여

decrease in ~의 감소

demand for ~에 대한 요구

example of ~의 예시

increase in ~의 증가

influence on ~의 영향

interest in ~에 대한 관심

possibility of ~의 가능성

use of ~의 사용

전치사들의 기본적인 쓰임을 먼저 익혀둔 뒤 다양한 전치사들의 뜻과 용법을 예문과 함께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일 것입니다.

IV. 접 속 사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접속사가 필요하지요. 즉, 접속사는 두 개 이상의 **단어, 구, 절(주어+동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요.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종속 접속사에 대해 살짝 알아보게요. 절과 절을 연결할 때에도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요. 즉,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 옵니다. 'I want to marry you because I love you.'(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의 문장에는 'I want to marry you.'의 절과 'I love you.'의 절이 'because'를 중간에 두고 연결되었지요. 여기서 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because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또한 '나는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라는 문장이 핵심이 되므로 '주절'이라고 하고, 주절에 부수적으로 설명이 덧붙여지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즉, 종속절은 주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요. 따라서 because와 같은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접속사인 등위 접속사도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등위접속사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등위 접속사

문법적으로 대등한 **단어, 구, 절**을 연결하는 것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앞이 명사면 뒤에도 명사, 앞이 동명사이면 뒤에도 동명사, 앞이 절이면 뒤에도 절이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I want to stay home, but my friend wants to go out.'(나는 집에 있기를 원하지만, 내 친구는 외출하기를 원한다.)라는 문장에서 'I want to stay home.'의 절과 'My friend wants to go out.'의 절이 but 을 중심으로

좌우 연결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두 개의 문장이 어느 한 문장에 종속되지 않는 각각의 독립적인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지요.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한답니다.

1) 역할: 접속사는 문장에서의 **단어, 구,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① <단어+등위 접속사+단어>

• He is honest and kind. (그는 정직하면서 친절하다.)

② <구+등위 접속사+구>

• You can go there by bus or by subway.

(너는 거기에 버스 또는 지하철로 갈 수 있어.)

③ <절+등위 접속사+절>

• She was diligent, but she was poor. (그녀는 근면했지만 가난했다.)

2) 종류

| | | | | |
|---------|--------------|-------|--------|----------|
| and 그리고 | but/ yet 그러나 | or 또는 | so 그래서 | for 왜냐하면 |
|---------|--------------|-------|--------|----------|

3) 문장의 동사의 개수 - 1 = 등위 접속사 개수

등위 접속사가 두 개의 절(주어+동사)을 연결하면 두 문장의 동사의 개수는 2 개이므로 접속사는 하나(2-1=1)가 필요하지요. 따라서 등위 접속사의 개수는 문장의 절, 즉 동사의 개수보다 하나 적어야 한답니다.

• I like horror films but my friend doesn't like them.

(나는 공포영화를 좋아하지만, 내 친구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

4) 등위 접속사의 주의사항

① so 와 for 는 절(주어+동사)만 연결할 수 있어요.

• I broke my leg, so I went to hospital. [주어+동사+등위 접속사+주어+동사]

(나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어.)

② 등위 접속사는 연결된 문장 성분이 **병렬구조**를 이루어야 해요.

• She wants to be rich and healthy. [형용사+등위 접속사+형용사]

(그녀는 부유해지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③ 동사의 수 일치에 주의하세요. 주어가 등위 접속사 and 로 연결될 때는 복수동사를 쓰고, or 일 경우에는 마지막 주어에 수를 맞추어야 해요.

• **You and I** need to meet Mary. (너와 나는 메리를 만나야 해.) [복수 동사]

• You **or he** needs to meet Mary. (너 또는 그가 메리를 만나야 해.) [단수 동사]

④ 등위 접속사의 두 번째 구/절에서 앞에 나온 중복되는 단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 He fixed the computer, and (he) changed the printer. [두 번째 절 주어 생략]

(그는 컴퓨터를 고쳤고 프린터도 바꿨어.)

3. 상관 접속사

두 단어 이상이 짝을 이루는 형태의 접속사를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관 접속사의 앞과 뒤는 문법적으로 같은 성격이어야 합니다. 다음 표와 같이 상관 접속사를 꼭 암기하도록 합시다!

both A and B (A 와 B 둘 다)

either A or B (A 나 B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 (A 도 B 도 둘 다 아닌)

not A but B = B but not A = (only) B, not A (A 가 아니라 B)

not only A but (also) B = B as well as A (A 뿐만 아니라 B 도)

1) 수 일치 / 병렬 구조 주의합시다!

- ① 상관 접속사에 연결된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는 B에 시켜야 합니다!
- ② <both A and B>는 항상 복수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 ③ 상관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 성분은 꼭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4.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명사절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을 만드는 접속사입니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명사와 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지요. 형태는 <명사절 접속사+주어+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1) that (~라는 것): that 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특정 상황이나 사실을 나타냅니다.

① 주어 역할

• That she is innocent is true. (그녀가 결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② 목적어 역할

• I believe (that) he is guilty. (나는 그가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 that 절이 목적어일 때 접속사 that 은 생략 가능합니다.

③ 보어 역할

• The point is that I missed the airplane. (요점은 내가 비행기를 놓쳤다는 것이야.)

④ <be 동사+형용사+that 절>: 다음과 같이 that 절이 따라와야 하는 형용사를 외워 둡시다!

| | |
|---------------------------|--------------------------------|
| be aware that ~을 알고 있다 | be afraid that ~인 것 같다/ ~을 겁내다 |
| be convinced that ~을 확신하다 | be glad/happy that ~해서 기쁘다 |
| be sorry that ~해서 유감이다 | be sure that ~을 확신하다 |

• We are sure that our team will win the game.

(우리는 우리 팀이 그 경기를 이길 것을 확신한다.)

⑤ <명사+that 절>: 동격절 that 이 따라와야 하는 명사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세요!

| | |
|--------------------------|---------------------|
| assurance that ~라는 확신 | claim that ~라는 주장 |
| confirmation that ~라는 확인 | fact that ~라는 사실 |
| hope that ~라는 희망 | idea that ~라는 의견 |
| news that ~라는 뉴스 | opinion that ~라는 의견 |
| report that ~라는 보고, 발표 | rumor that ~라는 소문 |
| statement that ~라는 언급 | truth that ~라는 사실 |

• I heard the news that my uncle died yesterday.

(나는 어제 삼촌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2) whether = if (~인지 아닌지)

whether/ if 또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며,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that 과 차이점이 있어요. whether 은 <whether A or B> 또는 <whether or not>으로 잘 쓰이지요. if 가 '만약 ~라면'의 뜻으로만 알기 쉽지만, 명사절 (종속)접속사로 ~인지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① 주어 역할

• Whether he will come or not is a question.

(그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문제이다.)

※ 주절의 접속사로 쓰일 경우에는 whether 만 가능하고 if 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② 목적어 역할

- Ask him **if** he will visit me tomorrow.

(그가 내일 나를 방문할지 안 할지를 그에게 물어봐.)

※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 **whether** 만 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③ 보어 역할

- The question is **whether** I go there. (문제는 내가 거기 갈지 말지야.)

3) who/ what/ which/ whose

의문 대명사인 'who, what, which, whose'는 명사절을 이끌면서, 주어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의문 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 I don't know **who** wrote the memo.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누가 이 메모를 썼는지 모르겠어.)

4) how/ when/ where/ why

의문부사인 how, when, where, why 는 명사절을 이끌면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 You need to know **how** he could handle the problem. [완전한 절]

(너는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

※ **that** vs **what** 차이점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요.

- **That** you lost money is stupid. [<주어+동사+목적어>의 완전한 절]

(네가 돈을 잃어버린 것은 멍청한 거야.)

- I don't know **what** I forgot.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

(내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5.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절(주어+동사)이 동반되어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지요. 따라서 부사절은 주절의 앞 또는 뒤에 위치한답니다. 예문을 통해 부사절 접속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When** I entered the room, he was talking on the phone.'(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통화 중이었어.) 이 문장은 주절 앞에 부사절이 와서 종속 접속사인 when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었지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다양한 뜻을 가진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진 접속사 가운데에서 알맞은 접속사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답은 해석! 주절과 종속절의 문맥을 해석해본 후에 가장 알맞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의미의 접속사를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뜻과 차이점을 함께 보면서 배워갑시다.

1) 시간

| | |
|------------------|------------------|
| when ~할 때 | as ~할 때 |
| while ~하는 동안 | before ~전에 |
| after ~후에 | until(=till) ~까지 |
| by the time ~까지 | since ~이래로 |
| as soon as ~하자마자 | |

※ **when vs while**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다.

when 은 한 시점을 나타내는 언제인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지만, while 은 기간을 나타내어 주절과 종속절의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쓰지요.

2) 이유: because ~ = as = since = now (that) (~때문에)

※ for 가 '~때문에'라는 접속사로 쓸 경우, 문장 앞에는 올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 For I had a bad cold, I was absent. (X)

→ Because I had a bad cold, I was absent. (O)

(나는 감기가 심했기 때문에, 나는 결석했다.)

3) 조건

| | |
|-----------------------------------|-------------------------------|
| as long as ~하는 한 | if 만일 ~라면 |
| in case (that) ~한 경우에 | once 일단 ~하면 |
| provided[providing] (that) 만약 ~라면 | unless 만일 ~이 아니라면 (= if ~not) |

4) 양보: though = although = even though = even if (~에도 불구하고)

5) 방식: as (~한대로)

6) 목적: so that = in order that (~하기 위해서)

7) 결과 (매우 ~해서 ~하다)

| | |
|------------------|-------------------------|
| so+형용사/부사+that ~ | such a/an 형용사+명사+that ~ |
|------------------|-------------------------|

6. 접속사 vs 전치사 자리 구분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는 항상 뒤에 절(주어+동사)이 와야 합니다. 반면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명사구> 또는 <동명사/동명사구>가 와야 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와 전치사는 뒤에 오는 것에 따라 알맞게 쓰여야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 | <접속사+주어+동사> | <전치사+명사구(동명사구)> |
|---------|---|----------------------------------|
| ~동안에 | while | for / during |
| ~까지 | by the time | by |
| ~때문에 | because/ as/ since/ now (that) | because of / due to/ owing to |
| 비록 ~이지만 |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 despite/ in spite of |

7. 접속사 vs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접속사가 아니라 한마디로 **부사**입니다. 즉, 접속사의 의미가 담긴 부사라는 개념이에요. 두 문장의 의미를 연결하지만 접속사와 같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써서 앞 문장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지요. 또는 세미콜론 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접속부사를 뜻과 함께 암기해두도록 합시다.

| | |
|--------------------------------|------------------------|
| besides 그 밖에도 | however/ yet 그러나 |
| moreover/ furthermore 게다가, 더욱이 |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
| then 그러면 | thus/ therefore 그러므로 |

- I didn't like the idea. **However**, I had to agree.

(난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난 동의해야 했다.)

- I was late for lunch; **however**, there was much food left.

(내가 점심에 늦었지만 음식이 많이 남아있었다.)

※ yet 은 등위 접속사이면서 접속부사니 주의하세요!

전치사와 접속사가 같은 의미를 가질 경우 각각의 품사를 우선 파악해서
써야겠지요?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접속사와 전치사의 쓰임을 익혀놓도록 합시다.

V. 분사

때는 바야흐로 1997년. 한 라면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그 이름이 '쇼킹면'이었어요. 새롭게 출시된 라면 광고는 '자신 있는 분만 드십시오.'라는 대사와 문구로 시작되고, 마지막은 '공포의 매운맛'이라는 말과 자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이 광고를 통해 왜 라면의 이름이 '쇼킹면'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라면과는 다른 매움의 정도가 엄청나서 충격적인 라면이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광고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여러분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라면의 이름이 문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에 의해 작명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영어의 shocking과 우리말의 면이 합쳐진 '쇼킹면'의 이면에는 분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분사를 어줍잖게 알고 있었다면 'shocking 면'이 아닌 'shocked 면'이라는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름을 지었을 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분사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고 이해한다면 왜 'shocked 면'이 문법적 오류가 있고 'shocking 면'이 올바른 표현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분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 보도록 해요.

1. 분사라는 이름의 의미부터 알고 시작하자

영어 속담에 'Well begun is half done.'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문법 공부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새로운 문법을 배울 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그 문법의 용어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는 겁니다. 학습하게 될

문법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많게는 새로이 배울 문법의 절반까지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명사를 배우게 될 때, 무작정 동명사의 용법부터 뛰어들이기 전에 동명사의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동사에서 출발한 동명사는 외양은 동사와 비슷한 모양을 띄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듯 동명사의 명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시작하는 것이 결국 동명사의 본질을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분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로든 동명사와는 달리, 분사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순간 머리 속에 '이것이다!'라고 명쾌히 무언가가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문법을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문법의 명칭이 한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한자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알듯 말듯 애매한 문법용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분사를 한자로 접근해 볼까요? 분사의 '분'이라는 단어는 어떤 한자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도록 해요. 설마 '분'을 '가루 분(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분사의 분은 바로 '나눌 분'(分)이라는 한자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나누길래 '나눌 분' (分)을 이름에 집어 넣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분사를 이해하는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분사는 바로 동사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생성된 문법입니다. 동사가 절반으로 나뉘어져, 하나는 현재분사로, 나머지 하나는 과거분사로 탄생된 거구요. 현재분사의 모양은 모두가 획일적으로 '~ing'로 끝나며, 과거분사는 일부는 '~ed'로 끝나고 어떤 것은 딱 이거다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 불규칙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과거분사를 영어로 past participle이라고 부르는데, 단어의 앞 글자만 따서 보통 p.p.라고 칭하는 걸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그럼 이제 동사를 가지고 분사 만드는 연습을 해 볼까요? '요리하다'라는 동사 cook과 '잠자다' 라는 동사 sleep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죠.

| 동사 | 현재분사 | 과거분사 |
|-------|----------|--------|
| cook | cooking | cooked |
| sleep | sleeping | slept |

과거분사의 경우 cook은 ~ed로 끝났으니 **규칙변화**라고 하고, sleep은 ~ed로 끝나지 않아서 **불규칙 변화**라고 해요. 제대로 영어 공부 하려면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워 놓아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그럼 여태까지 설명한 분사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분사는 동사를 반으로 나눈 거다.
- 동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현재분사 다른 하나는 과거분사가 된다.
- 현재분사의 모양은 모두 '~ing'로 끝나고, 과거분사는 규칙동사이면 '~ed'로 끝나고 불규칙일 경우는 모양이 제 각각이다.

2. 분사,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현재분사는 be 동사와 함께 '진행시제'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여기서 잠깐 be 동사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 가도록 하죠. am, are, is, was, were, been이 be 동사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동사의 원형이 be이기 때문에, be 동사라 불리는 겁니다. be 동사가 혼자 사용되면, 존재를 나타내는 **~이다**라는 뜻이고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 **~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be 동사는 분사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현재분사와 함께 쓰이게 되면 진행시제를 만듭니다.

<be 동사>

| | | | |
|----|-------------------|-----------------|--------------|
| 뜻 | ~이다 / ~에 있다 | | |
| 원형 | be | | |
| 시제 | 현재 am, are, is | 과거 was, were | 과거완료 been |

과거분사는 have 뒤에 놓이게 되면 현재완료가 되는데, 이 또한 시제의 한 부분이 되지요. 시제와는 상관없으나 과거분사가 be 동사와 함께 쓰여 <be+p.p.>의 형식을 띄게 되면 수동태라는 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도표화시켜 정리해 보겠습니다.

| | | | | |
|-----|------|-------|--------------------|--------------------|
| 분사 | 현재분사 | 진행시제 | 현재진행 | am, are, is + 현재분사 |
| | | | 과거진행 | was, were + 현재분사 |
| | | | 미래진행 | will be + 현재분사 |
| | 과거분사 | 완료시제 | 현재완료 | have, has + 과거분사 |
| | | | 과거완료 | had + 과거분사 |
| | | | 미래완료 | will have + 과거분사 |
| 수동태 | 수동태 | 수동태현재 | am, are, is + 과거분사 | |
| | | 수동태과거 | was, were + 과거분사 | |
| | | 수동태미래 | will be + 과거분사 | |

지금은 어쩌면 위의 도표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보일 수 있겠지만, 찬찬히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직접 위의 도표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영어속담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를 가슴에 담아두고 하나 하나씩 차근히

이해하면서 느리지만 일관성 있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럼 한 발짝 더 분사에 다가가 볼까요?

1) 현재분사와 진행시제

앞에서 현재분사는 be 동사와 함께 쓰여 진행시제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지금 영어문법을 공부하고 있다'를 영어로 옮겨 보면, 'I **am studying** English grammar now.'가 됩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진행이고 studying 자체는 현재분사입니다. 가끔 현재분사와 현재진행을 혼동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는데, 둘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현재분사**가 있어야 **진행시제**를 만들 수 있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현재진행: 시제의 한 부분으로 be 동사 am, are is + 일반동사 ~ing

현재분사: 일반동사에 ~ing를 붙인 것 (동명사와 모양은 같음)

2) 과거분사와 수동태

현재분사는 진행시제를 만드는 하나의 역할만 하지만, 과거분사는 수동태와 완료시제를 만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be 동사와 과거분사>가 함께 쓰여 만들어지는 수동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문법의 '태'에는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능동적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반대로 수동적인 성향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기 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 일을 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도 이와 같아서 해석을 하면 '~하는'게 아니라 '~게 해지는' 또는 '~게 되는'이 됩니다. '~게 해진다'라고 하는 수동태의 공식은 <be 동사+과거분사(p.p.)>입니다. 수동태에도 시제가 있는데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낼 때는 be 동사와 과거분사 중 be 동사만을

시제에 맞춰서 변경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태의 현재형엔 am, are, is를 과거형은 was, were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조동사 will을 쓰고 조동사 다음엔 항상 동사원형이 따르니 be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문장의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수동태로 쓰이는 문장 중에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바로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가 있어요. 고대도시 로마는 '건설되고 만들어 지는'것이죠. 수동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것'이니 <be + 과거분사>의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한번 더 정리하고 들어가자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둘 다 be 동사와 함께 쓰이는데 각각 어떨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해요.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
|---------------------|
| be 동사 + 현재분사 → 진행시제 |
| be 동사 + 과거분사 → 수동태 |

3) 과거분사와 완료시제

현재분사가 be 동사와 함께 쓰여 진행시제를 만든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과거분사의 경우는 have동사와 함께 쓰여 완료시제를 만드는데, 완료시제에 대해서는 시제부분에서 좀 더 깊고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여기서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죠. <have+과거분사>는 현재완료, <had+과거분사>는 과거완료, <will have+과거분사>는 미래완료가 됩니다. 현재완료만 이해하면 과거완료와 미래완료는 쉽게 이해될 거니, 현재완료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완료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됩니다. 아래의 예문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죠.

- I have lived in South Korea for 20 years.
-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다.'가 됩니다. 여러분이 20년 전에 태어난 것은 과거시제가 되지만,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20년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시제가 현재완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미국대중가요의 제목을 예로 든 것인데, 해석을 하면 '내가 최근에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었나요?'가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한 적이 있다/없다'를 말하고 싶을 땐, <have + 과거분사>인 현재완료 시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 적'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기 때문에 현재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이해했다면 처음에 던진 질문, '분사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의 답을 이제는 말할 수 있겠지요. 분사는 **진행시제 <be 동사+현재분사>, 완료시제 <have+과거분사>, 수동태 <be 동사+과거분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성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3. 적극적인 현재분사 vs 소극적인 과거분사

여태까지 분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반드시 be 동사나 have동사를 만나야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No'입니다. 분사는 be 동사와 have 없이도, 혼자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분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과거분사에 대한 설명에서 과거분사는 be 동사를 만나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분사 자체는 수동의 뜻을 가지고 현재분사는 능동의 뜻을 가집니다. 능동태 수동태의 '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능동,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현재분사 : 능동의 의미(~하는)

과거분사 : 수동의 의미(~되는)

예를 들어 '떨어지다'는 뜻의 fall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현재분사 falling과 과거분사 fallen을 예로 들어 보겠어요. 현재분사가 능동의 의미라고 했으니 falling은 '떨어지는' 이 되고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으니 fallen은 '떨어진' 이 됩니다. 참고로 fall과 같은 자동사는 수동태 문장으로는 <be + p.p.>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재분사는 진행의 의미, 과거분사는 완료의 의미로 구분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아래 두 개의 문장을 봅시다.

- Look at the **falling leaves**. vs The **fallen leaves** are on the ground.

첫 번째 문장의 falling leaves는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들이고 (진행), 두 번째 문장의 fallen leaves는 '떨어진 나뭇잎' 즉 '낙엽'이 됩니다 (완료). 각각의 분사는 뒤에 오는 명사 leaves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falling leaves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fallen leaves를 좋아하나요? 어떤 것을 좋아하더라도 현재분사는 '능동'이고 과거분사는 '수동'이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더 들어 보도록 하죠. '끓이다'라는 동사 boil을 두 토막 내어서 현재완료를 사용한 'boiling water'와 과거분사가 들어간 'boiled water'는 어떻게 다를까요? 현재분사는 ~하는, 과거분사는 ~되는이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전자는 '끓는(끓고 있는) 물' 후자는 '끓인 물'이 되겠지요. 여러분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개발, 발전하다'라는 develop의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각각 '발전하는'과 '발전된'이라는 뜻으로 'developing country'는 '발전하고 있는 나라', 즉 '개발도상국'을 뜻하고, 'developed country'는 '발전된

나라'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진국'이 됩니다.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결국 '하느냐'와 '되느냐'의 문제이고 이는 해석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특히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다 사용 가능한데,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하는 점은 분사로 변하기 이전의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상황에 따른 올바른 분사를 선택할 수 있고 문법적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돼요. 아래 도표의 동사와 각각의 분사의 뜻을 잘 살펴봅니다.

| 동사 | 현재분사 | 과거분사 |
|-------------------|---------------------|------------------|
| bore 지루하게 하다 | boring 지루함을 주는 | bored 지루해 하는 |
| confuse 혼란시키다 | confusing 혼란을 주는 | confused 혼란스러운 |
| depress 우울하게 만들다 | depressing 우울하게 하는 | depressed 우울한 |
| disappoint 실망 시키다 | disappointing 실망시키는 | disappointed 실망한 |
| excite 흥분시키다 | exciting 흥분시키는 | excited 흥분하는 |
| exhaust 지치게 하다 | exhausting 지치게 하는 | exhausted 지친 |
| frustrate 좌절시키다 | frustrating 좌절시키는 | frustrated 좌절한 |
| move 감동을 주다 | moving 감동을 주는 | moved 감동받은 |
| please 기쁘게 만들다 | pleasing 기쁨을 주는 | pleased 기쁜 |
| satisfy 만족시키다 | satisfying 만족시키는 | satisfied 만족한 |
| shock 충격을 주다 | shocking 충격을 주는 | shocked 충격 받은 |
| surprise 놀라게 하다 | surprising 놀라움을 주는 | surprised 놀란 |
| tire 피곤하게 만들다 | tiring 피곤하게 만드는 | tired 피곤한 |

언뜻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구별은 하는가**

되는가의 구별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감정과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구별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 I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들어간 문장 중에서 자신에게 비교적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 I am boring. vs I am bored.
- I am interesting. vs I am interested.
- I am tiring. vs I am tired.

첫 번째는 'I am bored.'가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내가 지루함을 주는(boring) 사람인 것 보다는 차라리 뭔가에 지루함을 받는 것이(bored) 그나마 더 낫지 않은가요? 두 번째의 경우는 현재분사 interesting 이 들어가는 문장이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에 흥미를 가지는(interested)것보다는 이왕이면 남에게 흥미를 주는(interesting) 재미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내가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드는(tiring) 사람이면 좀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조금 피곤한(tired) 상태가 되는 것이 더 낫겠지요.

자, 그러면 이즈음에서 분사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분사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shocked 면'이 아니라 'shocking 면' 이라고 제대로 라면 이름을 지었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 할 수 있겠지요. 라면이 너무 매워서 충격을 주니까 shocking 이라는 현재분사를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shocking 면'을 먹고 나면 그 매운 맛에 충격을 받았지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I am shocked.'(나 충격 받았어.)가 됩니다.

4. 무늬만 똑 같은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구별하자

1) 동명사는 명사, 현재분사는 형용사

분사는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형용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안다면 현재분사와 똑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동명사와의 확실한 구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동명사 부분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지만, 여기서 잠시 동명사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동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겉모습은 동사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속은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주어는 문장에서 '은, 는, 이, 가'로, 목적어는 '~을, ~를, ~에게'로 해석됩니다. 보어는 한자로 '補語'라고 쓰는데, '補'라는 이 한자어는 '보충할 보'예요 그런 뜻에서 보어는 보충해 주는 것으로, <A = B>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야 해요. 'You are happy.'와 'I am a student.'에서 happy와 student는 각각 you와 I를 보충 설명해 주고, <you = happy>, <I = student> 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보어가 됩니다. 다시 동명사의 본론으로 들어가 동명사가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예를 잠시 살펴보도록 해요.

- **Studying** English grammar is fun.
- I enjoy **watching** TV.
- My hobby is **collecting** action figures.

'영문법 공부는 재미있어.'로 해석되는 첫 번째 문장에서 studying은 동명사예요. 해석을 하면 '공부하는 것은'이 되니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주어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나는 TV 시청을 좋아한다.'로 해석되는데 watching이 '시청을' 혹은

'시청하는 것을'로 해석이 되어서 명사적 용법 중 목적어로 봅니다. '내 취미는 액션 피규어 수집이야.'로 해석되는 세 번째 문장의 collecting은 내 취미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하고 있는, 공식으로 만들면 <my hobby = collecting>이 되기에 보어가 됩니다.

다음으로 형용사로 사용되는 현재분사의 예를 보겠습니다.

- Can you see the **crying** baby? (너는 울고 있는 아기가 보이니?)
- This is a **boring** story. (이것은 지루한 이야기야.)
- The news is **heart-breaking**. (그 소식은 마음을 아프게 해.)

'어떠한'에 해당되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수식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명사 없이 형용사 단독으로 쓰여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예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현재분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여 각각 '울고 있는 아기' 그리고 '지루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한정적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이라는 현재분사 'heart-breaking' 은 뒤에 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여 뉴스가 어떠한지를 설명해주는 서술적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비록 근원을 동사에 두어 출발한 현재분사와 동명사는 모습은 똑같으나 성격이 판이하다는 걸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나요? **동명사는 명사, 현재분사는 (과거분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이점만 명심하세요.

2) 동명사는 사물의 용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물의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면 **동명사**, 그렇지 않으면 현재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sleeping bag'의

뜻을 알고 있나요? 혹시 sleeping이 bag을 수식한다고 봐서 '잠자는 가방'으로 해석하진 않겠죠? 잠을 자는 주체는 사람이나 동물처럼 생명체만이 가능한 행위예요. 'sleeping bag'은 '침낭' 입니다. 여기서 sleeping은 동명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bag의 용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bag의 용도가 sleeping하는데 사용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동사+~ing>형이 사물의 용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면 동명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어떤 sleeping이 동명사와 현재분사로 사용되는 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 sleeping baby vs sleeping pill

둘 중에서 sleeping이 '잠자고 있는'으로 해석되는 것은 첫번째의 'sleeping baby'입니다. 'sleeping pill'은 '잠자고 있는 알약'이 아니라, 알약인 pill의 용도가 잠을 자기 위해 쓰이는 것이기에 수면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pill의 앞에 오는 sleeping이 동명사입니다. 반면에 잠자는 아기인 'sleeping baby'의 sleeping은 현재분사가 되는데, 이는 sleeping이 baby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smoking room'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현재분사와 동명사의 구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smoking room'의 smoking이 현재분사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동명사라고 보나요? 일단 해석을 해봐야 하겠지요. smoke가 동사로서 '담배를 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담배를 피는 용도의 room은 '흡연실'이 되겠지요. 그래서 smoking은 동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smoke가 '연기가 나다'라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경우 'smoking room'은 '연기가 나고 있는 방'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smoking이 '~하는'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뒤에 있는 명사 room을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에, 여기서는 현재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smoking room'과 같은 경우처럼 문맥에 따라 동명사가 되는 '~ing'형도 있고, 현재분사가 되는 '~ing'형도 있습니다. 꼭 해석을 해서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분 짓기 바랍니다.

5. 우리 주변의 분사

영어 격언 중에 'Nothing is complete unless you put it in final shape.'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속담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과 비슷한 의미인데,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할 때, 종종 인용되는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암기한 영문법의 여러 요소가 단순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쓰인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이상적인 공부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학습한 공부의 내용이 100%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교실 안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분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이 책으로 이해한 분사를 책 밖의 실제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외래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 분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콩글리쉬가 되어 버린 단어를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여름이면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냉커피 많이 마시죠. 커피숍에서는 주로 냉커피라는 말 대신 '아이스 커피'라고 하던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ice coffee'는 콩글리쉬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iced coffee'가 되어야 해요. ice는 명사, 동사로 다 사용되는 단어인데, 명사일 때는 '얼음' 동사일 때는 '얼음을 넣어 차갑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얼음커피'가 아닌, 얼음을 넣어 (또는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어진** 커피이니, 'iced coffee'가 되어야 해요. 커피는 차갑게

만들어진 것이니 수동의 의미가 되어 과거분사 iced 가 사용됩니다. 콩글리쉬 'ice coffee'처럼 여러분이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스크램블 에그 (scramble egg)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사를 제대로 배웠더라면 'scrambled egg'로 고쳐서 말해야 해요. scramble이라는 동사는 '휘저어 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scrambled egg'는 달걀에 우유를 조금 넣고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 기름을 두른 팬에서 재빨리 휘휘 저어 **만들어진** 요리에요. 과거분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휘저어 섞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수동의 의미니까 scrambled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scrambled egg'보다는 담백하게 삶은 계란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겠지요? 삶은 계란은 '삶다'라는 동사 boil에서 출발하는데, **삶아진** 이라는 수동의 의미이니까 boil을 과거분사로 만들어 'boiled egg'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가 들어가는 먹거리의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 동사 | 과거분사 | 음식명 |
|------------------|--------------------|-----------------------------|
| fry 기름에 튀기다 | fried 기름에 튀겨진 | fried chicken 후라이드 치킨 |
| grill 석쇠에 굽다 | grilled 석쇠에 구워진 | grilled beef 석쇠에 구운 쇠고기 |
| bake (오븐에) 굽다 | baked (오븐에) 구워진 | baked potato (오븐에) 구운 감자 |
| smoke 훈제하다 | smoked 훈제가 되어진 | smoked salmon 훈제연어 |

위의 음식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과거분사가 사용된 영단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stuffed animal', 'ATM', 'built-in closet'을 가지고 더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곰돌이 인형 같은 동물모양의 봉제 인형들 있죠? 이러한 봉제인형엔 솜이나 천 조각을 채워 넣어 놓는데, 영어로 'stuffed animal' 이라고 합니다. 동사 stuff 는 '채워 넣다'라는 뜻이 있는데 봉제인형은 솜이 **채워진**, 수동의 뜻이니 과거분사 stuffed를 쓰는 거예요. 'ATM'은 여러분이 현금이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하는 현금지급기로, 'Automated Teller Machine'의 약자입니다. teller는 '은행창구 직원'을 말하고 machine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기계'란 뜻이지요. 은행직원이 하는 입출금 등의 업무를 기계가 대신해 줘서 'teller machine'이 만들어졌어요. '자동화 하다'라는 동사 automate를 과거분사화 시킨 이유는 기계는 '자동화 한' 능동의 물건의 아니라 '자동화 **되어진**' 수동의 매체이기에 automated가 됩니다. 다음으로 build의 과거분사 built가 들어간 '붙박이장'인 'built-in closet'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명사 closet은 '벽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built-in closet'은 가구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일반 가구와 구별되는 것이 'built-in'이라는 거예요. 벽이나 건물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것을 'built-in'이라 하는데, 벽장이 **만들어진** 것이니 수동의 의미가 되어 과거분사인 built를 쓰는 겁니다.

이외에도 **사용되어진** 자동차의 'used car'(중고차)나, '정규방송의 진행을 **깨뜨리고** 나오는 뉴스'인 'breaking news'(속보) 처럼 분사는 여러분 주위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문법입니다. 이러한 짧은 단어 속의 분사 말고도 종종 인용되는 속담이나 격언 속에 들어 있는 분사를 들여다 볼까요.

- Don't wake a sleeping lion.
- A barking dog never bites.
-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 Don't cry over spilt milk.
- A watched pot never boils.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마라.'는 첫 번째 문장은 큰 어려움 없이 해석될 것 같네요. 사자는 잠을 자는 것이니 현재분사 sleeping을 사용했고, 두 번째 속담 속의 '짖는 개'도 역시 능동의 의미이니 현재분사 barkin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짖는 개는 절대로 물지 않는다.'라는 속담은 우리속담의 '빈 수레가 요란하다'와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될 거예요. 세 번째 격언에도 '구르는'이란 의미의 현재분사 rolling이 들어가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로 해석하고, 세 번째는 직역하면 '쏟아진 우유를 두고 울지 마라.'는 뜻이 되는 데, '엷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동사 spill은 '쏟다'라는 의미이며 <spill-spilt-spilt>의 불규칙 동사입니다. 우유는 쏟아지는 것이니 수동의 의미라 과거분사 spilt가 되어야 하지요. 마지막 속담을 직역하면 '지켜 봐지는(수동이니 watched입니다) 냄비는 결코 끓지 않는다.'가 되는데, 물이 빨리 끓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주전자를 계속 응시한다고 해서 물이 더 빨리 끓지는 않겠지요. 의역하면 '서둔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속담을 외워뒀다가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면서 계획한 만큼의 진척이 없거나,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 때 'A watched pot never boils.'라고 자신에게 큰소리로 말해 보세요.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서둔다고 해서 빨리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참을성을 가지고 느리지만 천천히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날이 꼭 올 겁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VI. 문장구조와 5 형식

영어에서 문법은 마치 스포츠 종목에서의 룰과 같아요. 야구 경기에 규칙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경기가 엉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1 회전도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규칙이 없기 때문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배우는 전세계 사람들 모두 이 규칙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이 있다고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고 해도 자세히 따져보면 그 구조는 생각보다 무척 단순해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 몇 가지 혈액형으로 나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 문장도 결국은 다섯 가지 문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영어의 다섯 가지 문형을 억지로 달달 외우려고만 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어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 돼요.

지금부터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문형을 비교해 가면서 가장 간단한 문장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까지 문장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1. 문장의 구조

1) 척 보고도 알 수 있는 영어의 다섯 가지 문형

영어의 다섯 가지 문형은 문법에 있어서 약도나 네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요.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다섯 가지 문형은 영어 문장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므로 잘 익혀 두어야 해요. 우리가 피자를 만들 때도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이 있듯이, 영어 문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영어

문장의 골격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살펴보면,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 보기로 해요.

| 형식 | 문장구조 | 약자 | 동사종류 |
|------|----------------------------|-----------|--------|
| 1 형식 | (주어 동사) | S V | 완전자동사 |
| 2 형식 | (주어 동사 주격보어) | S V SC | 불완전자동사 |
| 3 형식 | (주어 동사 목적어) | S V O | 완전타동사 |
| 4 형식 |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 S V IO DO | 수여동사 |
| 5 형식 |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 | S V O OC | 불완전타동사 |

위의 공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위의 공식에 문법 용어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 국어 같은 느낌이 든다 고요? 사실, 이 다섯 가지 문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법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예요. 이 짧은 공식들 속에는 대부분의 문장 규칙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 원칙은 기본이 되고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 두어야 해요.

2) 문장의 뼈대 세우기

① 1 형식: [주어(S)+동사(V)]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거뜬히 문장이 되어요. 주어와 동사 이외의 것들은 꾸며 주는 역할만 할 뿐, 이들이 없어도 문장이 되죠.

-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

[주어] [동사] [수식어구: 수식어가 장황하게 길어도 꾸며주는 역할]

② 2 형식: [주어(S)+동사(V)+주격보어(SC)]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해 주는 보어를 필요로 해요. 보어가 되는 것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등이 있어요.

- She looks happy.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주어] [동사]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

③ 3 형식: [주어(S)동사(V)+목적어(O)]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두려고 해요.

- I have a new car. (나는 새로운 차를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을, 를]

④ 4 형식: [주어(S)+동사(V)+간접 목적어(IO)+직접 목적어(DO)] 주어와 동사 외에 목적어를 두 개나 가지려고 합니다. '주는 동사'라는 뜻으로 흔히 <수여동사>라고 부릅니다.

- He gave me a bicycle. (그는 나에게 자전거 한대를 주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에게] [직접 목적어: ~을]

⑤ 5 형식: 주어와 동사만으로 내용이 부족해서 목적어와 보어를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만으로는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I found the novel interesting. (나는 그 소설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

2. 문장의 요소

1) 개성이 뚜렷한 8 품사

영어의 다섯 가지 문형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 기본적인 문법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형을 이해하기 위한 정도로만 간략히 설명

할게요. 문장 속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으며, 하나 하나가 문장 안에서 제각기 하는 일이 다르며, 개성 또한 뚜렷해요. 각각 8 개의 품사가 있기에, 이것을 <8 품사> 라고 불러요.

- ① 동사: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go, eat, run, know, speak ...)
- ② 명사: 사람, 사물 등의 이름으로 쓰이는 말 (girl, John, computer, courage ...)
- ③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말 (she, you, they, that ...)
- ④ 형용사: 어떤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말 (new, bad, pretty, happy ...)
- ⑤ 부사: 때, 장소, 모양 등을 나타내는 말 (always, usually, sometimes, here ...)
- ⑥ 전치사: 명사, 대명사 앞에 와서 도와주는 말 (at, in, on, from, with ...)
- ⑦ 접속사: 앞과 뒤의 말들을 연결해주는 말 (and, but, if, or ...)
- ⑧ 감탄사: 감탄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 (oh, ah, alas ...)

이러한 8 품사는 전부 <-사>로 끝납니다. 다음에 살펴볼 문장 요소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뼈같이 중요한 문장의 요소들

우리 몸에도 뼈가 중요하듯이 문장에도 뼈가 있습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이 중요한 뼈들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① 주어: 동작의 주체,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 갑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해석할 때 보통 제일 먼저 해요. 우리말로 하자면, <은, 는, 이, 가> 등이 붙죠. 그리고 형태는 단어, 구, 절 등의 형태로 사용이 되어요. 다음 예문을 살펴 봅시다.

- Fire burns. [명사] (불이 탄다.)

- I remember you. [대명사] (나는 당신을 기억한다.)
- To see him makes me happy. [부정사] (그를 만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한다.)
- Keeping a diary is a difficult thing. [동명사] (일기를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What I want is your help. [명사절]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도움이다.)

② 동사: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이다, ~하다> 로 해석되죠. 아래 예문을 살펴 봅시다.

- She i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
- They play tennis. (그들은 테니스를 친다.)

③ 목적어: 동사가 무엇을 하는지 말해줍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구), 대명사, 동명사(구), to 부정사구, 명사절 등이 사용되어요. 우리말 해석으로는 <~을(를), ~에게> 로 해석되어요. 다음 예문을 봅시다.

- I like music very much. [명사] (나는 음악을 매우 좋아합니다.)
- I love you. [대명사] (나는 당신을 좋아해.)
- I didn't know what to do. [명사구]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동명사구]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 I would like to buy some roses. [부정사구] (나는 몇 송이 장미꽃을 사고 싶다.)
- I wonder if you join the meeting. [명사절]

(나는 당신이 그 모임에 참석할지 궁금하다.)

- She killed herself. [재귀 대명사] (그녀는 자살했다.)
- He lived a happy life. [동족 목적어] (그는 행복하게 살았다.)

④ 보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보어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명사, 형용사, 동명사, 명사절 등이 보어 자리에

사용되어요. 우리말 해석으로는 앞의 동사와 결합하여 <~다>로 해석되어요. 아래 예문을 보세요.

- You are a student. [명사] (당신은 학생이다.)
- It is she that saw Tom yesterday. [대명사] (어제 탐을 본 사람은 그녀이다.)
- He looks sad. [형용사] (그는 슬퍼 보인다.)
- Seeing is believing. [동명사]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 The fight itself is very thrilling and exciting. [현재분사]
(그 싸움은 매우 스릴이 있고 흥미진진하다.)
- She seemed satisfied with the outcome. [과거분사]
(그녀는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 To live is to fight. [부정사] (사는 것은 전쟁이다.)
- The fact is that I see nothing about it. [명사절]
(그 사실은 내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 I made her sad. [형용사] (나는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어.)
- My mother made me what I'm now. [명사절]
(내 어머니는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다.)

⑤ 수식어: 앞의 문장 주 요소 이외에도 수식어가 있는데, 이것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문장의 완성도를 높여 준답니다.

- I will stay here. [부사] (나는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
- John is in the office. [전치사구] (존은 사무실에 있다.)
- Please reach me when you get to Korea. [부사절]
(한국에 도착하면 나에게 연락 주세요.)

3) 곳곳에 뿌려져 있는 구와 절: 이제 구와 절에 대한 정의도 알아 둡시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구와 절은 같아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구: 주어와 동사가 없는 단어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① 명사구: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쓰여요.

- To see her is to love her. (그녀를 보면 곧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 We are learning how to speak Chinese. (우리는 중국어 말하기를 배우고 있다.)

② 형용사구: 명사를 수식 혹은 be 동사의 보어로 쓰여요.

- The lily on the table is beautiful. (테이블 위에 있는 백합은 아름답다.)
- It will be of some use. (그것은 뭔가 쓸모 있겠지.)

③ 부사구: 동사를 수식해요.

- I met him last Saturday. (나는 지난 토요일에 그녀를 만났다.)
- Our school stands on the hill. (우리 학교는 언덕 위에 있다.)

(2) 절: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을 말해요.

①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여요

- What one needs is money. (필요한 것은 돈이다.)
- That is what I want to say. (그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다.)

② 형용사절: 명사를 수식해요.

- He is a boy that I want to see. (그는 내가 만나고 싶은 소년이다.)
- It is the hometown where I was born. (그곳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다.)

③ 부사절: 조건, 때 등을 나타내요.

- If you turn left, you'll see the hill. (왼쪽으로 돌면 언덕이 보일 것이다.)

- When she was young, she was weak. (그녀가 어릴 때에는 몸이 약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문법 사항들은 영어 문장의 기본 토대가 되는 원칙들입니다. 영어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 구와 절을 잘 구별해야 해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물방울을 이루고, 이 물방울이 모여서 더 큰 물방울을 이루는 것과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의 다섯 가지 문형에 대한 문장 규칙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해요.

3. 다섯 가지 문형에 관한 문장 규칙

1) 1 형식 문형 규칙: 1 형식 문장은 영어의 기본이에요. 1 형식만 잘 이해하고 활용해도 기본적인 영어는 구사할 수 있어요. 1 형식 동사는 보어가 필요 없기에 완전 자동사라고도 불러요. 그 규칙들은 다음과 같아요.

① 1 형식 동사들은 종종 부사 혹은 전치사구와 함께 쓰입니다. 아래 예문을 봅시다.

- He drives. (그는 운전한다.)
- He drives slowly. (그는 천천히 운전한다.)
- He drives with the maximum speed. (그는 최고 속도로 운전한다.)

첫 번째 예문은 의미상 부족한 요소는 없지만 다소 무미건조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대조적으로 두 번째 예문은 부사 slowly 를 써서 그가 운전하는 방식을 덧붙여 말해줘요. 세 번째 예문은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 + 명사구>를 써서 더 풍부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죠. 이와 같이, 1 형식 구조는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벽하지만 종종 부사와 전치사구와 함께 쓰이곤 합니다.

② 대표적인 1 형식 동사들을 살펴보면, go, come, appear, arrive, arise, happen, occur, take place, exist, live, walk, run, jump, sleep, disappear, die 등이 있습니다.

③ 1 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 전치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보통 속어로 외워 두세요. agree with (~에 동의하다), apologize for (~에 대하여 사과하다), apply for (~에 지원하다), belong to (~에 속하다), care for (~을 돌보다), consist of (~으로 구성되다), deal with (~을 다루다), depend on (~에 의존하다),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등이 있습니다.

2) 2 형식 문형 규칙: 2 형식 동사들은 주로 주어의 상태 혹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며, 완벽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보어를 필요로 해요.

① 다음 예문에서 사용된 2 형식 동사들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의미가 약간 달라요. 간단한 예문을 보아요.

- He is skinny. (그는 말랐습니다.)
- He became skinny. (그는 마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주어의 상태에 변화 없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 되지만, 두 번째 예문은 '상태가 바뀝니다'. '안 마르지 않았었는데 말라 버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be 동사는 상태를 유지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 become 은 '다른 상태로 변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② 대표적인 2 형식 동사들은 be, become, look, get, feel, seem, remain, taste, smell 등이 있어요.

③ be 동사는 상태변화가 없어요.

- She is a musician. [명사] (그녀는 음악가다.)
- Tom is brave. [형용사] (탐은 용감하다.)
- This book is of no use. [형용사구] (이 책은 유용하지 않다.)
- The class was over at four. [부사] (수업이 4 시에 끝났다.)

④ become 류 동사들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와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냄.

- My brother became chubby. (내 동생은 포동포동해졌다.)
- My dream came true. (내 꿈이 실현되었다.)
- It's getting warm.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
- I went mad. (나는 화가 났다.)
- The leaves turned red. (잎이 붉게 물들었다.)

⑤ continue, hold, keep, remain 등의 동사는 '~한 상태를 유지하다', 혹은 '계속해서 ~하다'의 의미를 포함해요.

- He remains silent. (그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 The promise holds good. (그 약속은 유효하다.)

⑥ look, feel, smell, sound, taste 등의 동사는 감각동사로 형용사 보어를 취해요.

- The flower smells sweet. (그 꽃은 달콤한 향이 난다.)
- This may sound weird, but it is true.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 This apple tastes bitter. (이 사과는 쓴 맛이 난다.)
- She looks lovely in her new uniform.

(새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사랑스러워 보인다.)

- His hands feel warm. (그의 손은 따뜻한 느낌이 든다.)

※ 보어 자리에 부사를 쓰게 될 경우, * She turned palely. (X) (그는 창백하게 돌았다.) 부사 palely 를 쓰게 되면, 동사 turned 를 수식하게 되요. 그렇게 되면 '창백하게 돌다'라는 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이 어색하게 되지요. 따라서 보어 자리는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와야 해요.

⑦ 유사보어란 1 형식 완전 자동사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 He died a beggar. [유사보어: 명사] (그는 거지로 죽었다.)
- He died rich. [유사보어: 형용사] (그는 부자로 죽었다.)

위 예문의 동사 die 는 보어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인데, 명사 혹은 형용사가 와서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을 유사보어라고 해요.

3) 제 3 형식 문형 규칙: 3 형식에 쓰인 동사는 완전 타동사로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뒤따르게 되요.

① 3 형식 동사는 like, want, have, read, help, attend, hold 등이 있습니다.

② 1, 2 형식 문형과 달리 3 형식 문형에서는 타동사가 등장해요. 자동사와 타동사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고,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아래 예문을 통해 간단히 비교해 보아요.

- I walk. (자동사)
- I hit him. (타동사)

동사 walk 는 주어의 행위가 다른 대상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입니다. 하지만 hit 동사는 주어의 행위가 다른 대상(him)에게 전해집니다. 반드시 행위의 대상이 필요하죠. 따라서 목적어를 바로 취해요.

4) 제 4 형식 문형 규칙: 4 형식 동사를 <수여동사>라 하고, 이 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가져요.

① 직접 목적어의 종류에 따른 유형

- She gave me a small present. [명사]
- He taught me how to use a copy machine. [명사구]

• Tom told me that he would come back soon. [명사절]

② 4 형식 문형을 3 형식 문형으로 전환: <주어+동사+간접 목적어+직접 목적어>를 <주어+동사+직접 목적어+(**전치사**+간접 목적어)>로 전환 가능해요. 이때 사용되는 전치사는 문장에 사용되는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to, for, of 등이 사용 돼요.

㉠ 전치사 to 를 동반하는 동사: give, offer, sell, show, teach 등

• He offered her his business card. → He offer his business card **to** her.

(그는 나에게 명함을 주었다.)

㉡ 전치사 for 를 동반하는 동사: buy, make, cook, order 등

• May I buy you something cold? → May I buy something cold **for** you?

(당신에게 뭔가 차가운 것을 사드릴까요?)

㉢ 전치사 of 를 동반하는 경우: ask, beg, inquire, request 등

• I asked her some questions. → I asked some questions **of** her.

(내가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③ 3 형식 문장에만 사용되는 동사: explain(~을 설명하다), introduce(~을 소개하다), propose(~을 제안하다), suggest(~을 제안하다) 등은 직접 목적어 하나만 가지며, 우리말의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은 <to+간접 목적어>의 형태인 전치사구로 처리를 해요.

㉠ 전치사 to 를 쓰는 경우

• I am supposed to explain that **to** him.

(나는 그에게 그것을 설명하기로 되어 있다.)

• Let me introduce you **to** my supervisor.

(당신을 제 상사에게 소개시켜 드리죠.)

㉞ 전치사 of 를 쓰는 경우

- I beg an errand **of** you. (당신에게 심부름을 부탁하겠습니다.)

㉟ 전치사 with, for, to 등을 쓰는 경우

- They provided me **with** food. (그들은 나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5) 5 형식 문형 규칙: 5 형식 문형에 사용되는 동사는 타동사 중에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타동사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등도 여기에 속하죠. 5 형식 문장의 핵심은 주어에 주안점을 두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① 5 형식 동사들: make, find, keep, leave, consider, name, elect, believe, have, let, help, see, watch, hear 등등.

② 다양한 형태의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는 명사, 형용사, 원형 부정사, to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명사절, as 명사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 I found her a good business woman. [명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동격]

(나는 그녀가 좋은 사업가라는 것을 알았다.)

- He made me sad. [형용사: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 (그는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 We saw him play golf last night. [원형 부정사: 사실]

(우리는 지난밤에 그가 골프 치는 것을 보았다.)

- I'll ask her to return your call. [to 부정사: 요청의 의미]

(그녀가 당신에게 전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 I heard her name called. [과거분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관계]

(나는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들었다.)

- I regarded her as a good doctor. [as 명사: 자격의 의미]

(나는 그녀를 좋은 의사로 간주했다.)

- We made the company what it is today. [명사절]

(우리는 회사를 오늘의 회사로 만들었다.)

③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 능동 관계인 경우 보어는 to 부정사나 현재분사가 사용되며, 수동 관계인 경우는 과거 분사를 주로 사용해요.

④ 능동 관계: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인 경우를 살펴 보아요.

- Please have him contact me. [능동 관계 → 동사원형]

(그가 나에게 연락하도록 해라.)

- I saw her play the piano. [능동 관계 → 동사원형]

(나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았다.)

- I saw him strolling with his mother. [능동 관계 → 현재분사]

(나는 그가 그의 엄마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

- I want him to arrange a conference room. [능동 관계 → to 부정사]

(나는 그가 회의실을 마련하기를 원한다.)

위의 예문처럼, 사역동사(have, let, make 등)의 경우 목적어가 주로 사람(행위자)인 경우, 목적격 보어는 동사원형을 쓰고, 지각동사(see, hear, watch 등)의 경우는 동사원형 혹은 현재분사(~ing)가 와요. 또한 동사(want, need, enable, expect, require, force, encourage, allow)의 경우 목적격 보어는 to 부정사를 써요.

⑤ 수동 관계: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인 경우를 살펴 보아요.

- I found the car damaged. [수동 관계 → 과거분사]

(나는 그 차가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Please order this zone cleared up. [수동 관계 → 과거분사]

(이 구역이 정돈 되도록 지시를 하세요.)

- I had my camera fixed. [수동 관계 → 과거분사]

(나는 카메라를 수리 받았다.)

- I saw her bitten by a dog. [수동 관계 → 과거분사]

(나는 그녀가 개에 의해 물리는 것을 보았다.)

- I want my car repaired. [수동 관계 → 과거분사] (내 차를 수리했으면 한다.)

- I got the car washed. [수동 관계 → 과거분사] (나는 세차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관계이면, 동사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과거분사(p.p.)의 형태를 취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영어에서 만들어지는 문형은 다섯 가지예요.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영어 문장은 이 다섯 가지 문형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고 해도 자세히 따져 보면 그 구조는 무척 단순합니다. 문장이 긴 경우는 기본적인 뼈대가 있고 거기에 살이 붙어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건물도 다 뜯고 나면 남는 것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뿐이듯이, 우리가 보는 영어 문장도 잡다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만 남게 되어요. 뭐든지 뼈대를 알면 대략적인 생김새를 알 수 있는 법이니깐요. 또한 문장 안에서 구와 절을 하나의 단어처럼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장이 나오더라도 쉽게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번 장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Ⅶ. 부정사

동사는 문장에서 <주어가 ~하다>라고 설명해주거나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이 장에서는 더 나아가 **준동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사라는 조상을 가진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주로 다루는데요. 동사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 셋 모두는 동사적 성질을 여전히 지니고 있어요. 이미 동사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면서도요. 그럼 품사가 또 뭐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품사는 쉽게 생각하면 문장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에 따라 나뉘지는 것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말한답니다. 정리하자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기에 완전한 동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사에 준한다**라고 일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는 준동사의 성향은 무엇일까요? 의미상 주어를 가진다거나,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으며, 태를 나타낼 수도 있거나(능동과 수동) 때에 따라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도 있지요.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킨 것이기에 문장에서 **본동사**와는 다른 것이 **준동사**입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개념만 떠올리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해서 **우승, 준우승**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거 같네요. 이 장에서는 동사에서 출발한 삼총사 가운데 부정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1. 부정사의 개념

부정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학창시절부터 영어공부를 하면서 적어도 to 부정사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정사라는 큰 범위 안에

바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느끼는 to 부정사와 원형부정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 부정사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일까요?

원래 문장을 이루는 문장요소들은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름을 붙여주려는 순간 부정사는 역할이 다양하여 하나의 이름을 정하기가 어렵게 되지요. 부정사에서 부정은 아니다를 뜻하는 no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을 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닐 부(不)'와 '정하다'(定)를 의미한답니다. 달리 말하면 부정사는 너무 다재 다능하여 **동명사가 하는 명사 역할, 분사가 하는 형용사 역할**에다 플러스 알파 **부사의 역할**까지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부정사의 형태는 쓰임새에 따라 <to+동사원형>이거나, to가 없이 **동사원형, <to+have+과거분사(p.p.)>, <to+be+과거분사(p.p.)>**처럼 다양할 수 있어요.

2. 원형부정사와 to 부정사

위에서 설명했듯이 두 가지의 부정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to+동사원형>의 형태를 가지는 to 부정사와 그 형태에서 to를 빼버리고 동사원형만 남아있는 원형부정사가 있어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원형부정사부터 알아보지요. 원형 부정사는 동사원형의 형태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동사원형과는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문장에서는 언제 쓸까요?

1)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는 동사원형과 모양이 같아요. 마치 동명사와 현재분사가 똑같이 동사원형에 ~ing를 붙인 것처럼 말이에요. 또 동사의 3단 변화를 다들 아시죠? 예를 들어 like라는 좋아하다란 일반동사의 3단 변화형은 <like(현재)-liked(과거)-liked(과거분사)>입니다. 여기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양은 같아요.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문장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령 두 번째는 과거형을 나타내는 동사라서 과거의 의미로 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세 번째는 단독적으로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수동을 나타내기 위해 be 동사와 결합하거나, 완료형을 나타내기 위해 have 동사나 때로는 have 동사의 변형된 형태들과 합해져서 비로소 동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명사를 꾸며주거나,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하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는 다른 길을 가지요.

이와 같이 원형 부정사도 동사원형과 모양이 같기는 하지만 문장 내에서의 쓰임새가 전혀 다릅니다. 원형부정사가 쓰이는 예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시키는 동사를 아시나요? **have, make, let** 이렇게 말씀 드리면 감이 오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역동사(시키는 동사)+사람 목적어+동사원형>이렇게 영어시간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동사원형이 모양만 동사원형일 뿐 실제로는 to 부정사에서 to가 떨어져 나간 원형부정사입니다. 다음으로 지각동사라고 하지요. see, hear, feel, taste 같은 동사 다음에 또한 사람목적어가 온 뒤에 선택적으로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동사원형+ing)가 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각동사+사람 목적어+원형부정사/현재분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help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어가 '~하는 것을 돕다'라는 문장구조에서 <**help+사람목적어+to+동사원형/원형부정사**>의 형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help동사는 to 부정사도 원형부정사도 둘 다 목적보어로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를 돕다'로 쓰이는 3형식의 구조에서도 <**help+to 부정사/원형부정사**>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정리해볼까요?

• He had her go there. (그는 그녀가 거기에 가도록 시켰어.)

이 문장에서 had가 시켰다이고 그녀로 하여금 거기 가도록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had라는 시키다는 동사로 인해 목적어 her 다음엔 원형부정사로 go가 오게 되었어요.

• I saw her dance/dancing. (나는 그녀가 춤추는 것을 보았어.)

이 문장에서도 보았다라는 see의 과거형 saw 때문에 사람목적어 다음 dance라는 원형부정사도 가능하며 현재분사 dancing은 진행적 순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dance와 dancing이 다 가능하며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각각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 I will help you to do/do it. (나는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걸 도울게요.)

'~가 ~하는 것을 돕다'라는 문장의 구조에서 do를 택하든 to do를 택하든 의미의 차이는 없답니다. 실제로는 원형부정사를 더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장에서 쓰이는 원형부정사는 모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보어이기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원형부정사보다 영어 문장에서 더 자주 만나게 되지만 쓰임새가 더욱 다양한 to 부정사를 살펴볼게요.

2) to 부정사: 모두에게 익숙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to 부정사의 기본 형태는 <to+동사원형>입니다. 동사 앞에 to를 붙인 to 부정사는 그야말로 변신의 귀재입니다. 어떨게요? 품사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문장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to 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다양하게 해냅니다. 먼저 동명사 역할과 같은 문장에서의 명사 역할을 to 부정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④ 명사적 to 부정사: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것으로서 ~하는 것 또는 ~하기로 해석됩니다. 명사의 역할은 크게 주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보어의 역할로 나뉩니다.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주어**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원래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는 것은 **그냥 명사이거나 대명사**를 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역할을 바로 to 부정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문을 살펴볼게요.

- To make a map is difficult. (지도를 만드는 일은 어려워.)

이 문장에서 'to make a map'을 주목해보세요. 동사 make는 지금까지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make앞에 to가 붙어 to 부정사가 되면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령 동사 앞에 위치해서 주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to make'가 'a map'이라는 목적어를 가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석해볼까요? 지도를 만드는 것은 어려워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다음은 똑같은 형태이지만 다른 자리에 쓰이면서 다른 품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같은 형태의 to 부정사가 want라는 동사 다음에 쓰이면서 '~하기를'이라는 뜻으로 동사의 목적어로 기능하게 됩니다.

- I want to make a map. (나는 지도를 만들고 싶어. 나는 지도를 만들기를 위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주어와 보어가 되는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자유롭게 취사선택이 가능한 편이에요. 하지만. 목적어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도 취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녹차(green tea)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커피(coffee)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동사들이 자기 뒤에 to 부정사나 동명사 중 무엇을 목적어로 가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친구들 가운데 정말 아무하고나 잘 지내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like(좋아하다)와 같은 동사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별 의미 차이 없이 다 쓸 수 있지만 forget(잊다)이나 remember(기억하다)와 같은 동사는 뒤에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오거나 동명사 올 경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want(원하다), wish(바라다), decide(결정하다)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며, 동명사를 선호하는 동사들도 따로 있어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핵심은 want 동사가 '~하기를 원해'라는 문장을 완성할 때 '~하기/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원래는 동사인 것을 목적어로 변형할 때 'to make'를 선택해야지 making을 쓰시면 안돼요. 어쩌다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한 경우에 want 다음이나 need(필요로 하다)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의 동명사는 사실 <to+be 동사+과거분사(p.p.)>로서 능동이 아닌 **수동**의 의미인데 이 형태를 **동명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This radio needs to be fixed/fixing.'과 같은 문장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 라디오는 '수리를 필요로 해 또는 수리될 필요가 있어.'가 될 겁니다. 앞에서 설명하기를 need동사의 목적어로 to 부정사와 동명사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to 부정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의미 상 라디오는 **스스로 수리(능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수리되는(수동)** 것이므로 단순 부정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없고 수동의 의미인 <to+be 동사+과거분사(p.p.)>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문장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동 부정사를 동명사로도 대체 가능한 문법**이 있습니다. 대체 가능하다는 것은 수동 부정사 꼴이나 동명사를 둘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to 부정사의 다양한 형태를 의미에 따라 다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까지와 똑같은 구문 'to make a map'은 마지막으로 be 동사나 become(되다), get(되다)와 같이 동사만으로는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조금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 My hope is to make a map. (내 희망은 지도를 만드는 것이야.)

이 예문에서 'My hope'(나의 희망)이 주어이고 '~~이다'를 의미하는 것이 본동사인 be 동사인데 이까지만 있다면 내 희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가 다 드러나지 않아 문장에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어떨게요? 사실 내 희망은 'a teacher'(교사/선생님)이란다. 이렇게 명사보어가 가능하듯이 내 희망은 만드는 것이야 이렇게도 가능하니 여기서 'to make a map'은 명사로서 보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석해볼까요? 내 희망은 지도 만들기야 이렇게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I'm a student.'(나는 학생이야)와 'I'm happy.'(나는 행복해)는 둘 다 am이라는 be 동사에서의 부족분이 발생하니까 먼저 명사인 'a student'와 형용사인 happy가 보충을 한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에 불완전 자동사로 분류되는 be 동사가 부족분이 있을 때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이지 부사는 안 된다 이런 걸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다시 적용해볼게요.

'My hope is to make a map.'에서는 주어인 'My hope'(내 희망)가 'to make a map'(지도를 만드는 것)과 동격이네요. 심지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to make a map'이 명사적 보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형용사적인 보어가 명사보어와는 어떻게 다른지 다음에서 바로 구별해보도록 할게요.

② 형용사적 to 부정사: 형용사적 to 부정사에도 두 가지 큰 쓰임새가 있는데요.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쓰이게 되는 것은 먼저 '~하는, ~할'로 해석되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과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단순하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를 살펴보아요. 이 경우는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하는 이해하기가 쉬운 형용사적 쓰임새예요. 문장을 통해 살펴보아요. 'I need a place to live in.' 이 문장에서는 'to live'(살 수 있는, 살)라는 의미로 바로 앞의 'a place'(장소)를 꾸며줍니다. 가령 'I need a good place'에서는 good이 좋은 이라는 의미로 앞에서 place를 꾸며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형용사는 보통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 You are the last person to tell a lie.

(당신은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야. → 당신은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야.)

이 문장에서도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쉽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성향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할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보어로 쓰이는 to 부정사입니다. 조금 전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공부는 연결되니까요. 좀 전에 '나의 희망'과

'지도를 만드는 것'이 동등한 것이기에 명사 보어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주어진 문장을 조금만 변형해보도록 할게요. 가령 'My hope'를 I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 I am to make a map. (나는 지도를 만들려고 해.)

이제 주어가 바뀌었을 때의 차이를 생각해볼게요. 좀 전에 주어는 'my hope'였기에 'to make a map'과 동격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I는 사람인데 'to make a map'이 주어를 보충해주는 하지만 서로 동격이 아니면서 **상태나 상황**을 설명해주게 됩니다. 조금 전 'I'm a student.'(나는 학생이야)와 'I'm happy.'(나는 행복해)를 상기할 순간이네요. 두 문장에서 'a student'는 명사보어라면 happy는 happiness(행복)이 아닌 **형용사**로 be 동사를 보충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I를 보충하는 것은 형용사적 쓰임새로 'to make a map'이 해내지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be to용법이 완성된답니다. be 동사와 결합된 to 부정사 즉, <be+to+동사원형>으로 문장이 구성되는데 이것을 'be to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해석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제일 쉽겠지요.

• You are to follow the rules. (당신은 그 규칙을 따라야 해요.) [의무]

• We are to meet at 6. (우리는 6시에 만날 예정이야.) [예정]

• You must work hard if you are to go home.

(당신이 귀가할 작정이라면 열심히 일해야 해요.) [의도]

• I am not to be a princess. (나는 공주가 될 수는 없어.) [가능]

• He was never to see his mother again.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어.) [운명]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해석이 주어진 문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익히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문장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해석이 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해석이 있어요.

③ 부사적 to 부정사: 부사의 쓰임새는 너무 방대합니다. 기본 틀은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전체를 꾸며주는 경우 부사적 쓰임새라고 하지요. 여기서는 주로 많이 쓰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쓰임새를 위주로 살펴볼게요.

• I'm happy **to meet** you.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원인: 감정의 원인]

• I worked hard **to pass** the exam.

(나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목적: ~하기 위해서]

• He grew up **to be** a teacher. (그는 성장해서 교사가 되었어.) [결과: ~해서 ~하다]

• I will help you **to have** enough time.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당신을 도울게요.) [조건: ~라면]

• She is ugly **to apply** for the beauty contest.

(그녀는 미인대회에 나가기에는 못 생긴 편이다.) [정도, 한정: ~하기에는, ~한]

• **To do** my best, I could not pass the exam. = Though I did my best, I could not pass the exam.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는 없었어요.) [양보: ~이더라도]

• He must like her **to do** that. (그런 행동을 하다니 그 사실로 볼 때 그가 그녀를 좋아했음이 분명해.) [판단의 근거: ~하다니 ~임에 틀림없어]

3. 다양한 to 부정사

to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에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to+동사원형>이라는 단순부정사로 앞 동사와 같은 시제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완료부정사의 형태로 앞의 동사보다 앞선 시제 즉 더 오래 된 지난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한 능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순부정사와 함께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부정사도 있습니다.

① 단순 부정사: <to+동사원형>으로 됩니다.

• He seems **to be** a great athlete. (그는 위대한 운동선수인 것처럼 보여요.)

문장에서 그가 보이는 것도 현재이고 위대한 운동선수인 것도 현재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seems와 'to be' 사이 시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지금까지 배운 단순부정사를 쓰시면 됩니다.

② 완료 부정사: <to+have+과거분사(p.p.)>로서 이 형태는 문장에서 <to+have+과거분사(p.p.)>로 표현하는 부분이 전체 문장의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 He seems **to have been** a great athlete. = It **seems** that he **was** a great athlete.

(그는 과거에 위대한 운동선수였던 것 같아.)

이 두 문장에서 그가 보이는 것은 **현재**인데 지금 그가 위대한 운동선수처럼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위대한 운동선수였던 것처럼**' 지금 짐작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의 두 문장에서 seems가 현재이고 was가 과거인 것이 보이시지요?

이제 시제를 넘어 태를 살펴볼게요. to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시간적 표현**뿐만 아니라 **능동/수동**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느냐, 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로 태의 의미가 짐작되시나요? 한다는 것은 바로 능동, 된다는 것은 수동입니다.

③ 능동형태의 to 부정사: 기존의 부정사의 형태로 <to+동사원형>입니다.

④ 수동 to 부정사: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to 부정사의 형태는 <to+be+과거분사(p.p.)>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 To continue (계속하기)/ To be continued (계속되기) 이 예문에서 앞의 것은 기존의 to 부정사로서 능동을 의미하고 뒤의 것은 <to+be+과거분사(p.p.)>의 형태로서 수동을 나타내지요.

• I waited for the car to be repaired. (나는 그 차가 수리되기를 기다렸다.) 이 예문에서는 강조된 부분인 'to be repaired'은 '수리하기를'과 '수리되기를' 둘 중 어떤 의미인가요? 정답은 '수리되기를'이기에, 수동의 의미입니다. 예전부터 배웠던 능동과 수동의 쓰임새를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to 부정사로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더불어 <to+have+been+과거분사(p.p.)>로 완료수동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 He seems to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

(그는 과거에 한국에 흥미를 느꼈던 것처럼 보인다.)

이 문장에서는 보이는 것은 현재이지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수동의 의미에 덧붙여 관심을 지금 가지는 것이 아닌 과거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해야 하며 'to have been interested'는 수동과 완료를 동시에 나타내는 완료수동의 형태입니다.

4. to 부정사에서 주의해야 할 것

① 가주어와 진주어

• To lean out of the window is dangerous. (창문에서 기대는 행동은 위험해.)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to lean'입니다. 여기서의 주어는 뒤에 'out of the

window'까지 수반하면서 주어가 되기에는 너무 긴 부분이라 영어 문장에서 깔끔해 보이는 문장이 아니게 만듭니다. 영어에서는 긴 부분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에 더 깔끔해 보이는 문장 표현을 위해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고 원래의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가주어) it으로 자주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 It is dangerous to lean out of the window. (창문에 기대는 것은 위험해요.)

이 예문은 해석상으로는 위 문장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진짜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넣고 원래 문장에서의 주어는 꾸며주는 말과 함께 뒤로 보내서 완성됩니다.

②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 I think to study English hard wise.

(나는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문도 주어는 I, 동사는 think, 목적어가 조금 길어지면서 'to study English hard'이고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것이 목적보어로서 wise가 됩니다. 위에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원래 타동사 think의 목적어는 'to study English hard'이지만 목적어가 길기에 역시 원래 목적어 자리는 it으로 대신하고 진짜 목적어(=진목적어)를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장이 되겠지요.

- I think it wise to study English hard.

③ 주격보어와 목적격보어

위에서 배운 to 부정사의 명사적 쓰임새 가운데 보어적 역할을 더 자세히 분류할 수도 있어요.

- To do good is to be happy.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주격보어]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to do good'인데 be 동사인 is가 부족하기에 'to be happy'가 주어를 보충해주게 됩니다.

• I want my children to learn French.

(나는 우리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기를 원해요.) [목적격보어]

여기서는 주어는 I, 목적어가 'my children'인데 'to learn French'(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은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my children'(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어가 아닌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어가 되는 것이지요. 두 문장에서의 차이가 감지되시나요? 이 차이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④ 3형식을 이끄는 to 부정사와 5형식이 되는 to 부정사

3형식과 5형식으로 나타나는 to 부정사에서의 조금의 차이를 비교할게요.

㉠ 3형식 to 부정사

want(원하다), hope(바라다), expect(기대하다), plan(계획하다), ask(요청하다), advise(조언하다), order(명령하다), require(요구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주어 + 동사 + to 부정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럴 때는 3형식이 됩니다. to 부정사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이지요.

• I want to go now. (나는 지금 가기를 원해.)

여기서 'to go'는 want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 5형식 to 부정사

ask(요청하다), advise(조언하다), encourage(장려하다), allow(허락하다), cause(야기하다), enable(가능하게 하다), force(강요하다), order(명령하다), require(요구하다), tell(말하다/시키다)와 같은 동사들은 <주어+동사+목적어+to

부정사>로도 가능합니다.

• I asked her to go. (나는 그녀가 갈 것을 요청했다.)

이런 문장에서는 특히 해석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주어가 I, ask가 동사, 나는 요청만 할 뿐 실제로 'to go'해서 가는 사람은 바로 목적어인 her입니다. 여기서 her은 목적이면서 동시에 'to go'의 의미상주어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문장에서 'to go'는 her이라는 목적어를 보충해주기에 전체적으로 문장은 3형식이 아닌 5형식이 되지요. 위에 언급된 다른 동사들도 이런 5형식 구조로 쓸 수 있어요. 바로 이어서는 금방 언급된 새로운 이야기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⑤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여러분께서는 주어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주어는 문장의 본동사의 행동이나 상태의 주인이 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어는 주어인데 의미상주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어 앞에 의미 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바는 일반적인 그 동안 언급했던 주어와는 다른 것이라는 느낌을 들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준동사들은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동사의 성질을 정의 내리자면, 동사처럼 앞에는 주어를 거느리고 뒤로는 목적어나 보어를 가지고 싶어하며 부사의 꾸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지닌다고 해도 완벽한 동사는 아니기에 동사와 똑 같이 주어를 가질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일반적 주어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게 돼요. 먼저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게요. 이 때는 일반적인 형용사와 to 부정사가 올 경우인 **일반적인 경우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문장에서 나올 때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살펴볼게요. to 부정사가 가지는 의미상 주어를 문장에서 표시하는 방법은 <for+목적격>을 to 부정사 바로 앞에 붙이면 됩니다. 예문에서 확인해볼까요?

- It is **difficult** **for me** **to solve** it. (내가 그것을 풀기는 어려워요.)

해석에서 감지되듯이 'to solve'의 의미상, 즉 해석상 주어가 바로 'for me'입니다. 일반적인 주어였다면 I로 표현했겠지만 이 문장에서는 difficult가 일반적인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이면서 필요한 것이 문장에서 본동사가 가지는 주어가 아니라 'to solve'의 의미상 주어이기에 'for me'를 씁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를 확인해볼게요. 이 때는 <of + 목적격>을 to 부정사 바로 앞에 붙여요.

- It's **kind** **of him** **to help** me. (그가 나를 도운 것은 친절한 일이에요.)

여기서는 'to help'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him'이라고 하지 않고 'of him'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의 형용사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kind(친절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준동사는 동명사의 경우 의미상주어를 나타내는 방법이 to 부정사와는 다르고 분사는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문장에서 표현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분사의 경우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거나 주어, 목적어를 보충해 줄 때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랍니다. 이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따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⑥ 부정사의 부정 표현: to 부정사나 부정사를 부정해서 not의 의미를 더해주려고 하면 to 부정사나 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여주면 됩니다.

- I want you **to go**. (나는 당신이 가기를 원해.)

이 문장에 부정의 의미를 더해, 즉 to 부정사를 부정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I want you **not to go**. (나는 당신이 가지 않기를 바래.)

⑦ 대부정사

앞에 이미 to 부정사가 나왔을 경우에 동사의 반복을 피하고 더 간략한 표현을 위해서 <to+동사원형> 대신에 to만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 He wanted **to become** an actor but was not allowed **to**.

(그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배우가 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얻지 못했어요.)

이 문장을 원칙대로 표현하자면 'He wanted **to become** an actor but was not allowed to become an actor.'이 되겠지만 이미 앞에서 이 부분 'to become an actor'이 표시되어 의미상 해석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두 번을 적어줄 필요가 없어서 to만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o 부정사에서 숙어처럼 외워주면 좋을 표현으로 부정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⑧ 숙어처럼 외워주면 좋을 표현들

<형(부)+enough to+동사원형> (~할 만큼 ~한)

- She is old **enough to watch** this movie.

= She is **so** old **that** she **can** watch this movie.

(그녀는 충분한 연령이 되어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too+형(부)+to+동사원형> (너무~해서 ~할 수 없는)

- He was **too** tired **to drive** home. = He was **so** tired that he **couldn't** drive home.

(그는 너무 피곤해서 집까지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to be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해서)

< to be sure > (확실히)

< to conclude > (결론을 내리자면)

< to make matters worse > (설상가상으로/안 좋은 일에 또 안 좋은 일이 겹치는)

< not to mention > (말할 것도 없이)

< needless to say > (말할 필요도 없이)

< so to speak > (말하자면)

< strange to say >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to 부정사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이어서 또 다른 준동사인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Ⅷ. 동명사

1. 개념

위에서 배운 부정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면 동명사는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to 부정사의 세 가지 쓰임새가 떠오르시나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동명사**는 형용사, 부사의 역할이 아닌 **명사의 역할**을 거의 유사하게 해냅니다. 다만 동명사의 특이한 점은 to 부정사가 하지 못했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보아요.

2. 동명사 만드는 법과 역할

동명사란 이름이 그대로 말해주듯이 원래는 동사였지만 동사원형에 ~ing를 더해주는 동사의 형태 변화로 이제는 명사가 된 것을 칭합니다. 문장 안에서 명사로 기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짐작 하시는 것처럼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① 기본적인 동명사 만들기: 동사원형에 ~ing를 붙여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지닌 채 문장에서는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② 동명사의 역할: 역할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볼게요.

세 가지 역할 가운데 주어의 역할은 매우 간단합니다.

• Studying is difficult.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이 문장에서 studying은 공부하기/공부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is의 주어역할을 해냅니다.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의 경우에는 studying 대신에 'to study'도 가능합니다만 이왕이면 둘 중 굳이 주어를 고르라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to 부정사보다는 더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어 역할이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똑같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라도 동사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 우리는 to 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I gave up **playing** tennis. (나는 테니스 치는 것을 포기했어.)

이 문장에서 'to play'가 아닌 playing이 동사 'gave up'의 목적어로 선택된 이유는 바로 'give up'(포기하다)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의미와 연관된 목적어로 동명사를 선택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어나 보어에서와는 달리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는 함부로 to 부정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구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타동사의 목적어와 조금 다른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살펴볼게요. 이것이 바로 동명사만의 독특한 쓰임새입니다.

• I'm afraid of **going** there. (나는 거기에 가는 게 두려워요.)

이 예문에서 전치사 of 다음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미 전치사가 온 상태이므로 바로 뒤에 다시 'to go'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어의 역할(명사 보어)을 살펴볼게요. 주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 부분은 to 부정사로 바꿔 쓰셔도 괜찮습니다.

• My hobby is **watching** movies. (내 취미는 영화보기야.)

예문에서 취미가 영화보기이기에 부족한 be 동사의 의미를 동명사 형태로 watching이 보충해주고 있지요. 이 때에도 예문에 쓰인 watching 대신에 'to watch'를 쓰셔도 됩니다.

3. 다양한 동명사

to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동사의 성질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에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단순동명사의 형태로 동사와 같은 시제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완료동명사의 형태로 앞의 동사보다 앞선 시제 즉 더 오래 된, 지난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한 능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순동명사와 함께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 수동동명사도 있습니다.

① 단순 동명사: <동사원형+~ing>로 됩니다.

• I enjoy **meeting** new people.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즐기지.)

이 문장에서 내가 즐기는 것도 현재이고 만나는 것도 현재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enjoy와 meeting 사이에 시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지금까지 배운 단순동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② 완료 동명사: <having+과거분사(p.p.)>로서 이 형태는 문장에서 완료동명사로 표현하는 부분이 전체 문장의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 She denied **having stolen** the ring.

= She **denied** that she **had stolen** the ring.

(그녀는 자신이 반지를 훔쳤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문장에서 그녀가 부인했다는 사실은 과거인데 'having stolen'이라는 완료동명사로 쓴 것은 훔친 행동은 부인했다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행했던 일임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부인했다 보다 한 시제 더 과거는 뭘까요? '**더 이전에 빵을 훔쳤던**' 사실을 그녀는 '**과거에 부인했다**'란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해석 상 의미가 같도록 다시 문장을 풀어 쓴 것을 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제를 넘어 태를 살펴볼게요. 단순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시간적 표현뿐만 아니라 **능동/수동**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to 부정사에서 설명했듯이 한다는 것이 바로 능동, 된다는 것이 수동입니다.

③ 능동형태의 단순동명사: 기존의 동명사의 형태로 <동사원형+~ing>입니다.

④ 수동 동명사: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명사의 형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단순수동으로 <being+과거분사(p.p.)>와 완료수동의 형태인 <having+been+과거분사(p.p.)>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 She denies **being pleased** by his present.

(그녀는 그의 선물로 인해 자신이 기쁘다는 것을 부인한다.)

• She denies **having been pleased** by his present.

(그녀는 자신이 그의 선물로 인해 과거에 기뻐했다는 것을 부인한다.)

위의 문장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지금 선물을 받아 기쁘다는 현재이자 수동**'의 의미를 드러내지만 이와 달리 아래 문장에서는 '**그녀가 부인하는 것은 현재**'이지만 '**선물을 받고 기뻐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지금 부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수동과 완료**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주세요.

4. 동명사에서 주의해야 할 것

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에서의 행동의 주체를 밝힐 때에도 기본 원칙은 의미상주어가 문장에서 이미 드러나는 경우나 일반적인 사람이 동명사의 의미상주어가 될 때는 굳이 의미상 주어를 문장에서 따로 밝히지 않아요. 부정사 부분에서와 공통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따로 의미상 주어를 밝힐 때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원칙은 동명사 바로 앞에 전치사 없이 소유격만 쓰거나 전치사 없이 목적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요.

- I tried going there. (나는 시험 삼아 거기에 가보려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어 I가 문장의 주어인 동시에 go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 Would you mind my/me opening the door? (내가 문을 열어도 될까요?)

여기서는 open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주어가 바로 둘 중 하나의 선택이 되는 'my/me'로 드러나고 있어요.

② 동명사의 부정 표현: 동명사를 부정하는 not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동명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을 쓰면 됩니다.

- He suggested playing soccer this week. (그는 이번 주에 축구를 하자고 했어요.)

이 문장에 부정의 의미를 더해서 그는 '이번 주에는 축구를 하지 말자고 했어요'로 변형시키려면 'He suggested not/never playing soccer this week.'로 표현할 수 있어요.

③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문을 중심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만 다루어볼게요.

[On/upon ~ing: ~하자마자]

- On arriving, he was tired. (도착하자마자 그는 피곤해졌다)

[go (on) ~ing: 계속 ~하다]

- They went on walking. (그들은 계속 걸었어요)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 She was busy in studying. (-그녀는 공부하느라 바빠요)

[be worth ~ing: ~할만한 가치가 있다]

- The show is worth watching. (그 쇼는 볼 만 했어요.)

[cannot help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 I cannot help crying. (나는 울 수 밖에 없어요)

[look forward to ~ing: ~하기를 기대하다]

-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나는 당신을 만날 것을 기대해요)

[spend 시간/돈 (on/in) ~ing: ~하면서 시간이나 돈을 소비하다]

- I spend my free time (on/in) walking. (나는 여가시간에는 산책을 하면서 보내요)

[have difficulty (on/in) ~ing:~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 I have difficulty (in)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는데 어려워요)

[be used to ~ing: ~하는데 익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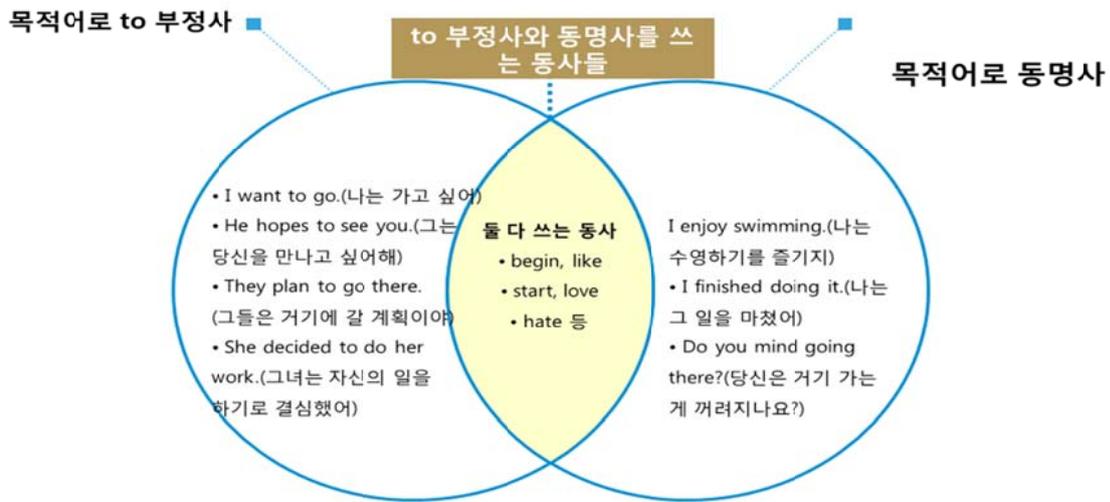
- I'm used to reading. (나는 책을 읽는데 익숙해요)

이 표현들은 모두 동명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숙어처럼 쓰이는 것이니 암기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④ 동명사와 명사의 구별: 동명사와 명사는 둘 다 문장에서 주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서 공통적이에요. 하지만 명사 앞에는 관사, 즉 a, an, the, 형용사가 올 수 있는 반면에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없지요. 타동사를 동명사로 바꾼 것이 올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지만 대신에 명사와 달리 앞에 관사, 즉 a, an, the, 형용사가 올 수 없답니다.

5. 동명사와 부정사의 비교

기본 원칙은 to 부정사는 **현재 또는 미래적**, 동명사는 **과거적**이라는 성향을 기억해봐요. 이 원칙에 의거하면 각각의 동사를 외우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위의 표를 참조해서 동명사와 부정사를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① 목적어로 동명사와 부정사를 다 쓰는 동사, 하지만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는 위 표에서의 가운데 만나는 지점, 수학적으로 교집합 부분의 동사들입니다. 이 동사들도 단순한 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으며, to 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를 큰 의미차이 없이 아무것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쓰는 동사: 위 표 오른쪽에서처럼, want(원하다), hope(바라다), plan(계획하다), promise(약속하다), decide(결정하다), expect(기대하다)와 같이 의미가 모두 미래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동사들 다음에 목적어를 to 부정사와 동명사 가운데 선택하자면 이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fail(실패하다), afford(~할 여유가 있다), refuse(거절하다), learn(배우다)와 같이 동사 자체에서 미래의 느낌이 없는데도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동사들은 나올 때마다 하나씩 기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동사들도 당연히 단순한 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③ 동명사만 목적어를 쓰는 동사: 위 표에서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주로 과거적인 시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런 동사 다음에 단순한 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지만, '하는 것, ~하기'라는 어구가 필요할 경우에 문법적으로는 to 부정사도 가능하지만 동사의 성격상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가진답니다.

④ 목적어로 동명사와 부정사를 다 쓰는 동사, 하지만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경우

| | |
|--------------------|---|
| try (노력/시도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tried doing it (나는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다.) • I tried to do it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
| remember (기억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remember going there. (나는 거기에 갔던 것을 기억해.) • I remember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앞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
| forget (잊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forgot going there. (나는 거기에 갔던 사실을 잊었어) • I forgot to go there.(나는 거기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어) |

위 표를 더 자세히 알아보게요. 위의 표의 핵심은 제시된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둘 다 올 수는 있지만 각각의 경우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try는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가 올 경우와 to 부정사가 올 경우에 '시도하다', '노력 하다'라는 의미로 구분해서 해석됩니다.

• I tried **doing** it. (나는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다.)

이처럼 동사 뒤 동명사가 오면 '가볍게 시도해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 I tried **to do** it.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 문장은 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가져오면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remember(기억하다)를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 I remember going there. (나는 거기에 갔던 것을 기억해.)

여기에서는 '과거에 이미 갔던 사실을 기억한다'는 의미이지요.

- I remember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앞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이렇게 사용할 시에는 '아직 가지 않았으며, 미래에 거기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forget(잊다)동사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 I forgot going there. (나는 거기에 갔던 사실을 잊었어.)

- I forgot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어.)

이 둘의 이렇게 다른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6. 인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Frozen, 2013)을 통해 배운 문법 적용해보기

우리말로 번역된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본 적이 있나요? 사운드트랙이 매우 훌륭하다는 일반적인 평가와 내용과 구성 부분에서는 다소 과대평가된 경향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는 남겨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요.

① 『겨울왕국』에서 드러나는 동명사

- We would like your blessing of our marriage!

(우리 결혼에 대해 여왕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 It'll be like landing on a pillow, hopefully.

(베개 위에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죠, 희망사항이 그렇다는 뜻이죠.)

② 『겨울왕국』에서 드러나는 부정사

- Let it go. (그냥 내버려 둬.)

- Go back to sleep. (가서 더 자렴.)

-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눈 사람 만들고 싶지.)
- You must learn to control it. (너는 마법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해.)
- Shush. I'm trying to listen. (쉿,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지.)
- I don't want to hurt you.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정사, 동명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어요. 한번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욕심일 것입니다. 천천히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보도록 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토끼의 날람이나 성급함이 아닌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는 거북이의 느림과 끈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요.

IX. 동사의 시제

이번 장에서는 동사의 시제에 대해 알아보까요? 시제는 때를 말합니다. 시제는 **말하고자 하는 시점**(reference point)이 언제인가? 이미 예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건지, 현재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려는 지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즉 내가 밥을 '먹었다'는 건지, '먹는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먹을 것이다'라는 건지 말하려는 시점에 따라서 시제를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을 기본시제라고 해요. 영어의 시제는 이 기본시제를 더 세분하여 총 12가지 시제로 나눌 수 있어요. 시제에서 기억할 점은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바로 **동사의 형태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사의 12시제>

| 기본 | 현재 | 과거 | 미래 |
|----------|----------------------------------|---------------------------------|---------------------------------------|
| 시제 | I eat an orange. | I ate an orange. | I will eat an orange. |
| 진행 | 현재진행 | 과거진행 | 미래진행 |
| 시제 | I am eating an orange. | I was eating an orange. | I will be eating an orange. |
| 완료 | 현재완료 | 과거완료 | 미래완료 |
| 시제 | I have eaten an orange. | I had eaten an orange. | I will have eaten an orange. |
| 완료 | 현재완료진행 | 과거완료진행 | 미래완료진행 |
| 진행 시제 | I have been eating an orange. | I had been eating an orange. | I will have been eating an orange. |

영어에 12가지의 시제가 있다고 이것을 무조건 암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2시제의 개념은 단순히 동사 형태만 보고 명칭을 붙인 거니까요. 예를 들면 <will(미래) + have been(완료) + v-ing(진행)>인 미래 완료 진행은 그 명칭으로 인해 더 혼란스럽기만 할 수 있어요. 미래 완료 진행은 어떤 일이 완료되었다는 건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건지 또 앞에 붙은 미래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더 알쏭달쏭 혼동되지요? 따라서 여기서 동사의 형태 변화를 통해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제 공부를 시작해 보아요.

이 장에서는 동사의 시제 12가지 중 완료진행시제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9가지 동사의 시제들을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1. 기본시제

1)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 **반복되는 동작**,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나 격언 등을 말할 때 사용해요. 주의할 점은 현재 시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동작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고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재 시제는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이나 일에**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셔.'처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나 일에는 현재 시제를 쓰지요. 동사의 형태는 주어가 3인칭 단수(he, she, it)일 때 동사에 (e)s를 붙여요. 그 외의 주어일 때는 동사원형을 사용합니다. 단, be 동사는 인칭에 따라 am, are, is로 표현해요.

- This train **goes** from Busan to Seoul. (이 기차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동사에 (e)s를 붙여 goes가 되었어요. 또한 동사 go, do처럼 -o로 끝나는 단어 이외에도 동사가 -s, -sh, -ch, -x로 끝나는 단어의 뒤는 es를 붙여요. 이유는 이 단어들이 /s/ 계열의 발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철자 e를 첨가하여 발음을 매끄럽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ex) passes, finishes, misses, watches, relaxes 등

※ 현재 시제는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frequently, everyday 등의 시간부사와 자주 쓰여요.

①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

- He **lives** in Paris. (그는 파리에 살고 있어요.)
- It **is** very hot this afternoon. (오늘 오후는 매우 더워요.)

② 규칙적인 습관이나 반복되는 행위

- She **gets** up at 6:00 every morning.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는 규칙적인 습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고,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동사 뒤에 s를 붙여 gets가 되었어요.

- I usually **eat** cereal for breakfast. (나는 보통 아침식사로 시리얼을 먹어요.)

③ 불변의 진리 및 일반적 사실

-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요.)
- Four times two **is** eight. (4 곱하기 2는 8입니다.)

④ 미래 시제의 대응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when(~할 때), while(~하는 동안), as soon as(~하자마자), before(~하기 전에), after(~한 후에) 등이 있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if(만일~한다면), unless(만일~하지 않는다면), once(일단~하면) 등이 있어요.

- When I **finish** my work, I **will go** to the movies with her.

(내가 일을 끝내면, 난 그녀와 함께 영화 보러 갈 거야.)

내가 앞으로 일을 끝내게 되면, 그때 그녀와 영화를 보러 갈 거라는 미래의 일을 나타내므로 주절은 미래 시제인 'will go'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나타내는 미래 부사절에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하였기에 'will finish'가 아닌 **finish**가 되어야 해요.

- If it **rains** tomorrow, we **will stay** at home.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집에 있을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면 집에 있을 것이라는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주절은 미래 시제인 'will stay'가 쓰였어요. 그러나 조건 부사절에선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로 표현하므로 'will rain'이 아닌 **rains**가 사용되었어요.

좀 더 알아보을까요?

- ①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절이라도 부사절이 아닌 **명사절이나 형용사절**로 사용되면 원칙적으로 미래를 말할 때 **미래 시제**를 써요.

- Do you know when he **will leave**? (넌 그가 언제 떠날지를 아니?)

여기서 'when he will leave'는 know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에요. 그가 앞으로 언제 떠날지를 묻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명사절의 시제는 미래를 사용해요. 참고로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답니다.

- I have to know the time when she **will leave**.

(난 그녀가 떠날 시간을 알아야 해.)

'when she will leave'는 명사 'the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쓰였어요. 그녀가

앞으로 떠날 시간 즉 미래를 말하므로 형용사절의 시제는 미래를 썼습니다. 그러나 실생활 영어 특히 구어체에서는 명사절 혹은 형용사절에서도 미래를 현재 시제로 나타내고 있어요.

② 왕래(come, go), 발착(leave, start, arrive) 등을 나타내는 동사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해요.

- The movie **starts** in 5 minutes. (영화는 5분 후에 시작합니다.)
- I **go** to Paris next week. (나는 다음 주에 파리에 가요.)

2) 과거 시제

과거에 끝난 일, 과거의 상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표현해요. 동사의 형태는 과거형의 경우 규칙변화와 불규칙변화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규칙변화를 하는 동사는 주로 동사원형에 (e)d를 붙이고, 그 외의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동사는 그때그때 외워주세요!

※ 과거를 나타내는 말(yesterday, last+시간표현, ~ago, in+과거연도)이 있으면 과거 시제를 써야 해요.

① 과거에 행했던 일

- I **visited** my parents last weekend. (나는 지난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 뵈었어.)

② 과거의 상태

- I **was** very sick yesterday. (난 어제 무지 아팠어.)

③ 역사적 사실

-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한국 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어.)

※ 규칙 동사의 3단 변화

① 규칙 동사의 과거, 과거분사(p.p.)은 동사원형에 ed를 붙여요. 여기서

과거분사는 수동태 <be 동사+과거분사(p.p.)>와 완료형

<have/has/had+과거분사(p.p.)>에서 사용되므로 꼭 기억해두세요!

· <talk-talked-talked> <visit-visited-visited> <wash-washed-washed>

② e로 끝나는 단어는 d만 붙여요.

· <like-liked-liked> <hope-hoped-hoped> <change-changed-changed>

③ <자음 +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여요.

· <try-tried-tried> <study-studied-studied> <cry-cried-cried>

④ <모음 + y>로 끝나는 동사는 ed만 붙여요.

· <play-played-played> <stay-stayed-stayed> <enjoy-enjoyed-enjoyed>

⑤ <단모음 + 단자음>으로 끝나는 1음절 동사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여요.

· <plan-planned-planned> <stop-stopped-stopped> <drop-dropped-dropped>

⑥ 2음절 이상 동사로 뒤에 강세가 있으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여요.

· <occur-occurred-occurred> <admit-admitted-admitted>

※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

① A-A-A형

· <put-put-put> <cut-cut-cut> <let-let-let> <read-read-read>

(발음 주의! read[ri:d]-read[red]-read[red]로서 형태는 같지만 발음은 달라요.)

② A-B-A형

· <run-ran-run> <come-came-come> <become-became-become>

③ A-B-B형

· <buy-bought-bought> <teach-taught-taught> <find-found-found>

④ A-B-C형 (동사의 과거형은 하나인데 be 동사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어가 단수일 때 was, 주어가 복수이거나 you일 때 were이예요.)

· <be-was/were-been> <begin-began-begun> <forget-forgot-forgotten>

3) 미래 시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 의지, 예측**을 말할 때 미래시제로 표현해요.

동사의 형태는 <will + 동사원형>, <be going to + 동사원형>으로 나타내요.

여기서 미래형에 쓰이는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be going to'의 going에는 '가다'라는 의미는 없답니다.

※ 미래를 나타내는 말(tomorrow, next+시간표현, soon, shortly 등)과 잘 어울려요!

① 미래의 일이나 의지, 추측, 예정 등

• I **will go** to your birthday party **this weekend**.

(이번 주말 너의 생일 파티에 갈게.)

• She **will be** in the office **tomorrow**. (그녀는 내일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 He **is going to travel** in America for two months **next spring**.

(그는 내년 봄에 두 달 동안 미국에 여행할 예정이야.)

② will vs 'be going to'의 차이점

will과 'be going to'는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있지만, 다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추측**할 때는 **will**과 **'be going to'**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버스가 곧 도착할거 같아.'라고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말할 때 'The bus **will arrive** soon.'이나 'The bus **is going to arrive** soon.'으로 둘 다 쓸 수 있어요. 단, **지금 상황을 근거해서**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은 주로

'be going to'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 지금 하늘은 온통 먹구름이 끼어 금방이라도 후드득 비가 쏟아질 거 같아요. 이렇게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에 근거해서 곧 비가 올 거라고 추측할 때는 'It's going to rain soon.'(곧 비가 오려나 봐.)라고 말합니다. 둘째, **will**은 말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즉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해요. 이것도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저기 앞서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보따리를 들어 올리시려고 애쓰며 '에구구, 오늘따라 짐이 무거워 들 수조차 없구먼.'이라고 하시네요. 이를 본 마음씨 고운 우리 친구들은 당장 달려가서 '제가 도와 드릴게요.'라고 말하겠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 'I'll help you.'라고 하면 됩니다. 할머니께서 보따리가 무거워 들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즉시 도와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때는 'be going to' 대신 **will**를 쓴답니다. 셋째, 이미 하기로 **결정, 계획되어 있는 미래의 일은 'be going to'**를 사용해요.

- I'm going to move to Seoul next week.

(나는 다음 주에 서울로 이사를 갈 거야.)

다음 주에 서울로 이사를 가려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will를 쓰지 않고 'be going to'로 표현해요.

③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 <am/are/is+현재분사(v-ing)>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 (tomorrow, tonight, this weekend, next week 등)와 함께 쓰이면 **미래를 표현**해요.

-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이 문장에서 'are doing'은 다가올 이번 주말이라는 미래 표현과 함께 쓰여 현재 진행의 형태이지만 미래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④ 그 외 미래를 나타내는 <be about to + 동사원형>인 '막~하려던 참이다'와, <be supposed to + 동사원형>인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 I **am about to call** her. (나는 그녀에게 막 전화하려던 참이야.)
- The meeting **is supposed to be** held at three o'clock.

(회의가 3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어.)

2. 진행시제

1) 현재진행 시제

지금 진행 중인 일이나 동작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해요. 또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쓰여요. 해석은 '지금 ~하는 중이야', '~하고 있어'라고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진행형은 일시적인**,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어감이라면, **현재 시제는 단순히 현재만을 의미하기** 보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는 어감을 가져요. 동사의 형태는 <be 동사의 현재형(am/are/is) + 현재분사(v-ing)>로 나타내요.

※ 지금을 말하는 시간 표현 부사(구)(now, currently, presently, at the moment)와 자주 쓰여요.

① 지금 한 순간 진행 중인 일

- He **is eating** a sandwich **now**. (그는 지금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중임을 표현할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씁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 일시적 혹은 순간적인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현재 시제를 쓴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볼까요?

- I **usually have** toast in the morning. (나는 보통 아침에 토스트를 먹어.)

이 문장은 반복적,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동작을 표현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썼어요.

②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가까운 미래 표현

• I **am coming** back soon. (나는 곧 돌아올 거야.)

곧(soon) 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am coming'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때 'are coming'은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be going to'로 바꾸어 'I'll come back soon.' 혹은 'I am going to come back soon.'을 쓸 수도 있어요.

③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

진행형은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상태나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태동사>

have(가지고 있다), own(소유하다), belong to(~에 속하다), possess(소유하다), exist(존재하다) 등의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아요. 단 have가 '가지다'는 뜻의 상태동사가 아닌 경우는 진행형을 쓸 수 있어요.

• My brother **is having** a new cellphone. (x)

have가 '가지다'의 의미이므로 현재 진행형을 쓸 수 없어요.

→ My brother **has** a new cellphone. (o) (나의 동생은 새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 I **am having** lunch with my friends. (o) (나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중이야.)

이때는 '가지다'는 뜻이 아니므로 진행형으로 쓸 수 있어요.

<감정 및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like(좋아하다), love(사랑하다), hate(싫어하다), prefer(선호하다), want(원하다),

wish(바라다), believe(믿다), know(알다), understand(이해하다), remember(기억하다) 등의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아요.

• I **am preferring** to relax at home. (x)

→ I **prefer** to relax at home. (o) (나는 집에서 쉬기를 더 좋아해요.)

• I'm **knowing** his cellphone number. (x)

→ I **know** his cellphone number. (o) (나는 그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어.)

2) 과거 진행 시제

과거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이었던 동작이나 **일을** 말해요. 그래서 해석은 '(그때)~을 하고 있었어, ~하는 중이었어'라고 하면 됩니다. 동사의 형태는 <be 동사의 과거형(was/were) + 현재분사(v-ing)>로 나타내요. 주어가 단수면 was, 주어가 복수면 were이예요. 단, 주어가 you일 때는 언제나 were이지요.

• I **was watching** TV at 7 p.m. yesterday.

(나는 어제 저녁 7시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

어제 저녁 7시(at 7 p.m. yesterday)라는 과거 특정 시점에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는 과거의 진행 중인 동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진행을 썼어요.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의 특정한 시점과 함께 쓰면 잘 어울려요.

• I **was doing** my homework when he called me.

(그가 내게 전화했을 때 난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가 내게 전화했을 그 당시, 난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과거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진행인 'was doing'을 썼어요.

3) 미래 진행 시제

미래 특정 시점에 하고 있을 일이나 동작을 표현해요. 해석은 '(미래 특정

시점에)~하고 있는 중 일거야'로 하면 됩니다. 동사의 형태는 <will + be + 현재분사(v-ing)>입니다.

• **I'll be taking** an exam at three this afternoon.

(나는 오늘 오후 3시에 시험을 보고 있을 거야.)

오늘 오후 3시(at three this afternoon)라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일 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미래 진행 시제인 'will be taking'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진행시제 <be 동사+현재분사(v-ing)>에서 현재분사형(v-ing)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① -e로 끝나는 동사는 e를 없애고 -ing를 붙여요.

· write-writing · have-having · make-making cf) see-seeing

② 단모음+자음으로 끝나는 1음절 동사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쓰고 -ing를 붙여요.

· stop-stopping · swim-swimming · run-running · drop-dropping

③ 2음절어로서 뒤에 강세가 있으면 마지막 자음 한번 더 쓰고 -ing를 붙여요.

· begin-beginning · occur-occurring · refer-referring · admit-admitting

④ -ie로 끝나는 동사는 ie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여요.

· die-dying · lie-lying

⑥ 그 밖의 동사는 -ing를 붙여요.

· talk-talking · study-studying · break-breaking cf) picnic-picnicking

3. 완료시제

1)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현재와 연결하여 표현한** 시제를 말해요. 현재 완료 시제가 아무리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시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과거 시제는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말할 뿐 현재의 상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면 과거의 일이 언제나 현재와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I **have lost** my car key.'라고 현재 완료 시제를 쓰면 과거에 차 키를 잃어 버려서 현재 차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재의 정보가 들어 있어요. 이에 반해 'I **lost** my car key.'라고 과거 시제를 쓰면 과거에 차 키를 잃어 버렸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 현재의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답니다.

또한 현재 완료 시제에서 주의할 점은 완료라는 의미 때문에 어떤 일이 예전에 시작해서 지금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현재 완료가 반드시 완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완료 시제 안에는 어떤 일이 계속된다는 '계속'의 의미를 가진 것도 있고, 어떤 일을 해 본 적이 있다는 '경험'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완료, 계속, 경험, 결과의 용법들을 세분화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를 잘 활용할 줄 알면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 역시 쉽게 할 수 있으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형태는 <have + 과거분사(p.p.)>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 과거분사(p.p.)> 입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을 살펴볼까요?

① 완료 용법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어떤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표현해요. 주로

just(이제 막, 방금), already(벌써, 이미), yet(아직) 등의 부사와 자주 쓰여요.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 He **has just finished** his homework. (그는 막 숙제를 끝마쳤어.)
- He **finished** his homework. (그는 숙제를 끝내놓았어.)

앞 문장은 현재를 기준으로 그가 지금까지 해오던 숙제를 '이제 막 끝냈다'는 행위의 완료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has finished'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였어요. 뒤 문장은 과거 시제인 finished를 사용하여 그가 숙제를 끝내놓았다는 과거 행동에 대한 단순한 사실만을 표현하고 있고, 현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좀 더 알아보까요?

- I **have already called** him. (나는 그에게 벌써 전화해놨어.)
- I **already called** him. (나는 그에게 벌써 전화했어.)

앞 문장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동작이 완료(종료)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have called'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썼어요. 뒤 문장은 내가 그와 과거에 이미 통화했다는 단순한 과거 사실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already가 '이미, 벌써'로서 앞 문장은 '벌써 전화해놨다'이고, 뒤 문장은 '벌써 전화했다'라는 의미로 둘 다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완료는 항상 현재와 연결하여 표현하는 시제**라는 점이에요! just(방금), already(이미), yet(아직)은 단어의 의미 때문에 과거 시제와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까운 시간 내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는 주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답니다.

② 계속적 용법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요.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때 주로 since(~이후로), for(~동안), so far(지금까지) 등의 표현과 함께 쓰여요. since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since 뒤는 반드시 과거시점**이 와야 해요. 또한 **for 뒤는 기간**이 온답니다. 그럼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를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 He **has worked** in this company **since 2010**.

(그는 2010년 이후로 **쭉** 이 회사에 근무해 왔어요.)

- He **worked** in this company **in 2010**. (2010년 그는 이 회사에 근무했어요.)

앞 문장은 'since 뒤에 과거시점'이 와서 과거 2010년 이후로 그가 이 회사에 근무한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 'has worked'를 사용하였어요. 뒤 문장은 worked라는 과거 시제를 써서 그가 2010년에 이 회사에 근무를 했다는 과거 사실만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는 그가 근무하고 있는지 퇴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예문을 들어볼게요.

- She **has lived** in Busan **for two years**. (그녀는 2년 동안 부산에 살고 있어요.)

- She **lived** in Busan **two years ago**. (그녀는 2년 전에 부산에 살았어요.)

앞 문장은 <for + 기간>을 함께 써서 그녀가 2년 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산에 살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현재 완료 'has lived'를 사용했어요. 뒤 문장은 lived라는 과거 시제를 써서 그녀가 2년 전에 부산에 살았다는 말이고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현재의 정보는 알 수가 없답니다. 따라서 문장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 yesterday, last week, two years ago, 과거 연도 등이 **있으면 현재 완료를 사용하지 못해요**.

③ 경험적 용법

'(지금까지) ~한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표현합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는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들 once(한번), twice(두 번), three times(세 번), ever('지금까지' ~한 적이 있다), never(한번도 ~않다), before('이전에' ~해본 적이 있다)과 주로 함께 쓰여요. 다음 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 I **have never seen**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 never이 현재 완료와 함께 쓰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는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 I **have been** to Paris **before**. (나는 이전에 파리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전에 ~해 본 적이 있다'는 부사 before와 함께 현재 완료형이 쓰여 이전에 파리에 다녀온 적이 있는 경험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have been to 장소>**는 '**~에 가 본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have gone to 장소'라고 하면 안됩니다. **<have gone to 장소>**는 '**그 장소에 가버리고 여기에 없다**'는 뜻이니 1인칭, 2인칭 주어(I, You)에는 사용하지 못해요. 현재 여기에 없는 사람은 1, 2인칭으로 쓸 수 없고 3인칭으로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④ 결과적 용법

과거에 발생한 일이나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뜻은 '(과거에 이미) ~해버려서 지금은 ~인 상태이다'라는 결과를 나타내어요.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 She **has gone**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가고 없어.)

이 문장은 현재 완료를 사용하여 그녀가 과거에 유럽에 가버려서 지금 여기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즉 과거의 행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완료를 사용한답니다. 다음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하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해요.

- He **has sold** his car. (그는 차를 판 상태야.)
- He **sold** his car. (그는 차를 팔았어.)

앞 문장은 현재 완료인 'has sold'를 사용하여 그가 과거에 차를 매도하여 지금은 차가 없는 상태 즉 아직 다른 차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뒤 문장은 그가 과거에 차를 팔았다는 과거 사실만을 알려줄 뿐 현재는 차를 구입하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기억할 점은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2)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말해요. 앞서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로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일과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하였지요?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즉 과거 완료는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더 앞서 일어난 과거의 일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과거 완료 역시 완료, 계속, 경험, 결과의 용법을 표현합니다. 참고로 과거완료는 과거 시점과 비교하여 **더 앞선 과거의 일을 표현한다고 하여 대과거라고도** 해요. 동사의 형태는 <had+과거분사(p.p.)>입니다. 현재 완료의 <have+과거분사(p.p.)>에서 have를 과거형 had로 바꾸면 되지요.

① 완료 용법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더 앞서 일어난 일이나 동작이 완료 되었음을 표현해요.

• I **had**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when he came to my house.**

(그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난 이미 숙제를 끝내놨었어.)

그가 우리 집에 온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그 이전부터 시작한 숙제를 이미 끝마쳐 놓았기 때문에 과거 완료인 'had finished'를 사용하였어요.

② 계속적 용법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부터 그때까지 계속된 동작이나 일을 말해요.

• I **had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before I went to America.**

(나는 미국에 가기 전에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었어.)

내가 미국에 간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영어 공부를 3년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내가 미국에 간 시점보다 영어 공부를 해왔던 시점이 더 앞선 과거이므로 'had studied'라는 과거 완료로 표현하였어요.

③ 경험적 용법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경험을 나타내요.

• He had met her three times by that time.

(그는 그때까지 그녀를 세 번 만난 적이 있었어.)

이 문장은 그때까지(by that time)라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가 더 이전부터 그 기준 시점까지 그녀를 세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과거 경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인 'had met'을 썼어요.

④ 결과적 용법

과거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이나 동작이 과거 시점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해요.

- I **had injured** my leg and couldn't play soccer.

(나는 다리를 다쳤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다리를 다쳤었기 때문에 그 결과 축구를 할 수 없었다는 뜻이지요. 내가 축구를 할 수 없었던 과거 시점보다 다리를 부상당한 것은 더 앞서 일어난 일이고,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 시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다리를 부상당한 것은 축구를 할 수 없는 과거 시점보다 더 앞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인 'had injured'를 사용하였어요.

3) 미래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는 **미래의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나 동작과의 관계**를 표현해요. 앞서 배운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시제 개념과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요. 즉 미래 완료 역시 완료, 계속, 경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현재 완료의 기준 시점은 현재이고, 과거 완료의 기준 시점이 과거였다면, 미래 완료는 미래 특정 시점이 기준이 된답니다. 따라서 '기한이 ~까지'를 나타내는 **by, until**과 자주 쓰여요. 동사의 형태는 <will+have+p.p.>로 표현해요. 다시 말해 완료 시제의 기본형 <have+과거분사(p.p.)>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will를 붙인 형태입니다.

① 완료 용법

- I **will have finished** my work **by next Friday**.

(나는 다음 금요일까지 일을 끝내놓고 있을 거야.)

다음 주 금요일은 미래이면서, 그 미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부터 해오던 일을 다음 금요일이라는 미래 특정 시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완료형인 'will have finished'를 썼어요.

② 계속적 용법

- I **will have worked** here for ten years by next month.

(다음 달이면 나는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 될 거야.)

다음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이라는 미래 특정 시점이 되면 나는 여기서 근무한 지가 10년이 되는 것이지요. 기준 시점 이전에 시작된 일이 미래 특정 시점까지 계속될 것임을 나타낼 때 미래 완료를 사용해요.

③ 경험적 용법

- If I read the book once more, I **will have read** it twice.

(내가 그 책을 한 번 더 읽으면, 나는 그것을 두 번째 읽게 되는 거야.)

기준 시점 이전부터 미래 특정 기준 시점까지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완료인 'will have read'를 썼어요.

⑤ 결과적 용법

- He **will have gone** to London when you come home next week.

(다음 주 네가 집에 돌아왔을 때면 그는 런던으로 떠나고 없을 거야.)

다음 주 네가 집에 돌아오는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기준 시점이 되면 그는 이미 런던에 가버리고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미래 완료 시제를 사용한답니다.

지금까지 영어의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문과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제 영어의 시제라고 하면 복잡한 12시제나 시제 일치 같은 공식들이 먼저 떠오르길 바랍니다.

X. 명사

명사란 무엇일까요? 명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까요? 명사는 사람(boy), 사물(desk), 동물(dog), 장소(Busan)등을 대표하여 일컫는 품사입니다. 우선 명사라는 품사가 문장의 구성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봅시다.

1. 문장 내에서의 명사 역할 및 위치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역할

① 주어 역할

먼저 명사의 주어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어란 동사 앞에 위치하여 동사의 주체가 되며 이 주어 자리에 명사가 쓰일 수 있고. 그 명사의 위치를 다음 예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nglish is a second language. (영어는 제 2 언어이다.)

이 예문에서는 is라는 동사 앞, 다시 말해 주어 자리에 위치한 English(영어)라는 (사물)명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는 '영어는, 영어가'처럼 '-은, -는, -이, -가'로 해석하면 됩니다.

② 타동사의 목적어

두 번째로 공부해 볼 명사의 역할은 타동사의 목적어 입니다. 이는 '~을, ~를, ~하다, ~에게'로 해석되는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 Susan likes sports. (수잔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like(~을 좋아하다)라는 타동사 뒤에 위치한 (사물) 명사

sports(스포츠)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은 **스포츠**라는 명사에 '~을, ~를'을 넣어 **스포츠**를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③ 전치사의 목적어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 Jinsu wrote a letter **with a pen**. (진수는 연필을 가지고 쓰고 있다.)

이 예문에서 with라는 전치사 뒤에 위치한 (사물)명사 pen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명사 pen(연필)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칭합니다. 이 때 해석은 명사 앞에 나온 전치사와 함께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with**는 **가지고**의 의미이므로, '진수는 **연필을 가지고** 또는 **연필로** 편지를 썼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④ 불완전 자동사 뒤 보어

마지막으로 불완전 자동사 뒤 보어 자리에 위치하는 명사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 My father **is an engineer**. (나의 아버지는 기술자 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is라는 동사 뒤에 (사람)명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is라는 동사는 'I like the teacher.'의 문장에서처럼 '~을, ~를'로 해석되는 like(~을 좋아하다)처럼 뒤에 대상이 따라오는 타동사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He arrived.'의 문장에서처럼 arrive(~도착하다)뒤에 아무것도 따라 오지 않고, 동사 홀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완전 자동사도 아닌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is와 같은 불완전 자동사 뒤에는 무엇인가가 뒤따라와야지만 문장이 완성됩니다. 즉 불완전 자동사 뒤에는 보어라는 이름으로 명사가 위치 할 수 있습니다. 보어자리에 명사를 위치시킬 때는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어 자리에 무조건 명사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래 두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 My father is an engineer. (나의 아버지는 기술자이다.)
- My father is sickness. (나의 아버지는 병이다.)

위 두 문장 모두 is(~이다)라는 불완전 자동사 뒤인 보어자리에 명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 모두 명사가 보어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 두 예문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의 해석에서는 my father(나의 아버)도 사람이고 engineer(기술자)도 역시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두 명사가 동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예문의 sickness(병)는 추상명사로서 주어인 my father(나의 아버)과 동격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의 아버지는 병이다'라는 해석의 의미 조차 이상하므로 비문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보어 자리에 명사는 주어 자리의 명사와 동격**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명사의 역할과 위치를 아래 표를 통해 다시금 상기해 보겠습니다.

<명사의 역할>

| | |
|---|-------------------|
|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의 역할 | |
| English is a second language. | 명사+ V |
| James likes sports. | S+타V + 명사 |
| Robert Green wrote a letter with a pen. | 전치사 + 명사 |
| My father is an engineer. | S+불자v + 명사 (S=명사) |

⑤ 목적어의 위치에 관련된 주의 사항

명사의 위치를 공부하는 동안에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문장에서 주어 위치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주어가 필요한 곳은 오직 동사 앞'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목적어가 필요한 장소가 두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반면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전치사 뒤를 비워둔다든지, 바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치사 뒤에도 무엇인가가 무조건 따라와야 하고, 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칭하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형태)에는 **명사, 대명사의 목적격, 동명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am proud of.' 에서 끝이 나면 비문이고, 'I am proud of you.'의 문장에서처럼 전치사 뒤에 대명사의 목적격인 you를 적어주면 맞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What do you think of?'와 같은 문장에서는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문장에서 of의 목적어로 what이 명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는 원리 때문에 of뒤에 what이 문장 앞으로 이동한 것일 뿐입니다. 즉 **of, in, on, at, with, against, for, to와 같은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태인 대명사의 목적격 또는 동명사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I care **for** the teacher. (나는 그 선생님을 좋아한다.)
- I care **for** him. (나는 그를 좋아하다.)
- I care **for** playing the piano.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한다.)

각 예문의 전치사(for)뒤에 명사(the teacher), 대명사 목적격(him) 그리고 동명사

(playing)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 명사의 위치

명사의 위치는 앞에서 언급 했듯이 동사 앞, 타동사 뒤, 전치사 뒤, 그리고 불완전 자동사 뒤(be 동사, become)에 위치하는 한다는 점 이외에도, **관사, 소유격, 형용사 뒤**에도 '명사가 올 수 있다 또는 무조건 와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 예문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 Please review **the** proposal. (그 제안서를 검토하세요.)

- We are seeking **creative** designers.

(우리는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 **Your** order will be shipped within three days.

(당신의 주문품을 3일이내로 배송될 거예요.)

첫 번째 예문에서는 the(관사)뒤에 proposal(제안)이라는 (일반)명사가, 두 번째는 creative(창의적인)이라는 형용사 뒤에 (사람)명사인 designers(디자이너들)가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소유격(my, your, his, her, our, their, its)뒤에 명사가 위치하는 예로서, 소유격(your)뒤에 명사인 order(주문품)이 따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문장 더 살펴봅시다.

-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implication of the new commercial law.

(이 기사는 새로운 상법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할거야.)

이 예문에서 명사인 implication(영향)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치사구(전명구)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시다. 전치사와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명사를 묶어서 전치사구(전명구)라고 칭합니다. 이 전치사구는 의미가 부여되는 형용사 또는 부사처럼 쓰이지만, 문장 내에서는 사라져도 문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부분(of the new commercial law)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the라는 관사 뒤에 명사의 어미인(~ion)으로 이루어져있는 단어(implication)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문을 하나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 Please confirm your reservation in writing by Friday.

(금요일까지 서면으로 예약을 확인해 주세요.)

이 문장은 대명사의 소유격(your)뒤에 명사를 필요로 하는 예문입니다. 그러므로 명사형 어미(~ion)으로 끝나는 reservation이 your을 뒤따라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문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 Prime Tech. has adopted several forms of assessment for accuracy.

(Prime Tech는 정확성을 위해 여러 종류의 평가를 도입하였다.)

이 예문은 전치사 뒤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필요로 하는 문장으로서, 전치사(of) 뒤에 명사형 어미(~ment)로 끝난 단어(assessment)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명사의 위치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단어를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명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명사의 어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일반명사 vs 사람명사

명사어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일반명사어미**는 ~t(p,s,c,n,)ion, ~t(p,s,c,n,m)y, ~ance(ence), ~sis, ~ness, ~ing, ~ment, ~ism, ~ure 그리고 **사람명사어미**는 ~er, ~or, ~ee, ~ant(ent), ~ist(~ys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미를 포함한 각각의 단어 예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명사 vs 사람명사>

| 일반명사 | | 사람명사 | |
|---------------|--------|--------------|--------|
| application | 지원, 신청 | applicant | 지원자 |
| distribution | 배포 | distributor | 배포자 |
| instruction | 지시 사항 | instructor | 강사 |
| analysis | 분석 | analyst | 분석가 |
| criticism | 비평 | critic | 비평가 |
| architecture | 건축 | architect | 건축가 |
| employment | 고용 | employer | 고용주 |
| | | employee | 직원 |
| attendance | 출석 | attendee | 참석자 |
| travel agency | 여행사 | travel agent | 여행사 직원 |

그리고 위의 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문장의 구조 또는 의미에 따라 **일반(사물)명사와 사람명사를 구분**해서 위치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두 예를 살펴봅시다.

- Mr. Kim is a qualified instructor. (김씨는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다.) (O)
- Mr. Kim is a qualified instruction. (김씨는 자격을 갖춘 설명이다.) (X)

위 두 문장에서 '**qualified**'(자격을 갖춘)이라는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위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instructor(지도자)와 instruction(지시, 설명서)중 어떠한 명사가 어울릴까요? 우선 두 명사 모두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a라는 관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법 즉 '문장의 구조'**뿐 아니라, '**문장의 해석**'의 도움 역시 필요로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 예문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로 해석되고, 두 번째 예문은 '자격을 갖춘

설명서'로 해석됩니다. 두 해석 중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요? 단연코 '자격을 갖춘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문은 맞는 문장이지만, 두 번째 예문은 틀린 문장이 되어 버립니다. 다음 두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 봅시다.

- The handbooks detail the operation of the new computer system. (O)

(그 안내서는 새로운 컴퓨터 장치의 조작방법을 상세히 적어놓았다.)

- The handbooks detail the operator of the new computer system. (X)

(그 안내서는 새로운 컴퓨터 장치의 조작자를 상세히 적어놓았다.)

위 두 예문 모두 관사 뒤에 명사인 operator(조작자)와 operation(조작방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보기의 어미에서 알 수 있듯이, **~or은 사람명사, ~ion은 일반명사**입니다. 이 두 명사를 확인한 순간 '사람명사와 일반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구나'라고 감을 잡으신 후, 해석으로 접근해 봅시다. '안내서는 새로운 컴퓨터 장치의 조작하는 사람 또는 조작방법을 상세히 적어놓았다.' 둘 중에 어떠한 해석의 의미가 더 자연스러운가요? 이때는 '**조작방법**'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첫 번째 예문은 맞는 문장인 반면 두 번째 예문은 틀린 문장으로 간주됩니다.

3. 가산 vs 불가산명사

이제는 셀 수 있는(**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불가산**)명사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가산명사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1) 가산명사(보통명사 vs 집합명사)

① 보통명사

가산명사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보통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같은 종류의 사물, 사람, 동물의 이름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desk(책상), egg(계란), chair(의자), shop(가게), book(책상), student(학생), dog(개)등이 있고, 이 명사들이 단수로 쓰일 때는 혼자 쓸 수 없고, 한정사의 꾸밈을 받아야 합니다. 즉 **관사(a, the), 소유격(my), 지시 형용사(this, that), 수량형용사(every, each)**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 **명사들 앞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 This is desk. (이것은 책상이다.) (X)

위 문장은 해석상으로는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법상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 이유는 desk(책상)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이므로 desk앞에 한정사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올바른 문장을 이끌어 내어 주어야 됩니다. 'This is **a desk.**' 또는 'This is **the desk.**'처럼요. 만약 이러한 한정사가 오지 않을 경우는 desk를 **복수명사(desks)**로 써야 합니다. 그럼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s를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명사의 어미(**-s, -x, -z, -x, -sh, -ch, -o**)로 끝나는 명사단어는 **~es**를 붙입니다. 다음은 <~자음 + y>로 끝나는 명사와 <~모음 + y>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을 알아봅시다. <~자음 + y>형 명사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지만, <~모음 + y>로 끝나는 명사는 그냥 **~s**를 붙입니다. 그리고 **~f(e)**로 끝나는 경우는 **f를 v로 고치고 ~es**를 붙입니다. 물론 예외의 명사 복수형들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명사의 복수형을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명사 복수형 만들기>

| | | |
|--------------------------------|---|--|
| 대부분의 명사+s | frog-frogs | balloon-balloons |
| <-s, -sh, -ch, -자음o, -x> + -es | glass-glasses bush-bushes <예외> piano-pianos | box-boxes potato-potatoes |
| <자음 + y> y를 i로 바꾸고 + -es | lady-ladies | cherry-cherries |
| <모음 + y> + -s | boy-boys | day-days |
| <f/ fe> + v로 바꾸고 -es | wolf - wolves <예외> roof - roofs | knife-knives |
| 불규칙 복수명사 | man-men goose-geese mouse-mice | woman-women tooth-teeth child-children |

② 집합명사

지금부터는 가산명사 중 집합명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합명사는 또 세 가지 명사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 <집합명사 vs 군집명사>

우선 집합명사와 군집명사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수의 집합체인 family(가족), class(학급), team(단체), committee(위원회), audience(청중), army(군대), crew(승무원)등이 있습니다. 이 명사는 집합을 이루는 사람, 사물을 나타내며 집합 전체를 하나로 생각할 때는 집합명사라 칭하고 단수 취급을, 이에 반해 그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구성원을 의미하면 이를 군집명사로 칭하고 복수취급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직 이해가 안되죠? 그럼 이

집합명사를 포함한 문장들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집합명사의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My family is large. (나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이 때는 가족을 집합 전체로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했으므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 My family are all healthy nowadays. (나의 가족들은 요즘 모두 건강하다.)

이 때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복수 취급합니다. 만약 구성원 중 한 명이 건강하지 않다면 위 영어문장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나요? 아래 두 예문을 통해 한번 더 공부해봅시다.

- My class is all warm-hearted.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마음이 따뜻해요.) (X)

- My class are all warm-hearted.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마음이 따뜻해요.) (O)

위 두 예문 중에서는 아래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인 class는 학급을 하나의 단위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학급의 학생 구성원들 모두를 포함하여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급의 학생들 중 한 명이라도 성격이 나쁘다면 이 문장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 The committee meets once a week. (그 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 The committee meet once a week. (그 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위 예문에 나온 committee(위원회)는 그에 속해있는 개개 구성원을 본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면서 그 '위원회가 만나는 횟수'를 나타냈으므로, 단수취급을 해야 하고, **meets가** 속한 위의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㉞ <무관사+명사>형 집합명사

두 번째는 불특정수의 무리로는 <무관사+명사>의 형태를 이용하여 항상 복수

취급하는 집합명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명사의 단어로는 people(사람들), folk(사람들), cattle(소), poultry(가금류)가 있으며, 이 단어들은 각각의 개체보다 무리가 중요하고, 무리라는 단어 자체에 복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관사가 없이 항상 복수 취급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아래 예문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 People are enjoying the firework.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 문장에서 **people**이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때는 하나의 무리로 취급을 하여 **항상 복수**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people**이 **민족**이라는 의미일 때는 **보통명사** 취급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 There are many peoples in Asia. (아시아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집합명사로 쓴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의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았을 테니, <무 관사 + 명사>의 형태인 집합명사에 관련된 예문을 한번 더 살펴 볼까요?

- Young cattle are named calves. (어린 소는 송아지라고 불린다.)

이 문장에서 cattle은 어떤 소 한 마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소의 무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복수 취급 합니다.

© <the+명사>형 집합명사

마지막으로 <**the+명사**>의 형태로 항상 복수 취급하는 집합명사를 살펴볼 텐데, **the를 붙이는 이유**는 그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해있는 일부 구성원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한정된 전체 집단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속하는 명사는 the police(경찰), the public(일반 국민), the press(언론), the crowd(군중), the nobility(귀족). 그러나 the

public(대중) 또는 the press(언론)의 뜻으로 하나의 집합체로서 해석될 때는 단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 + 명사> 집합명사의 예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The police are looking into the accident.

(경찰이 그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장에 나오는 **경찰은 한정된 전체 집단**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해 줍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 있는 전체 경찰은 아니지만, 어느 한 지구대에 소속된 경찰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취급하는 것입니다.

2) 불가산명사(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지금부터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가산명사는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고유명사

그럼 우선 고유명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유명사란 국가이름, 사람이름, 회사이름, 요일, 월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고유명사들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앞에 관사를 붙이지도 복수형을 만들지도 않으며,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Korea, Susan, Monday'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고유명사는 관사를 앞에 쓰거나 복수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기 마련이죠? 몇몇 일부 국가 명, 건물명, 하천 명에는 the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the United States, the Philippines, the Shilla Hotel, the Pacific Ocean'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유명사에 ~s**'를 붙이는 예외를 살펴보겠습니다.

- There are two Susans in my class.

(우리 반에는 수잔이라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이때 ~s의 의미는 ‘~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통명사 취급을 하여 복수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② 추상명사

① <수량형용사와 추상명사>

이번에는 손으로 잡히지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추상명사는 일반적으로는 관사를 붙이지 않지만 수식어구의 한정을 받을 때는 **the**를 붙입니다. 이러한 추상명사의 예는 kindness(친절), sickness(병), beauty(미), hope(희망), advice(충고), information(정보), news(소식)등과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명사는 이 단어들 자체로는 수를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량 표시 형용사들 much(많은), any(약간), some(약간), little(약간)과 함께 올 수 있으며, 수를 정확히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어구들 ‘a piece of’(하나), ‘an item of’(항목, 하나), ‘a bit of’(약간), ‘a word of’(한마디)를 추상명사 앞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I need a piece of your information. (나는 너의 정보 하나가 필요해.)
- She gave me an item of news. (그녀는 나에게 소식 한 가지를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명사가 구체적인 사람, 행위, 경험, 기회를 나타낼 때는 보통명사처럼 쓰입니다.

- He is a success as a pianist. (그는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한 사람이야.)

이때는 **success**가 성공이라는 추상명사로 쓴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의미로 보통명사화 되었기 때문에, 앞에 **a**라는 관사를 붙였습니다. 이런 보통명사로 쓰이는 추상명사의 개념이 어려우니 한 문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 He has done me many kindnesses. (그는 나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

이 문장에서 **kindness**는 친절의 의미가 아닌, 구체적인 행위 즉 **친절한 행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보통명사화 한 것 입니다.

⑥ <전치사 + 추상명사>

추상명사와 전치사가 결합하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문을 살펴봅시다.

- This is of use to me. (이 책은 내게 아무런 쓸 모가 없다.)

=This book is useless to me.

이 문장에서는 is라는 불완전 자동사 뒤 보어자리에 형용사가 필요한데, '전치사+추상명사'(of no use)가 **형용사(useless)**로 대체될 수 있으며, 해석은 '쓸모 없는'으로 하면 됩니다. 이에 관한 예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사 + 추상명사>

| | | |
|-----------|-----------------------------------|-----------------------------------|
| of+추상명사 | of courage=courageous (용감한) | of no value=valuable (귀중한) |
| | of importance= important (중요한) | of no use=useless (쓸모 없는) |
| with+추상명사 | with care=carefully (주의 깊게) | with ease=easily (쉽게) |
| 기타 | on purpose=intentionally (고의로) | by accident=accidentally (우연히) |

③ 물질명사

물질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을 나타내므로, **a/an은 붙일 수 없고, 단수**

취급합니다. water(물), coffee(커피), sand(모래), money(돈), sugar(설탕), beer(맥주)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명사와 많이 쓰이는 수량형용사에는 추상명사와 마찬가지로 'some, any, much, a little'등이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수량 표시법을 아래 표에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수량 표시법>

| | |
|------------------------------------|----------------------------|
| a glass of milk: 우유 한잔 | two cups of coffee: 커피 두 컵 |
| a bottle of beer: 맥주 한 병 | a pound of sugar: 설탕 1 파운드 |
| a piece(loaf) of bread: 빵 한 조각(덩이) |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 |
| a cake(bar) of soap: 비누 한 개 | |

이에 더해 시험에 출제되는 **물질명사(불가산명사)**와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생긴 **보통명사(가산명사)**를 비교 및 구분하여 아래 표에서 살펴봅시다.

<보통명사 vs 물질명사>

| 보통명사 (가산명사) | 물질명사 (불가산명사) | 보통명사 (가산명사) | 물질명사 (불가산명사) |
|----------------|------------------------------|----------------|----------------------------------|
| a desk(책상) | furniture(가구), | a manager(관리자) | management(경영진) |
| a machine(기계) | machinery(기계류) | a scene(장면) | scenery(풍경전체) |
| a jewel(보석) | jewelry(보석 류) | a weapon(무기) | weaponry(무기류) |
| a letter(편지) | mail(우편물), | a fish(물고기) | fish(어류) |
| a bag(가방) | baggage(수하물) luggage(수하물) | a product(상품) | merchandise(상품), produce(농산물) |

이번엔 가산명사 같아 보이지만 **불가산명사**인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로서 시험에 많이 출현하는 불가산명사를 아래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가산명사>

| | | | |
|--------------------|----------------|--------------|-----------------|
| information(정보) | access(접근 권한) | approval(승인) | equipment(장비) |
| advice(충고) | interest(관심) | planning(기획) | merchandise(상품) |
| cash(현금) | funding(자금 모금) | money(돈) | change(잔돈) |
| manufacturing(제조업) | | | |

위의 표에서 돈과 관련하여서는 money(돈), cash(현금), change(잔돈)만 불가산명사이고, 이 이외는 거의 모두를 가산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costs(비용), benefits(수당), profits=proceeds(수익금), discounts(할인)는 가산명사로 간주하면 됩니다. 이에 반해, 아래 표는 불가산명사와 비슷하게 생긴 **가산명사**를 왼쪽에 소개하였습니다. 이 표의 왼쪽에 위치한 명사를 보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셀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셀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왼쪽 명사들은 관사 추가 또는 복수형이 가능한 단어**들입니다.

<가산명사 vs 불가산명사>

| 가산명사 | 불가산명사 |
|---------------------|-----------------|
| description(묘사, 설명) | information(정보) |
| permits(허가증) | permission(허가) |
| potentiality(잠재력) | potential(잠재력) |
| process(처리) | processing(처리) |

이번엔 **의미에 따라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모두 가능한 단어**를 아래 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해석에 따라 가산, 불가산명사 모두 될 수 있는 단어들이니, 문맥에 맞게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 | 가산명사 | 불가산명사 | | 가산명사 | 불가산명사 |
|-----------|------|-------|-------------|------|-------|
| complaint | 불만사항 | 불만 | purchase | 구매품 | 구매 |
| detail | 세부사항 | 세부 | replacement | 교체품 | 교체 |
| direction | 지시사항 | 지휘 | request | 요청상황 | 요청 |
| work | 작품 | 일 | | | |

위 표를 바탕으로 의미에 따라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로 나누어질 수 있는 단어의 예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You have plenty of work to do now. (너는 지금 할 일이 많아.)
- There are plenty of works of art in this gallery.

(이 화랑에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위의 문장에서는 **work**이 **일**로 해석되면서 **불가산명사**로, 아래 문장에서는 **작품**으로 해석되는 **가산명사**로 간주하면 됩니다.

(3) 단수 가산, 복수 가산, 불가산 명사와 어울리는 한정사

수량형용사와 가산 & 불가산명사를 연관시켜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Steven, my tax accountant, gave me **much** good advice on how to reduce income taxes.

(나의 회계사인 스티븐이 수입세를 줄이는 방법에 관해서 많은 좋은 충고를 해주었다.)

여기서 advice(충고)는 추상명사로서 불가산명사로 간주되어, 불가산명사를 꾸며주는 **much(많은)**가 앞에 왔습니다. **many**도 역시 **많은**의 의미로 쓰이지만, many는 '수가 많다'는 의미로서 복수명사를 꾸며줘야 하는 반면, much는 '양이 많다'는 의미로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 A variety of antiques can be found in our exhibition.

(다양한 골동품들이 우리전시장에 있습니다.)

a variety of는 '다양한'의 의미이므로 뒤에 복수명사가 위치해야 하는 예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a lot of**와 **lots of** 역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large amount of** '양이 많다'는 의미의 수량형용사이므로 복수명사인 antiques(골동품) 앞에는 올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가산/불가산명사에 어울리는 한정사 중 관사,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를 표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사 + 명사>

| | | |
|---|-------------------|------------------|
| a +자음, an +모음, the, 소유격 this / that one / every / each /another | +단수명사 | +단수동사 |
| a(X), 무관사, the, 소유격 many(많은), several(몇몇의), a few(약간의), both(둘의) a variety of(다양한), a number of(많은), these, those | +복수명사 | +복수동사 |
| a(X), 무관사, the, 소유격, this, that a large amount of(많은 양의) much(많은), (a)little(약간의) | +불가산명사 | +단수동사 |
| all(모든), most(대부분의) some, any(약간의), half(절반의) a lot of(=lots of), plenty of 많은 | 1)복수명사 2)불가산명사 | 1)복수동사 2)단수동사 |

4. 명사 vs 동명사

이제는 동명사와 명사를 한번 구분 지어볼까요? 동명사의 생김새는

<동사+~ing>를 붙인 것이며, 동명사의 역할은 **명사**와 같습니다. 즉 문장 내에서 **주어, 타동사,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사와 동명사의 용도가 각기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예문들을 통하여 명사와 동명사의 각기 다른 용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 I am interested **in** the discussion. (나는 토론에 관심이 있다.)

- I am interested **in** discussing the problem.

(나는 그 문제를 토론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위 예문은 명사형 어미(~ion)으로 끝난, 명사(discussion)이, 하지만 아래 예문은 동명사(discussing)이 각각 전치사(in)뒤에 위치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명사가 동명사보다 우선이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일반적으로 동명사보다는 명사가 더 빈번하게 자리합니다. 위의 예문이 바로 이 법칙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예문의 경우는 동명사(discussing)뒤에 명사인(the problem)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명사가 아닌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두 개(discussion, the problem)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에 이미 명사가 위치한 경우 그 앞을** 명사와 동명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채워야 할 때는 **동명사를 적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에 학생들이 질문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복합명사는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복합명사로는 위 문장이 해석이 되지 않을뿐더러, 복합명사 사이에는 '**the** 또는 **a**'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명사 앞에는 관사가 올 수 있고, 형용사의 꾸밈을 받으며, 뒤에 또 다른 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동명사는 앞에 관사가 올 수 없고, 부사의 꾸밈을 받으며, 뒤에 또 다른 명사나 대명사의 목적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사와 동명사 구별>

| | 명사 | 동명사 |
|---------------|-----|-----|
| 앞에서 수식할 품사 | 형용사 | 부사 |
| a, the 수식 | 가능 | 불가능 |
| 뒤에 목적어로 명사 위치 | 불가능 | 가능 |

위 표를 바탕으로 다음 예문 중 어떤 문장이 올바른지 한번 알아보시다.

- We will succeed by **constantly development** new technologies. (X)
- We will succeed by **constantl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O)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이 문장은 일단 앞에 **부사 constantly**가 보이고 바로 뒤에 **형용사+명사(new technologies)**가 나와 있으므로, **동명사 developing**이 위치한 아래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동명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형태는 동명사형이지만 일반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명사형 자체가 없으므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eeting(회의), training(훈련), landing(착륙), accounting(회계학)등이 있으며, 이 명사들은 관사도 붙을 수 있으며, 뒤에 따라오는 명사 없이 혼자 쓸 수 있습니다. 동명사형 명사를 아래 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The meeting will begin soon. (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이 예문에서는 명사화된 동명사(meeting)앞에 관사(the)도 왔고, 뒤에 따라오는 명사 없이 혼자서 주어 역할을 하였습니다.

5. 복합명사

명사에 관한 문법과 관련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명사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복합명사는 명사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명사를 만들 수 있으며, 그 구조는 <명사+명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furniture(가구), 가게(store)라는 각기 다른 명사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가게' 즉, 가구점(furniture store)이라는 말도 존재하며, 이러한 명사를 복합명사라 일컫습니다. 이때 꼭 지켜야 할 것은 '앞 명사는 무조건 단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합명사의 단수형은 'furniture store'앞, 즉 전체 복합명사 앞에 a를 붙여서 'a furniture store'로, 복수는 'furniture store'뒤, 즉 전체 복합명사 뒤에 ~s를 붙여서 'furniture stores'로 만듭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신발 가게 경우, 원래 신발은 두 쪽이므로 일반적으로 shoes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신발 가게'라는 복합명사의 경우 앞 명사는 단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하여 'shoes store'이라고 하지 않고 'shoe store'로 복합명사를 만들고, 이 복합명사의 단수형은 'a shoe store', 복수형은 'shoe stores'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10살입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I am 10 years old.'인데, 뒤에 명사 boy(소년)가 따라오면 '10-year-old boy'로 years가 아니라 단수인 year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10살인 소년입니다'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I am a 10-year-old boy.' 이에 반해 '그들은 10살인 소년들입니다'는 영어로 'They are 10-year-old boys.'로 표현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문을 더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말로 10층은 '10 stories'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10층짜리 건물은 'a 10-story build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복합명사는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복합명사>

| 복합명사 | 의미 | 복합명사 | 의미 |
|-----------------------|--------|---------------------|-------|
| assembly line | 조립라인 | application form | 신청서 |
| communication skill | 의사소통 | confirmation number | 주문 번호 |
| customer awareness | 소비자 인식 | customs declaration | 세관 신고 |
| employee productivity | 직원생산성 | exchange rate | 환율, |
| insurance coverage | 보험보상범위 | interest rate | 금리 |
| keynote speaker | 기조 연설자 | reference letter | 추천서 |
| safety belt | 안전 벨트 | safety measure | 안전 조치 |
| safety procedure | 안전절차 | sales department | 영업부서 |
| sales representative | 영업 사원 | savings account | 예금 계좌 |

지금까지 우리는 명사의 역할과 위치, 사람과 일반명사 구분, 가산·불가산명사 구분, 명사와 동명사 구분, 마지막으로 복합명사를 살펴보았습니다.

XI.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용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아 보도록 해요.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 혹은 접속, 관계시키니까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영어기초가 약한 친구들에게는 관계대명사가 복잡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영문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차근차근 반복해서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해요. 한국어에 없는 관계대명사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꿀 때 사용하며 <접속사+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 영문법 공부할 때 관계대명사가 가장 어려웠어요. 관계대명사는 한국말에 없는 문법 용어고 의문대명사랑 구분이 잘 되질 않았어요. 많이 어려웠던 문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대화를 나누곤 했답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니까 좀 더 세련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니까 관계대명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관계 대명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매우 중요한 문법으로, 어떤 명사(구)가 있을 때 이 명사(구)가 뒤의 문장에서 반복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선행사는 글자 그대로 관계대명사 ‘앞에 가다’ 라는 의미로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즉 선행사란 관계대명사 앞에서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를 뜻하지요. 선행사로는 주로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집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오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whom, whose**를 사용하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whose**를 사용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거나 **사물**이거나 **동물**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 that은 who나 which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예를 들어볼게요.

'I have a friend. And she is pretty.'(나는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리고 그녀는 예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좌우간 합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she라는 대명사가 중복되지요. friend와 she라는 대명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를 단순화시킨 것이 who입니다. 이 문장을 단순화시켜 볼게요. I have a friend who is pretty. (나는 예쁜 친구가 있다.) 이 문장에서 'who is pretty'는 앞의 선행사 friend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즉 friend인데 어떤 friend냐 하면 대단히 예쁜 친구라는 뜻이지요. 여기에서 who는 <접속사+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복되는 대명사가 she일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를 쓰고 her나 them 같은 목적격일 때는 whom을, their 같은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사용합니다.

'This is a boy.'(한 소년이 있다.)와 'I like him.'(나는 그를 좋아한다.)의 두 문장들을 결합하면 'This is a boy whom I like.'(이 아이는 내가 좋아하는 소년이다.)가 되지요. 한 문장 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I have a friend.'(나는 친구가 있다.)와 'His name is Joseph.'(그의 이름은 요셉이다.)이라는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만들면 'I have a friend whose name is

Joseph.(나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좌우간 관계대명사는 앞 문장과 뒷문장을 합치는 것입니다. 접속사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두 문장을 합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아요.

- This is the computer **which** I bought yesterday.

(이 컴퓨터는 내가 어제 구입한 것이다.)

- I have a book **whose** cover is blue.

(나는 표지가 파란색인 책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에서 whose는 무엇일까요? whose는 의문대명사가 아니라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whose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해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용사 역할,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으로 번역되지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 공부하도록 해요.

- 1)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 I have a friend. And he lives in Korea. (나는 친구가 있다. 그는 한국에 산다.)

이 문장을 앞에 나오는 명사인 friend와 뒤에 나오는 ‘he lives in Korea’라는 문장을 관계대명사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Korea. (나는 한국에 사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한 문장을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이 되었지요.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문장을 통해 관계대명사에 대해 다시 알아보도록 해요.

- This is a movie. It is very interesting. (이 영화는 매우 재미있다.)

이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his is a movie **which** is very interesting.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영화다.)

이 때 관계대명사 which는 동사 앞에 오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차츰 하나씩 익혀보도록 합시다.

- I saw a girl. She is my classmate.

(나는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우리 학교 친구다.)

위의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합쳐봅시다.

- I saw a girl **who** is my classmate. (나는 우리학교 친구인 소녀를 보았다.)

이렇게 한 개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어가 가진 장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어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격대명사 **who**는 접속사 and와 대명사 she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된다는 것이죠. 앞의 문장에서 friend와 같은 사람이 나오면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 우선 선행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선행사를 결정한 후에는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계대명사 who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의문대명사 who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문대명사 who와 관계대명사 who는 생긴 모습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면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의문대명사 who는 질문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란 걸 알 수 있어요. 의문대명사 who는 ‘누구’라고 번역됩니다.

• **Who** is he? (그는 누구인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때 사용하는 who는 의문대명사예요. 또 다른 예문을 들어 볼게요. ‘Give me the book which is on the desk.’(책상 위에 있는 책을 나에게 줄래.) 여기서 which 대신 관계대명사 that을 써도 좋아요. 친구들!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which는 무슨 격일까요? 네, 주격입니다. 이 문장은 ‘Give me the book.’과 ‘It is on the desk.’로 된 두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는 2개의 문장에서 중복된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며, 선행사에 따라 who, which, that이 옵니다. ‘I like a boy. And he likes me.’(나는 소년을 좋아한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다음과 같아요.

• I like a boy **who** likes me. (나는 나를 좋아하는 소년을 좋아한다.)

이 문장의 선행사는 ‘a boy’구요. 여기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했어요. 이 문장에서 who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걸 알 수 있어요. 동사 앞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대명사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어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관계대명사 문장에서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느냐, 관계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격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 공부할게요.

2)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 I like a boy. And he likes me. (나는 소년을 좋아한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다음과 같아요.

• I like a boy **who** likes me. (나는 나를 좋아하는 소년을 좋아한다.)

이 문장의 선행사는 'a boy'구요. 여기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했어요.

이 문장에서 who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사 앞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 목적격도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걸 명심 하세요. 예문을 볼까요?

• I know the girl **whom** he loved. (나는 그가 사랑했던 소녀를 알고 있다.)

이 문장은 'I know the girl'과 'He loved her.'라는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합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바로 앞의 예문 'I know the girl whom he love'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요? 또 다른 문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 He gave me the book. I wanted it.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나는 그 책을 원했다.)

이 문장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 He gave me the book **which** I wanted. (그는 내가 원하는 책을 나에게 주었다.)

이 문장에서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했어요.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중요한 것은 which가 대명사 it를 대신하면서 동시에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흔히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에서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많은 경우 생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This is a girl (**whom**) I like. (이 소녀는 내가 좋아하는 소녀다.)

이 문장에서 whom은 목적격입니다. 뒤에 <주어 + 동사>가 따라오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생략할 수 있어요.

- This is a book (**which**) I bought this morning.

(이 책은 오늘 아침에 내가 구입한 책이다.)

이 문장에서 which는 목적격입니다.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해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뒤에는 <주어+동사>가 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출연하지요. 김구 선생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 Kim Gu is a patriot **whom** we all respect.

(김구 선생님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애국자이다.)

이 문장을 분석해 볼까요? 'He is a patriot.'이라는 문장과 'we all respect.'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뉘지겠죠. <접속사+대명사> him'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나 whom 또는 whose가 올텐데 뒤에 <주어+동사>가 오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whom 대신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또한 whom은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영어회화에서 흔히 생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위의 문장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볼까요?

- Kim Gu (**whom**) we respect is a patriot.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선생님은 애국자이다.)

여기에서 whom은 respect의 목적격 him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이지요.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나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휴대폰을 가지고 마지막 예로 들어볼게요.

• This is the cellphone (**which**) I bought yesterday.

(이것은 내가 어제 구입한 휴대폰이다.)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는 '구입하다'라는 동사 bought의 목적어인 it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괄호 안의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짧게 정리해 봅시다. 관계대명사는 앞의 선행사와 뒤 문장을 연결합니다.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문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까지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3) 소유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절 내에서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다음의 명사를 소유하는 관계일 때 소유격관계대명사를 씁니다.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뒤의 명사가 '~의'로 번역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예문을 보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해요.

• I know a boy.(나는 소년을 알고 있다.)

+ His father is a doctor. (그의 아버지는 의사이다.)

두 문장을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지요.

• I know a boy **whose** father is a doctor.

(나는 아버지가 의사인 소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of which'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제가 드린 문장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고요.

자, 그럼 <전치사+관계대명사>를 좀 더 깊게 공부해 볼까요? 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이 집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 This is the house **that** he lives in.

=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이렇게 두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자세하게 분석해봅시다. 관계대명사로 합치기 전에 이 문장은 'This is the house'라는 문장과 'He lives in'이라는 두 개의 문장이지요. 이 두 문장을 합치니까 'This is the house **which/that** he lives in'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 The chair on which he is sitting is broken. (그가 앉아 있는 의자는 부서졌다.)

= The chair he is sitting on is broke.

이 문장에서 which는 on의 대상, 그러니까 전치사 on의 목적어 which는 it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따라서 생략할 수 있어요. 앞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에 관해 공부한 것을 도표로 정리해 봅시다.

| 선행사 | 사람 | 사물 / 동물 |
|-----------|-----------------|-----------------|
| 주격 관계대명사 | who, that | which, that |
| 목적격 관계대명사 | who, whom, that | which, that |
| 소유격 관계대명사 | whose | whose, of which |

4)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인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첫째, 선행사가 <사람+동물>, 혹은 <사람+사물>인 경우의 예문을 볼까요?

- Look at **the man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달려가는 소년과 강아지를 보세요.)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that은 동사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격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앞의 선행사가 단수이면 단수동사를, 복수이면 복수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른바 수일치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선행사가 형용사이거나 최상급이거나 서수사일 때 that을 사용합니다.

- She is **the most** beautiful girl that I've met.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소녀 중에서 가장 예쁜 소녀다.)

- He was the **first** boy that won the prize.

(그는 그 상을 수상한 최초의 소년이었다.)

셋째, 관계대명사 that는 선행사가 부정대명사인 all, every, no, some, any나 the only, the same이 올 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부정이란 긍정/부정할 때 부정이 아니고 '막연히 정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대명사를 말합니다. 영어의 유명한 격언을 예로 들어볼게요.

•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 This is **the same** cellphone **that** I lost.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휴대폰이다.)

넷째,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사용하지 못해요.

• I met an American, **that** asked me the way to the Busan railway station. (X)

(나는 미국인을 만났는데, 그는 나에게 부산역 가는 길을 물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은 쉼표(comma) 뒤에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5) **관계대명사 what**은 그 자체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나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관계대명사 **what**은 스스로 혼자서 잘한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아닌 명사절을 이끕니다. **what**을 사용하여 예로 들어 볼게요.

• I will do **what** I can do for you.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이 문장은 'I will do the thing.'과 'I can do for you.'라는 문장이 결합된 것이죠. 여기에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he thing which,' 혹은 'that which', 'all that'으로 풀어 쓸 수 있어요. 그밖에 **what**은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what is called**' 혹은 '**what we call**', '**what they call**'은 이른바 한자로 소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what is better**는 더욱 좋은 것입니다. 또 다른 관용적인 표현으로 **what is worse**가 있어요. 이는 **설상가상**, 즉 눈이 오는데 서리까지 내리는 매우 어려운 환경을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는 속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다음은

복합관계대명사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죠.

6)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에 ever 붙이면 됩니다. 이것은 자체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나 부사절을 이끌 수 있어요. 먼저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문장을 살펴봅시다.

- **Whoever** works hard will succeed.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할 것이다.)

Whoever는 '누구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을 바꾸어볼까요? 'Anyone who works hard will succeed.'가 됩니다. 복합관계대명사를 좀더 확장해봅시다.

- **Whoever** wishes to succeed must be industrious.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Whoever wishes to succeed'는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하며 동사는 must be입니다. 이 문장을 바꿔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Anyone who wishes to succeed must be industrious'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복합관계대명사가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공부해 봅시다. 복합관계대명사가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 대해 예문을 들어 설명할게요.

- **Whomever** you may ask, she will say so.

(누구에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녀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에서 양보란 무슨 뜻일까요? 양보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Although he is poor, he is honest.'(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정직하다.) 이 문장에서 보듯이 '비록 이지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한정적 용법에 대해 알아 볼까요? 한정적 용법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앞의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쓰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 He had three sons **who** became teachers. (그는 선생님이 된 세 아들이 있다.)

이 문장의 경우 아들이 셋 이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아들 중에서 세 명이 선생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편,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앞의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아닙니다. 이때 앞에 쉼표(comma)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장은 앞의 문장과 확연히 다릅니다.

- He had three sons, **who** became teachers. (그는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아들 세 명 모두 선생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모두 선생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를 아시겠죠?

관계대명사를 간략히 정리해 봅시다. 첫째,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대명사>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대명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관계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대명사절은 앞의 명사나 대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것,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 whom, whose**라는 관계대명사를 쓰고 사람이 아닌 **사물인 경우에는** 주격과 목적격 모두 **which**를 사용하고, **소유격으로는 whose나 of which**를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주격 관계대명사는 동사 앞에 위치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넷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친구들! 관계대명사를 처음 공부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계대명사를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공부해 보세요. 반복해서 영문법을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결국 영문법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힘내세요! 20대는 화살처럼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소중한 생명,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삶이 축제가 되도록 일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목표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지향적인 삶은 피곤합니다. 관계지향적, 행복지향적인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구요. 매일 주어진 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마시고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면 결국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 격언에 "Seize the Day"(오늘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도 있고 소설도 있습니다. 이 명언을 기억해주세요. 국제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를 공부한 만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지요. 영어학습을 통해 원하시는 소망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PART 3

F A Q

Q1. <동사로 쓰일 수 있는 형태> vs <동사로 쓰일 수 없는 형태>

A: '동사로 쓰일 수 있는 형태'란 동사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동사 12가지의 변형과 수동 형태를 말하는데, 즉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진행, 과거 완료진행, 미래 완료진행이 있지요. '동사로 쓰일 수 없는 형태'란 말은 동사에서 출발해서 모양은 얼핏 보기에 동사같이 보이지만, 100% 동사라고 할 수 없어서 동사 자리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가 있어요. 이를 준동사라고 합니다. 과거분사는 규칙동사일 경우 과거형과 모양이 같기 때문에 동사로 오해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과거분사는 항상 'have/has 또는 be 동사'와 결합하여 동사로 쓰인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Q2. <조동사+동사원형> vs <조동사+be p.p.>

A: 동사 give로 예를 들어보면, <will give>와 <will be given>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능동태냐 수동태냐에 있지요. 능동일 때는 조동사 will 뒤에 동사원형 give를 쓰고, 수동태일 때는 수동태의 동사형태가 <be 동사+과거분사(p.p.)>이고 will이 조동사이므로 반드시 동사원형을 써야 하기에 동사원형 be를 사용하여 'will be given'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Q3. <자동사> vs <타동사>

A: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이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동사들은 타동사로 쓰여요. 자동사가 소수이니 자동사 중심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The train arrived.'(기차가 도착했다.)처럼

자동사 arrive는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산역에 기차가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The train arrived Busan Station.'처럼 자동사 arrive 뒤에 바로 목적어인 명사를 쓸 수는 없어요. arr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럴 땐 전치사 at의 도움을 받아서 'The train arrived at Busan Sta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전치사 뒤의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답니다.

Q4. 일반동사 have 동사가 조동사로 쓰일 때

A: have 동사가 일반동사가 아닌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 때는 조동사 will 처럼 시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will, can, may, shall)뒤에는 동사원형이 위치하지만, 조동사 have(has, had) 뒤에는 무조건 과거분사(p.p.)형태가 와야 합니다. 1) <have+과거분사(p.p.)>는 현재완료로 의미는 '~해 왔다.'입니다. 2) <have+ been+과거분사(p.p.)>는 현재완료 수동으로 의미는 '~되어져 왔다.'입니다. 2)번의 형태는 1)번의 목적어를 주어로 변형시키면서 수동이 된 것입니다. 3) <have+been+~ing>는 현재완료 진행형으로 의미는 '~해 왔으며 지금도 ~하는 중이다.'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현재완료와 '지금 ~이 이루어지는 중'이라는 의미의 현재진행형이 합해져서 생긴 동사의 형태입니다.

Q5. <현재진행 수동> vs <현재완료 수동>

A: '현재진행 수동'의 형태는 현재진행(be 동사+~ing)에 수동태(be 동사+과거분사(p.p.))가 더해져서 <be+being+p.p.>의 형태로 '~되어 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The door is being painted.'(문이 칠해지고 있다.)에서 능동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직접 문을 페인트칠하고 있는 중이겠지요? '완료 수동태'는 현재완료(have+p.p.)에 수동태(be+p.p.)가 더해져서 <have been p.p.>의 형태로 뜻은 '~되어졌다'라고 해석하면 되지요. 'The door has been painted.'(문이 페인트칠이 다 되어졌다.)에서 문에 페인트칠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Q6. 과거 수동태 vs 현재완료수동

A: 두 시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비교해봅시다.

- The picnic **has been canceled** because of bad weather.
- The picnic **was canceled** because of bad weather.

첫 번째 문장에서 현재완료 수동태인 has been canceled를 쓰면 그 결과 현재 그 행사가 취소되어 안 하는 상태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현재완료는 과거에 일어났거나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시제니까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 용법 중 이걸 **결과** 용법에 해당하지요. 한편, 두 번째 문장에서 과거시제 수동태인 was canceled는 과거에 취소되었다는 것이 중심이고 그 일이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원래 소풍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되어서 못 가는 상태라고 칩시다. 그럴 경우엔 보통 현재완료 수동태를 쓰지요.

Q7. 과거완료(had p.p.) vs 과거수동(was/were p.p.)

A: 수동태 <be 동사+과거분사(p.p.)>와 현재완료 <have+과거분사(p.p.)>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봐야겠지요. 둘 다 과거분사(p.p.)가 쓰여서 비슷해 보이지만, <have+과거분사(p.p.)>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be+p.p.>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have와 be 동사를 과거로 바꿔주면, 과거완료는 <had+과거분사(p.p.)>의 형태로, 과거 수동은 <was/were+과거분사(p.p.)>의 형태가 되겠지요? 다음 예문을 참고해서 비교해보세요.

- The window **was broken** by me. [과거 수동] (창문은 나에 의해 깨졌다.)
- The class **had already started** when he got there. [과거 완료]
(그가 도착했을 때 수업은 이미 시작했었어.)

Q8. <현재 완료> vs <과거 시제>

A: 현재 완료는 <have+과거분사(p.p.)>의 형태로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계속되는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의 기준 시점은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와 언제나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하지요. 그에 반해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므로 현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I **have been** rich since I was young.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계속 부유하다.)
- I **was** rich when I was young. (나는 젊었을 땐 부자였다.)

첫 문장은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도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와도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현재완료인 'have

been'을 썼어요. 두 번째 문장은 현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내가 과거에 부자였다는 과거의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지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거나 현재에 영향을 줄 때 사용해요. 반면에 과거 시제는 동작이나 상황이 과거에 끝났음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명백히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들 yesterday(어제), last month(지난 달), five days ago(5일 전), once(한때)는 과거 시제에 쓰이고 현재 완료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 I **have lost** my cellphone. (나는 휴대폰을 잃어 버렸어.)
- I **lost** my cellphone yesterday. (나는 어제 휴대폰을 잃어 버렸어.)

첫 문장은 과거에 내가 휴대폰을 분실해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지요.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사용하였어요. 두 번째 문장은 어제 내가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단순한 과거 사실만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는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았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답니다. 현재완료인 'I have lost my cellphone yesterday.'는 틀린 문장입니다. 현재완료를 과거로 고쳐 'I lost my cellphone yesterday.'로 해야 바른 문장이 됩니다.

Q9. 현재 완료 <have been to> vs <have gone to>

A: 여러분들 영어공부를 하다 보면 'I have been to Paris'는 쓸 수 있지만, 'I have gone to Paris'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까요? been은 '어떤 장소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gone은 '어떤 장소로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have been to+장소>는 '~에 갔다 왔다, ~에 가 본적이 있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have gone to+장소>는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 가고 (여기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들어 봅시다.

- I **have been to** Disneyland twice. (O)

(나는 디즈니랜드에 두 번 가본 적이 있어.)

- I **have gone to** Disneyland. (X) (나는 디즈니랜드에 가고 없어.)

첫 문장은 have been이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 twice와 함께 쓰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디즈니랜드에 두 번 가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과거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현재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현재 여기 없는 사람을 1인칭, 2인칭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랍니다.

Q10.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

A: 목적어를 하나만 취하면 <주어+동사+목적어>의 형태가 되어 3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3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한 개만 오지요. 그런데, 4형식 동사의 경우 목적어를 두 개(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가집니다. 간접목적어는 '~에게(사람)'로 직접목적어는 '~을/를(사물)'로 해석합니다. 4형식 동사로는 'give, offer, send' 등이 있어요. 다음 예문을 참고해서 익혀주세요.

- He **sent** me an e-mail. (그가 내게 이 메일을 보냈어.)
- I **gave** him a candy. (나는 그에게 사탕을 하나 주었다.)

Q11. <There is + 단수명사> vs <There are + 복수명사>

A: 'There is/are ~' 구문은 '~가 있다'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여기서 there은 부사로 강조를 위해 문장 앞에 놓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는 there이 아니라, be 동사 뒤에 놓인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be 동사를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There is+단수명사>, <There are+복수명사>의 형태가 됩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알아두도록 합시다.

-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다.) [단수 주어]
-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들이 있다.) [복수 주어]

Q12. 주어가 사람인데 수동태를 쓸 경우

A: 주어가 사람인데 수동태를 쓸 수가 있을까요? 네! 구태여 수동태를 쓸 때는 수동태의 주어로 쓰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문장의 뒤보다는 앞에 오는 내용이 더 강조되거든요. 반면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안다.'는 말처럼 우리말은 뒤에 중요한 정보를 두는 경우가 꽤 있지요. 또한 'His father was killed in the war.'(그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셨다.)처럼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수동태를 씁니다. 즉, 전쟁 중에 정확히 적군의 어느 병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동작의 주체를 생략하고 사람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쓸 수 있겠지요.

Q13. 부정대명사 one/ another/ others/ the other(s)

A: 부정 대명사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닌, 사람, 사물 및 수량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말합니다. 2개일 때 one(막연한 하나), the other(나머지 하나)를 씁니다. 3개일 때 one, another(다른 하나), the other을 씁니다. 3개 이상일 때 some(어떤 몇 개들), others(다른 몇 개들), the others(그 나머지들)을 쓰지요. 또한 형용사로서 쓰일 경우, <another+단수명사>, <other+복수명사/불가산명사>, <the other+단/복수 명사>의 형태가 됩니다. others는 'other people' 혹은 'other things'의 줄임말로 대명사이므로 뒤에 또 다른 명사가 오지 못합니다.

먼저, **another**의 용법은, <an+other>의 형태로, 셋 이상에서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I have **three** cats; **one** is white, **another** is black, and **the other** is brown.'(나는 고양이가 세 마리 있어. 하나는 흰색, 또 다른 하나는 검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갈색이야.)으로 나열됩니다.

다음은 **the other**의 용법입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를 one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특정되므로 the other이 됩니다. 예를 들면, 'I have **two** sisters; **one** is in China, and **the other** in Japan.'(나는 언니가 두 명 있어. 한 명은 중국에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일본에 있어.)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others**의 용법은 어떨까요? 'Old computer models are on sale, but **others** are sold at regular prices.'(낡은 컴퓨터 모델은 세일 중이지만, **다른 것들**은 정가에 판매됩니다.)에서 낡은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정가에 팔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others를 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전부를 표현할 때는 'the others'를 씁니다. 'They have four children. One is a boy and **the others** are girls.'(그들은 아이들 네 명 있습니다. 한 명은 남자애고, 그 나머지는 여자

애들입니다.)에서 나머지 전부를 표현할 때 the others를 쓸 수 있겠지요.

Q14. other vs others

A: other은 부정형용사이고, others는 부정대명사입니다. 즉, 형용사라는 건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other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또는 불가산명사가 와야 합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들(other)은 며느리감들(~s)을 데리고 온다.' 라고 외우면 쉽습니다. 반면에 대명사는 뒤에 또 다른 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others는 대명사이므로 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 other과의 차이점입니다.

Q15. another vs others

A: another은 '또 다른 하나', others는 '다른 몇 개들'의 뜻을 가지지요. 그러면 두 단어를 다음 예문을 통해 차이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Ms. Smith is planning to open another after the success of her first Japanese restaurant.'(스미스 씨는 첫 일식집의 성공으로 다른 곳도 열 계획이다.)에서 another 대신에 others가 가능할까요? 제가 일식집을 차렸는데 월 수익이 1억으로 성공했죠. 그러면 '다른 가게를 하나 더 내면 좋겠군.'이라는 욕심이 나겠지요. 여기서 또 다른 가게는 another Japanese restaurant이 되겠지요? 그런데, others도 가능하겠지만 1호점이 잘 된다고 여러 군데(others)를 내기에는 돈이 많지 않고서야 조금은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another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지요.

Q16. 동명사 vs 명사

A: 동명사와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어법 문제에서 동명사를 써야 할지, 명사를 써야 할지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The Delta Group will postpone _____ of the new vehicle.'에서 빈 칸 자리에 producing을 써야 할지, production을 써야 할지 혼동되는 경우입니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postpone 뒤에 producing이 정답이 될 것 같지만, 이 경우 정답은 명사 **production**입니다. 그 이유는 동명사는 명사와 다르게 명사적 성질 외에도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즉, produce 동사는 '~을 생산하다'의 뜻으로 produce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뒤에 전치사 of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목적어 the new vehicle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동사적 성질이 없어지니 빈칸 자리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만약 전치사 of가 없고, producing뒤에 바로 목적어 the new vehicle이 오게 된다면, 정답은 동명사인 producing가 되겠지요.

Q17. 재귀 대명사의 <강조 용법> vs <재귀 용법>

A: 재귀 대명사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재귀 대명사의 형태는 -self(단수)/selves(복수)로, 용법에는 **재귀 용법**과 **강조 용법**이 있습니다. 재귀 용법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경우 목적어 자리에 재귀대명사를 씁니다. 강조 용법은 강조하는 말의 뒤, 문장 끝에 재귀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차이점은 강조 용법은 재귀 대명사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되지만, 재귀 용법은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여서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재귀 대명사의 강조

용법은 'He **himself** did it.'(그가 직접 그것을 했다.), 'Did you meet the CEO **himself?**'(너는 이사장 바로 그 분을 만났니?)로 강조의 의미를 더해줄 때 사용됩니다. 반면, 재귀 용법은 'Dr. Philip introduced **himself** to the audience.'(Philip 박사는 청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에서 himself는 동사 introduce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요.

Q18.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for/ since/ as**

A: 이들 접속사들은 모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와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가운데 **because** 가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직접적인 이유'를 나타내며,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She couldn't go to work **because** she was sick.'(그녀는 아팠기 때문에 출근을 못했다.)에서 **because** 가 이끄는 절은 출근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주의할 점은 **for** 가 이끄는 절은 문장 첫 머리에 올 수 없으며, 주로 첫 문장 뒤에 위치합니다. 'I believed her, **for** she would never lie to me.'(나는 그녀를 믿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에서 **for** 이하 절은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ince 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나타내면서도 보통 문장 첫머리에 옵니다. **since** 가 이끄는 절은 상대방도 뻔히 아는 이유이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Since** it's raining outside, we should stay home.'(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에서 **since** 는 **because** 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because** 는 **since** 보다 뜻이 너무 강합니다.

as 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들 중에서 의미가 가장 약합니다. 주로 부수적이고 우연적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As** it is getting dark, I had better get going.'(어두워지고 있어서, 나는 가는 게 낫겠다.)의 예문에서 보듯이, as 가 이끄는 절은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Q19. 주어 vs 가주어 / 진주어 vs 의미상 주어

A: 일반적 문장의 주어,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 주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 주어

- **I** consider you my friend.
- **She** considers you my friend.
- **They** consider you my friend.

위 세 문장에서 주어는 I, she, they 와 같은 주격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주어들은 인칭과 수(단/복수)를 구별하고, 동사도 이에 일치시킵니다. 두 번째 문장과 같이 주어가 3 인칭 단수이면서 현재일 때 동사에 '-s/es'를 붙입니다.

2) 가주어와 진주어

to 부정사는 명사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주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To learn foreign language is not easy.'에서 to 부정사구인 to learn foreign language 가 주어 자리를 채우고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가급적이면 to 부정사를 주어로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to 부정사구를 문장의 맨 뒤로 옮기면 **It** is not easy **to learn foreign language.**가 됩니다. 여기서 to 부정사로 된 부분이 주어로 문장 맨 앞에 오기는 너무 길기에 원래 주어의 자리는 가짜 주어 it 으로 대신하고 진짜 주어는 문장의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지요. to 부정사를 뒤로 옮기면 주어 자리가 비게 되죠. 따라서 '주어 자리는 채워져야 한다.'는 문법에 따라 이 빈 자리에 아무런 의미는 없고 다만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it** 을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it** 을 **가주어**라고 하고 문장의 맨 뒤로 옮긴 **to 부정사**가 **진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해석은 가주어 it 대신에 진주어(to

부정사구)를 넣어서 하면 되겠지요. 가주어 it 을 '그것은'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3) 의미상 주어

비록 동사가 to 부정사로 전환이 되었지만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It is necessary **to see** a doctor.
- It was nice **to take** me to the airport.

위의 문장에서 to see 와 to take 는 각각 a doctor 와 me 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품사는 동사뿐입니다. 따라서 to see 와 to take 는 동사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see 와 take 의 행위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to 부정사 속의 동사의 행동을 하는 주어를 표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격대명사를 단순히 to 부정사 앞에 넣으면 'It is necessary he to see a doctor.', 'It was nice she to take me to the airport.' 이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문장은 비문법적입니다. 문장에서의 본 동사만이 주격을 주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to 부정사는 이제 완벽한 동사가 아니기에 아래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주어를 표시합니다.

- It is necessary **for him** to see a doctor.
- It was nice **of you** to take me to the airport.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게 표시된 것이 보이시나요? 보통의 경우에 <for+목적격>의 형태로 to 부정사의 주어를 표시합니다. 주격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목적격이 주어의 기능을 하죠. 따라서 이 목적격을 '주어는 아닌데 의미적으로 주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죠. 이를 줄여서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한편 주격보어로 사용된 형용사(nice, kind, foolish)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경우에는 for 대신에 **of** 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Q20.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을 경우

A: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목적어와 일치할 때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 쓰지 않습니다.

1)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에서의 목적어와 일치할 때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I want you **to go** there.'(나는 네가 거기에 가기를 원해.)에서 문장의 주어 I 는 원하기만 하고 to 부정사인 to go 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문장의 목적어이기도 한 you 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you 는 문장 속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기도 하지요. 덧붙이자면, 'I want **to go** there.'에서는 to go 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주어이기도 한 I 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의미상 주어를 따로 써줄 필요가 전혀 없겠지요?

2)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에도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It is difficult **to solve this math problem.**'(이 수학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문제를 푸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It is difficult for you **to solve this math problem.**'에서는 특정한 사람인, 당신이 문제를 푸는 사람으로서 의미상 주어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요.

3)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I'm proud of **being a professor.**'(나는 교수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에서 전치사 of 뒤에 동명사가 온 표현입니다. 이때 교수인 사람은 주어인 '나' 가 되기에 의미상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이죠. 이럴 땐 주어인 I 가 의미상 주어와 같으므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I'm proud of my daughter [my daughter's] **being a**

professor.(나는 내 딸이 교수인 것이 자랑스럽다.)에서는 교수인 사람은 주어인 '나'가 아니므로 그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로 명기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의 동명사의 being 의 의미상 주어는 내 딸이고, 주어는 자랑스럽기만 하게 되지요.

4)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적 사람인 경우에도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지요. 'It is difficult solving this math problem.'에서 it 은 가주어이고, 진주어 동명사인 solving 의 의미상 주어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지칭하므로 의미상 주어를 쓸 수 있는 solving 앞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Q21. 동명사 vs 현재분사

A: 동명사도 현재분사도 동사에 ~ing 가 더해져 형태가 같지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다. 우선, 동명사는 명사 가면을 써서 명사인 척하는 녀석이지요. 현재분사는 형용사 가면을 써서 형용사인 척하지요. 동명사는 '~하는 것', 현재분사는 '~하고 있는'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 I like **watching** movies. (나는 영화보는 것을 좋아한다.) [동명사]
- I am playing the guitar. (나는 기타치는 중이다.) [현재분사]

제일 중요한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구분법은 문장에서의 역할입니다.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되었기에,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하지만 현재분사도 동명사와 모양은 같지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은 두 가지로 첫째, **명사를 꾸며준다.** 둘째,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Q22. 문장의 1-5 형식

A: 문장이 나올 때마다 자주 나오는 동사들은 1 형식부터 5 형식까지로 미리 분류해서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꾸며주는 부분, 즉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 버리면 가장 핵심적인 문장의 구성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남는데 이것들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구조를 이루는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1 형식**은 **주어 동사**로만 그리고 꾸며주는 말로 구성됩니다. 1 형식은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의미전달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굳이 다른 어구를 오게 한다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만 옵니다. 따라서 1 형식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요소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요.

2 형식은 **주어 동사** 오고 동사가 조금 부족해서 **보어** 하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2 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의미전달이 완벽하지 않아서 목적어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되고, **4 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사람) 직접목적어(사물)**로 목적어가 두 개 옵니다. **5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를 갖추게 됩니다. 각각의 형식을 예문으로 보죠.

• 1 형식 He arrived in the evening. (그는 저녁에 도착했다.)

주어는 he, 동사는 arrived이며, in the evening 은 부사구입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 있으나마나 한 존재예요.

• 2 형식 I am happy/a student.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학생이다.)

I 가 주어, am 이 be 동사, happy 는 형용사 보어라면, a student 는 명사보어가 되겠지요.

- 3 형식 I like music.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I 가 주어, like 동사, music 목적어로 3 형식이에요.

- 4 형식 My father bought me a car.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차를 사주었다.)

4 형식은 주어 my father, 동사 bought 다음에 '~에게 ~을 주다'라는 의미로 수여동사를 씁니다. 목적어가 무려 2 개로 동사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간접 목적어(~에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까지 갖추게 됩니다.

- 5 형식 She made me angry. (그녀는 나를 화나게 했다.)

5 형식은 모든 형식 중에서 가장 남에게 의존적인 동사를 가진 문장으로서 주어 she 와 동사 made 에 이어 목적어 me 가 오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3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어 me 가 어떠한지를 한번 더 보충해주는 목적보어 angry 까지 갖춰서 5 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지요.

Q23. 전치사 위치

A: 전치사가 쓰이는 위치는 목적어 앞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치사 다음에는 그 전치사의 목적어가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수많은 속어로 파생된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가 동사나 형용사들과 묶어져서 나오고 그 전치사 다음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 꼴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의 경우에는 타동사 다음에는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가 오지만 자동사는 스스로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는 전치사를 빌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그래서 수많은 속어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Q24. 원형부정사

A: 원형부정사는 to 부정사에서 to 가 사라진 형태로 동사원형만이 남게 되지요. 원형부정사는 목적어 다음에 와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하지요. 따라서 원형부정사가 쓰이는 자리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오는 자리여서 언뜻 보면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대략 세 가지로 생각됩니다.

1) 사역동사(시키는 동사)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옵니다. 'I let you **go**.(나는 당신더러 가라고 했어요.)에서 let 이 시키다 동사의 과거형태이고, you 가 사람 목적어라서 go 는 to go 가 하는 목적 보어 역할을 하는데, let 이 시키는 동사, 즉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o 를 떼어낸 원형부정사로 쓰는 것입니다. 2) 지각동사 다음에 'I noticed her sleep.(나는 그녀가 잠들었다는 걸 알아차렸다)에서 notice 도 see(보다)나 hear(듣다)처럼 지각동사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시키는 동사인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3) help 동사 다음에도 'He helped to move it.'와

'He helped me to move it.'의 문장을 살펴보면, 이 둘은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문장입니다. 앞 문장은 '그가 그것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의 뜻이고 뒤 문장은 '그는 내가 그것을 옮기는 걸 도왔다'라는 의미지요. 두 문장 모두에서 to move 를 그대로 써도 되고 to 빼 채 move 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to 를 빼 경우 원형부정사가 되는 것이지요.

Q25. 명사역할을 하는 to 부정사는 동명사로?

A: 우선 예문을 들어 설명해볼게요.

- To play a video game is exciting.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재미있다.)
- She planned to play a video game. (그녀는 비디오 게임을 하려고 했다.)
- Her hobby is to play a video game.

(그녀의 취미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다.)

세 문장 모두에서 to 부정사가 모두 명사자리에 쓰였습니다. 여기서 to 부정사 대신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로 다 바꿔도 가능할까요? 대답은 주어와 보어로 쓰이는 to 부정사인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은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자유롭게 바꾸어 쓸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장처럼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의 경우에는 동사 자체가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경우와 동명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다를 경우가 많기에 동사의 성향을 살펴야 해서 예문에 나와있는 to play 를 playing 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1)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 (주로 미래지향적)

- 소망·기대·선호 - want, hope, wish, expect, would like...
- 결심·계획·의도 - decide, plan, promise...

- 동의·요구·거절 - agree, offer, demand, refuse, choose...

- 기타 - afford, fail, manage, tend, pretend...

자, 그러면 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희망하다가 계획하고 의도해서 선택한 다음 결정해라'

wish, expect, want, hope, plan, mean, choose, decide.....

2)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 (주로 과거 지향적)

- mind, postpone, consider, enjoy, escape, admit, give up, finish, deny, avoid, stop, anticipate...

Q26. 접속사 **even though** vs **even if**

A: even though와 even if는 둘 다 우리말로 '비록 ~일지라도, ~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이 되어 서로 동의어가 아닐까 착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쓰여요. even though는 '현재 사실인 것' 혹은 '실제 상황'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지만 even if는 실제 상황이 아닌 '가정하는 상황'을 표현해요.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 I am going to drive the car today **even though** it's snowing.

(눈이 올지라도 오늘 난 차를 몰고 갈 거야.)

- I am going to drive the car today **even if** it's snowing.

(눈이 온다고 해도 난 오늘 차를 몰고 갈 거야.)

첫 번째 문장은 실제로 지금 눈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난 운전을 할 거야 라는 실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아직 눈은 오지 않지만, 만약 눈이 오더라도 운전을 하겠다는 가정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even though는 '비록 ~일지라도/ ~이긴 해도'라고 해석하면서 현재 사실인 실제 상황에서 쓰는 반면, even if는 '설사 ~이라고 할지라도/ ~한다고 하더라도'라는 뜻으로 실제가 아닌 가정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두 접속사는 동의어가 아님을 주의합시다.

Q27. every/ each 는 단수 취급?

A: every와 each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가 오고 단수 동사가 와야 합니다.

- **Every(each)** student attends meeting every Friday. [단수명사+단수동사]

(모든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모임에 참석한다.)

하지만, every와 each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every는 형용사로서 바로 뒤에 동사가 올 수 없지만, each는 형용사 이외에도 대명사의 역할을 함으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바로 뒤에 단수 동사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즉, 'Every has ~.' 는 잘못된 문장이지만, 'Each has ~.'는 가능합니다. every를 대명사로 바꾸면, everybody, everyone, everything이 되므로 단수 취급합니다.

- Everything is refundable or exchangeable within 15 days of delivery.

(배송 15일 이내에 모든 것이 환불 또는 교환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every가 '매~'의 의미일 때, 그리고 뒤에 날, 달, 해가 올 때는 복수명사가 옵니다. 예를 들면, every day(매일), every two days(매 이틀마다, 이틀에 한번), every three days(삼일 마다)가 있습니다.

- I go to a gym **every** two days. (나는 이틀에 한번 체육관에 갑니다.)

Q28. 영어회화에서 문법이 중요할까요?

A: 저도 한때는 '문법을 아무리 배워봤자 유창하게 말도 못하는데, 뭘'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틀린 생각이었다는 건 한참을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골격을 튼튼히 해 놓지 않으면,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되지요. 문법은 집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골격과 같은 겁니다. '문법이 좀

틀려도 말만 통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문법을 등한시 하는 학생들을 가끔 보는데, 그것은 더 나은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만약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성에게서 한글 맞춤법이 엉망인 문자를 휴대전화로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상대에 대해 가졌던 호감이 반감되거나, 심하면 상대의 수준까지 의심할 수도 있어요. 문법의 오류로 가득 찬 영어로 상대와 대화하는 느낌은, 어쩌면 맞춤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는 기분과 비슷할 겁니다. 핵심도 있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문법을 익혀야 합니다. 문법을 배우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하기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이지, 절대 문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법을 제정해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문법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문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Q29. 문법용어 쉽게 이해하기

A: 영문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문법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것은 문법을 100%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만약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어떻게 해서 관계대명사가 그런 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관계대명사에 대해 배운다면, 이해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법용어는 한자어입니다. 이는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일본에서 처음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영어의 문법적인 요소들을 한자어로 번역하여 만들어 낼 때, 영어의 noun이 명사(名詞), relative pronoun이 관계대명사(關係代名詞)로 명명되었지요. 우리는 일본이 만들어 낸 이 한자화된 용어들을 비판 없이 100% 그대로 받아 들였고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한자어로 된 문법적 용어가 빨리 와 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법적 용어 중에서 다소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를 나열해 보도록 하지요.

- **부사 (副詞):** 부사의 부(副)는 쉽게 생각해서 '부가적인' 또는 '부록' 과 같은 '부'로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부록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거지요. 그러기에 부사는 있으면 문장의 뜻을 풍성하게 해주지만, 없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사와 형용사의 구별은 문법적으로 중요한데, 부사는 '~게' 로 형용사는 '~한' 으로 해석됩니다.

- **전치사 (前置詞):** 전치사는 한자어보다 오히려 영어 preposition으로 그 뜻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접두사 **pre**는 '~앞에, 전에' 라는 뜻(前은 앞이라는 뜻)이며, **position**은 '위치' 라는 뜻(置는 '두다, 배치하다'는 뜻)이니, preposition은 '무언가의 위치 앞에 오는 것'이라는 뜻으로 유추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전치사를 '무엇' 앞에 위치시켜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 그 '무엇' 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명사, 대명사, 동명사입니다. 정리하면 **전치사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앞에 오는 것이 됩니다.**

- **보어 (補語):** 보어의 보(補) 는 '보충, 보완해 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보어란 보충, 설명해 주는 말로 보면 됩니다. 또한 보어는 A=B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 **관계대명사 (關係代名詞):** 동사와 명사가 합쳐져 동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명사의 성격을 띄고 있는 동명사 (動名詞)처럼,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관계'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관계'라 함은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관계, 즉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정리하자면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 **선행사 (先行詞):**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선행사의 선(先)은 '앞선다' 라는 뜻이고 행(行)은 '행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말은 '앞서서 나간다' 정도로 보면 되고, 무엇 앞에 서서 가느냐면은 명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나서서 갑니다. 정리하면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명사를 일컫습니다.

- **to 부정사 (不定詞):** 중 2때 to 부정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긍정의 반대말인 부정에 대해 배우는 것인가 보다라고 마음대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to 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과, 진주어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배울 때까지도 '아니다'라는 부정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어찌하다 to 부정사가 되었을까를 한참이나 고민했었지요. 그러다 to 부정사의 한자어를 보고 내가 생각한 '아니다'의 '부정' (否定) 과 to 부정사의 '부정' (不定) 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to 부정사의 부정은 '일정하지 않다, 혹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란 뜻인데 동명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비해서 to 부정사는 상황에 따라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기에 '딱 이거다'라고 정해진 한가지 역할만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Q30. 영어단어 암기 비법

A: 한번 본 영어단어를 그대로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지요. 우선, 발음을 하면서 철자를 빈 종이 위에 쓰면서 외우고 같이 의미도 외우는 방법이 느리고 시간은 걸리지만 정석적 방법인 듯해요. 그리고는 수시로 잊어먹고 또 문장을 통해 다시 외우고 하는 일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의 단어를 문장에서 만났을 때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암기했던 영어단어를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는 반복되지 않아서이지요. 또한 눈에 자주 익히지 않은 영어단어들은 잊어버리기가 쉽지요.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영어단어를 MP3 파일로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서 무한 반복하면서 수시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 단어가 자주 쓰이는 예문을 통해 배우는 것도 좋지요. 무엇보다도 영어는 눈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귀와 눈 그리고 입을 함께 사용해서 공부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최고의 방법은 영어에 자주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랍니다.

Q31. 스펠링 <t>가 발음할 때 <r>로 약화되는 경우

A: 미국 영어에서는 <t> 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데 무조건 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t>가 <r>로 대체되는 경우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있을 경우이며, water, beautiful, butter, tomato, better, battery, computer 등이 있어요.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더라도 액센트가 <t> 뒤 쪽에 있다면 그대로 <t>로 읽습니다. hotel을 (호텔)로 읽는 거 못 봤지요?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어도 액센트가 뒤 쪽에 있어 그대로 읽어요. potato는 (포테이로)로 읽습니다. potato의 앞의 <t>는 액센트가 있으므로 <ɾ>로 발음하고 potato 뒤쪽의 <t>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고 액센트가 없으므로 <r>로 대체하여 발음합니다.

Q32. 생소한 영국발음

A: 한국에서는 주로 미국발음이 어디서든 사용되어 영국발음이나 호주 발음이 어렵고 생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국 발음을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싶다면 영국드라마를 인터넷 카페 등에서 접해보기를 권해봅니다. 키워드를 '미드, 영드'로 검색해서 회원 수가 제일 많은 카페로 가입하면 풍부한 자료를 볼 수 있겠지요? 거기서는 대본도 볼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어듣기 능력은 단어를 들으면서 발음과 철자가 가지는 의미를 연계시키는 복합적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꾸준한 연습은 점차 나아지는 과정을 반드시 이끌어올 겁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국 라디오 방송도 청취가능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 저서는 교육부의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집필한 저서임



동 의 지 천 교 양 대 학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